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5
협동연구 2006-01-5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연구

오영희 외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07-01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06-07-02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07-03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06-07-04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06-07-05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07-06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 관 연 구 기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식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안나 연구위원 윤홍식 교수 신인철 선임연구위원 김정연 연구위원	도세록 부연구위원 이윤석 교수 김필숙 연구위원 임주연 연구위원
협 력 연 구 기 관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현 교수	손준종 교수 박강용 연구사	김지경 교수 김혜환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박수미 연구위원	오은진 연구위원 문현아 연구위원	박기남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희 부연구위원	조남훈 선임연구위원 김경래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교수 유혜영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 연구위원	정미경 부연구위원 김태은 부연구위원	박종효 부연구위원 한세리 연구조원

발 간 사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은 1950년대 정결교육에서 1960년대 순결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성교육의 논의는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에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성교육은 1990년대에 와서 성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관련과목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인구노령화가 촉진되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되어 초래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미혼율의 증가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이다. 결혼적령기인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의 9.7%에서 46.2%로 증가하였고, 여성의 초혼연령은 1972년의 22.6세에서 2005년에 27.7세로 증가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및 후천성 불임율의 증가, 저 체중아의 발생 등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의 악화는 물론이고 저출산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교육이 소극적이었다면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는 성교육은 적정 시기에 결혼하고 출산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인구자질의 향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저출산 대책 중 전략적 교육·홍보 분야에 포함시켜 기존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외국의 성교육 사례 분석,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 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오영희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조남훈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센터 소장, 이주열 남서울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본원의 김경래 선임연구원, 유혜영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산물이다. 본 보고서를 읽고 세심하게 검토해주신 본원의 황나미 연구위원, 김유경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보고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 준 손숙자 3급관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청소년 성교육이 학교인구교육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15
요 약	17
제1장 서 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42
제2장 이론적 배경	46
제1절 청소년기와 성	46
제2절 성교육의 개념	53
제3절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 현황	60
제3장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 내용분석	67
제1절 초등학교	69
제2절 중학교	77
제3절 고등학교	84
제4장 외국의 성교육 운영사례 분석	90
제1절 미국	90
제2절 독일	92
제3절 영국	93
제4절 스웨덴	96
제5절 덴마크	97
제6절 일본	98
제7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100

제5장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분석	107
제1절 학교 학생(초·중·고)	107
제2절 담당 교사	132
제3절 실태조사의 시사점	137
제6장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139
제1절 학교 성교육 기본방향	139
제2절 학교 성교육 내용과 방법	144
제3절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146
제7장 결론	153
참고문헌	157
부 록	165

표 목 차

〈표 1- 1〉	조사항목 분류 체계	44
〈표 1- 2〉	지역별 조사결과	45
〈표 1- 3〉	성별 조사결과	45
〈표 3- 1〉	초등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69
〈표 3- 2〉	초등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71
〈표 3- 3〉	초등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72
〈표 3- 4〉	초등학교 4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73
〈표 3- 5〉	초등학교 5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74
〈표 3- 6〉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74
〈표 3- 7〉	성교육 영역별 초등학교 교과 내용 분석	76
〈표 3- 8〉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체육)	77
〈표 3- 9〉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기술·가정)	79
〈표 3-10〉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도덕)	80
〈표 3-11〉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과학)	80
〈표 3-12〉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사회)	81
〈표 3-13〉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과학)	81
〈표 3-14〉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도덕)	81
〈표 3-15〉	성교육 영역별 중학교 교과 내용 분석	84
〈표 3-16〉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체육)	85
〈표 3-17〉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도덕)	86
〈표 3-18〉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사회문화)	86
〈표 3-19〉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가정과학)	86
〈표 3-20〉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인간과 사회 환경)	87

〈표 3-21〉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인간발달, 시민윤리)	87
〈표 3-22〉	성교육 영역별 고등학교 교과 내용 분석	89
〈표 4-1〉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sexuality)교육 프로그램의 기본개념	92
〈표 4-2〉	성과 관계 교육(SRE)의 3가지 요소 및 그 내용	95
〈표 4-3〉	각국의 성교육 운영 현황 및 특징	101
〈표 5-1〉	응답학생의 일반적 특성	108
〈표 5-2〉	학생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별 수업률(중복 응답)	109
〈표 5-3〉	학생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112
〈표 5-4〉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114
〈표 5-5〉	학생특성별 성관련 고민 해결 방법	117
〈표 5-6〉	학생의 특성별 피임방법에 관한 인지 정도	118
〈표 5-7〉	학생의 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관한 인지 정도	119
〈표 5-8〉	학생의 특성별 성병·에이즈 예방 방법에 관한 인지 정도	120
〈표 5-9〉	학생의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관한 인지 정도	121
〈표 5-10〉	학생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한 인지 정도	122
〈표 5-11〉	학교 성교육 내용 수업여부별 성관련 내용의 인지율	123
〈표 5-12〉	학교 성교육 내용과 성 관련 지식과의 상관관계	124
〈표 5-13〉	학생의 특성별 남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125
〈표 5-14〉	학생의 특성별 여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126
〈표 5-15〉	학생의 특성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127
〈표 5-16〉	학생의 특성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128
〈표 5-17〉	학생의 특성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129
〈표 5-18〉	학생의 특성별 혼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130
〈표 5-19〉	학생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131
〈표 5-20〉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관련 수업 유무	132
〈표 5-21〉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	133

〈표 5-22〉 교사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대한 도움 정도	134
〈표 5-23〉 교사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학습자의 수준·흥미에 대한 적합성 정도	135
〈표 5-24〉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136
〈표 5-25〉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수업 시 애로 사항	13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진행도	43
[그림 3-1] 학교 성교육의 영역 및 주제	68
[그림 6-1] 지역사회와의 성교육 사업의 연계방안	152

부표목차

〈부표 1- 1〉	전국의 지역별·학교급별 학교수	167
〈부표 1- 2〉	전국 지역별·학교급별 학급수	168
〈부표 1- 3〉	지역별 표본 학교수	168
〈부표 1- 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169
〈부표 2- 1〉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교육내용 및 성교육 학습률 ...	173
〈부표 2- 2〉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173
〈부표 2- 3〉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174
〈부표 2- 4〉	학교 성교육 수업내용별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175
〈부표 2- 5〉	학교 성교육 내용 및 수업여부별 평균 성교육 도움 정도 ...	175
〈부표 2- 6〉	성정보 습득방법별 학교 성교육 도움 정도	176
〈부표 2- 7〉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176
〈부표 2- 8〉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177
〈부표 2- 9〉	학생의 특성별 성관련 고민 여부 및 해결 방법	178
〈부표 2-10〉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성관련 고민 여부 및 해결 방법	179
〈부표 2-11〉	학생의 특성별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180
〈부표 2-12〉	학생의 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 정도	180
〈부표 2-13〉	학생의 특성별 성병·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	181
〈부표 2-14〉	학생의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 정도	181
〈부표 2-15〉	학생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182
〈부표 2-16〉	학생의 가족특성별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183
〈부표 2-17〉	학생의 가족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 정도 ...	184

〈부표 2-18〉	학생의 가족 특성별 성병·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	185
〈부표 2-19〉	학생의 가족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 정도 ...	186
〈부표 2-20〉	학생의 가족특성별 임신 및 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	187
〈부표 2-21〉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피임 방법에 대한 인지도	188
〈부표 2-22〉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	189
〈부표 2-23〉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성병, 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한 인지도	190
〈부표 2-24〉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도	191
〈부표 2-25〉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도	192
〈부표 2-26〉	학교 외 정보보 습득 여부 및 방법별 성정보에 대한 평균 인지도	193
〈부표 2-27〉	학생의 특성별 남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193
〈부표 2-28〉	학생의 가족특성별 남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194
〈부표 2-29〉	학생의 특성별 여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195
〈부표 2-30〉	학생의 특성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195
〈부표 2-31〉	학생의 가족특성별 여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196
〈부표 2-32〉	학생의 가족특성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197
〈부표 2-33〉	학생의 특성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198
〈부표 2-34〉	학생의 특성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198
〈부표 2-35〉	학생의 가족특성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199
〈부표 2-36〉	학생의 가족특성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200
〈부표 2-37〉	학생의 특성별 혼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201
〈부표 2-38〉	학생의 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201
〈부표 2-39〉	학생의 가족특성별 혼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	202

〈부표 2-40〉	학생의 가족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203
〈부표 2-41〉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남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204
〈부표 2-42〉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여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205
〈부표 2-43〉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206
〈부표 2-44〉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임신 대처 방식에 대한 태도	207
〈부표 2-45〉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	208
〈부표 2-46〉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209
〈부표 2-47〉	응답교사의 일반적 특성	210
〈부표 2-48〉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관련 수업 유무	211
〈부표 2-49〉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	211
〈부표 2-50〉	교사의 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도움 정도	212
〈부표 2-51〉	교사의 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학습자의 수준·흥미 적합성	213
〈부표 2-52〉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214
〈부표 2-53〉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수업시 애로 사항	215

Abstract

Study on Sexuality Education for Future Healthy Generations

In recent years, efforts have been made, at various level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rapid population ageing. Low fertility is caused not only by socio-economic reason factors but also by deterioration of reproductive health of the women, which results from late marriage and poor knowledge on and service delivery system of reproductive health for the youth.

As the young people's physical development becomes rapid and they can easily access to sex-related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aterials, the systematic and practical sexuality education need to solve the problems confront to the youth.

This study aimed at strengthening sexuality education, effective and practical, specificall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elicited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sexuality education needs to be integrated into population education to maximize its effectiveness. Secondly, the contents of texts, guidebooks, and other auxiliary materials for population education and sexuality education should be adjusted to reality, with diversification. Thirdly, the sexuality and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connected to the delivery system of their services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Fourthly, the basic training courses should be established and opportunities for diversified training should be provided for the teachers at various level of schools. Lastly, the concrete and practical education on sexual problems needs to be made.

요 약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은 1960대 순결교육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는 전인교육의 관점이 강조되었으며, 1990년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포함되면서 일반화되었음.
-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됨에 따라 인구정책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되어 초래되었음.
 - 저출산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이 열악해졌기 때문인데, 이는 만혼과 함께 청소년기에서의 생식보건지식 및 서비스 제공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청소년의 성(性)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일탈 행위 및 범죄 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적 과제임.
 - 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중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실정으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계획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 관련 정보들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현실을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학교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여러 교과로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고, 신체 구조상의 생물학적 지식 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이 요구됨.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보건소 조직망을 중심으로 학교, 가정, 민간단체가 연계된 성교육 사업 조직망의 구축이 고려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학교 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교과서 성교육 내용분석, 외국의 성교육 사례분석,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이해하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토록하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 및 외국 사례연구

- 성 개념, 국내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제7차 초·중·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함.
- 일본, 미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성교육 제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조사와 학급담임, 도덕, 기술·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조사
- 조사대상: 전국 131개 학교에서 학생 11,250명, 교사 1,136명
- 조사기간: 2006년 9월 21일부터~10월 21일까지
- 조사방법: 조사원의 학교 방문 조사 또는 학교 담당교사에 의한 조사

□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 학생조사: 학생 및 가족의 일반사항, 학교 성교육 수업실태, 학교 이외 성 정보 습득방법,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 해결방법, 성 관련 인지정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남녀 혼전 순결, 이성교제 실태 등

- 교사조사: 성교육 관련 수업실시 및 교육과정 이수여부, 학교 성교육에 대한 태도 등
-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에서는 학교 성교육의 기본방향,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음.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청소년기와 성

□ 청소년의 개념

-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볼 때 사춘기에서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되기까지의 시기이며, 심리적 발달 단계로 볼 때 아동기의 인지적, 감정적 발달 패턴이 성인의 패턴으로 변형되기까지의 시기이며,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는 사회구성원으로 독립되는 시기임.
-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육성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함.

□ 청소년의 특징

- 신체적 특징: 성장호르몬 분비량의 변화에 따른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로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함.
- 정서적 특징: 생리적·신체적 변화에 따라 호기심과 불안감이 형성되고 성적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
- 사회적 특징: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동성이나 이성 친구에 몰두하며 자신의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함.

□ 청소년기의 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냄.

- 긍정적인 측면: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적·애정

적 욕구의 표현이며, 아동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됨.

- 부정적 측면: 임신, 낙태, 성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이 요구됨.

제2절 성교육의 개념

- 'sex', 'gender', 'sexuality'는 모두 '성'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상이함.
 - 'sex'는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순수 생물학적 성 또는 선천적 성을 의미함.
 - 'gender'는 사회의 문화적 영향, 양육방법 등에 의해 학습되는 후천적 성을 의미하며, 두 개의 성이 어떻게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함.
 - 'sexuality'는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 구조, 성관계와 생식 능력을 포함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와 성 역할 및 성관계 그리고 규범과 느낌을 총괄함.
- 성교육적 측면에서의 성은 'sex'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온정과 사랑을 주는 능력, 개개인의 자존감과 주체성, 개인의 성적 건강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생리적 측면 이외에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sexuality'를 의미함.
 - 성교육(sexuality education)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관련된 사회 규범을 지도하는 교육, 즉, 생물학적 성 기능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는 교육을 말함.
 - 성교육은 특정한 연령계층이나 사회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인격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유아시기부터 사춘기, 청소년,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함.

□ 성교육의 목표 및 방향

-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 의식을 기반으로 건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성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태도의 확립 및 건전한 성행동 실천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이 시대적인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3절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 현황

□ 196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으로 성교육의 필요성과 시기 및 지도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결교육에서 순결교육으로 전환됨.

- 교과과정으로는 중학교 가정 교과에서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결혼, 가족, 양육, 생리, 육아 등의 단원이 보강되면서 순결교육의 차원에서 성교육이 본격화됨.

□ 1980년대에는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됨.

- 1982년 교육부는 순결 교육이란 용어 대신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교사용 성교육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성교육 실시를 발표함.
- 성생리, 성심리, 성윤리의 세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내용만 강조됐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는 미흡.

□ 1993년 개정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권고함.

□ 2001에는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보급함.

- 초·중·고교별로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정규교과와의 연계를 강조함.
-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및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전담교사에 의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내 성교육의 변화·발전과 정부의 꾸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여건 상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국내 성교육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 성교육이 정규 교과과정 속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교사나 생물, 가정, 사회, 체육 등 관련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분명하고 체계적인 학습목표가 없고 학년별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용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임.
- 중복학습, 수준미달, 비현실성 등으로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흥미 저하.
- ☐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함.
 - 현실적으로 전담교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건교육이 포함된 체육과정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 청소년들이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왜곡·과장된 성지식을 습득하고 잘못된 성경험을 갖는 등 성교육은 상당부분 방치되어 있음.
- ☐ 학교 성교육이 성문제 예방 차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후 처리 방법이나 성상담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성상담은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그 수준도 낮은 실정임.
- 학교, 민간단체, 보건소 등의 서비스간 연계도 원활하지 않아 그 성과가 미약한 수준임.

제3장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 내용분석

제1절 초등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 ☐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8가지 하위영역별 내용에 관해 부족한 분야가 많고, 성교육이 특정 내용이나 특정 학년에 편중되어 있음.

- ‘신체 발달’과 ‘성 건강(생식기 청결)’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 심리 발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2차 성징이나 월경, 몽정 등의 내용은 대부분 6학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신체 발달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성숙도와 발달단계에 맞게 조절되어야 함.
-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과 우정, 이성 친구에 대한 내용이 저학년부터 꾸준히 제시되어 있으나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성과 관련된 ‘자기주장’, ‘결혼’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
- ‘사회적 환경’, ‘양성 평등’으로 구성되는 ‘성문화·성윤리’의 내용이 부족

제2절 중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 ☐ 1학년 체육과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성교육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등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은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화됨.
 -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성교육 시기가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각 학년별 내용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1학년 이후 체계적 성교육이 부족
 -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수준 차이가 심함.
 - 어떤 교과서는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타 교과서는 생식기관의 구조와 차이, 호르몬의 변화, 정자와 난자의 생성과정,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 성교육의 다양한 내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함.
 -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권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생’ 등의 내용은 매우 미흡함.

- 순결이나 정결을 강조하던 과거의 비해 다양한 성태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성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함.
- 성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교과과정도 성관련 질병이나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의 성 건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으나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사후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은 부족함.

제3절 고등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 생식기, 이성교제, 성평등 등의 내용은 기본으로 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성적 욕구와 충동에 대한 조절 능력, 성폭력, 성관련 질병, 피임 등 실제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보강·심화됨.
- 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성교육의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있음.
-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 중학교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은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생’ 등의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음.
-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수준 차이가 심해 학교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 체육과 기술·가정, 과학 등 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과 외에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등의 교과에서 부분적으로는 다루어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함.

제4장 외국의 성교육 운영사례 분석

제1절 미국

- 미국의 성교육은 건강교육 안에 들어 있는 가정생활교육에서 다루어짐.

-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교육도 지역 실정에 알맞게 지역과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음. 각 주와 학교는 미국 교육부의 교육기준 참고로 교육과정을 개발함.
-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성교육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생애에 걸친 정보의 습득과 정체성, 인간관계, 친밀성에 관한 태도, 신조,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포괄적 성(sexuality) 교육의 관점에서 작성됨.
 -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인간의 성(sexuality)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스스로 성적 태도를 묻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 인간관계 기술 형성을 지원
 - 성적 인간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
- 포괄적 성교육의 교육내용으로서 인간발달, 인간관계, 개인적 기술, 성행동, 성적 건강, 사회와 문화 등 6가지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음.

제2절 독일

-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독일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래 각 주에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교육을 실시함.
 - 독일의 성교육은 생물학과 의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 지식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성행동 자체는 별로 언급하지 않음.
-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주도권만 가지며 헌법재판소가 학교 성교육의 일반적인 학습목표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그 책임까지도 위임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

제3절 영국

-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으로 실시되고 있음.

- 보호자, 교직원, 지방교육당국의 대표, 교장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이사회가 설치되어 협의를 거쳐 학교의 SRE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함.
- SRE의 목적은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Guidance」에 나타나 있고, 청소년의 신체적, 감정적, 도덕적 발달을 지원함.
- SRE에서는 ① 태도 및 가치관, ② 인격적·사회적 기술, ③ 지식과 이해 등의 3가지를 주요한 학습요소로 생각함.
- 정부는 SRE가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PSHE 자체도 성교육에 관련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함.
-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목적
 - 유아 및 아동학생이 자신과 책임성을 발달시켜 능력을 최대화 하게 함.
 -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스타일의 형성.
 - 좋은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를 몸에 익힘.
- 영국에서는 「Healthy school programme」이 실시됨.
- PHSE의 틀에서 실시되는 SRE로 유아 및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학습에서 시작하여 발달단계에 맞춘 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

제4절 스웨덴

- 스웨덴에서는 성교육이 가장 오래 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왔음.
- 1956년 7~15세에 대한 성교육을 의무화 하면서 남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교사도 남녀 구별 없이 담당하도록 함.
- 1977년부터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으로서 실시됨.
 - 주로 ‘생물’ 교과에서 다루어짐. ‘체육·보건’ 교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학습을 제공함. 여기에 건강한 라이프스킬의 형성을 위한 개인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도 포함됨.
-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생물학적 사실을 가르치고 인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임.

- 스웨덴의 학교 성교육 체계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예비교육, 11~13세, 14~16세, 17~20세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됨.
- 초등학교 초기에 인간의 성과 생리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중학교 초기에 실제적인 피임기술을 교육함. 아울러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줌으로써 성을 유희나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건전하고도 성스러운 행위로 인지시켜 도덕적 타락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음.
- 학교에서는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성에 대한 고민을 심리사나 보건교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음.

제5절 덴마크

- 덴마크에서는 1970년 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 이어 1971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됨.
-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책임의식,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임.
- 성교육 전담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학급 성교육을 담당함.
- 학교 성교육은 7~9학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고등학교에서는 성의 의미, 성에 대한 책임감, 피임의 종류와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함.
- 성교육은 생물 수업의 한 부분으로 총 3~4주 동안 1주에 3시간 정도
- 학교 교사 뿐 아니라 학교 의사와 청소년클리닉의 비중이 큼.
- 학교 의사는 1명이 10~20개 학교 학생의 성교육과 건강검진을 담당함.
- 덴마크 가족계획협회가 운영 중인 피임클리닉도 활성화되어 있음.
-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사는 환자와 약속이 되면 병원에서 만남을 가짐.
- 초등학생들은 성교육 과정에서 한번쯤 이 클리닉을 방문하여 피임이나 임신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보다 더 자세히 습득함.

제6절 일본

- 일본의 학교 성교육은 학습지도 요령을 기초로 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행해짐.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스웨덴의 성교육과 유사함.
 - 성교육 내용의 선택이나 그 취급에 있어서는 교사, 보호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강조하고 있음.
- 일본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성을 인격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생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임.
 - 또한 학생 스스로 생명존중, 인간존중, 남녀평등의 정신을 기본으로 올바른 이성관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의 능력을 몸에 익혀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임.
 -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① 자기의 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② 남녀의 인간관계 육성에 필요한 내용, ③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성에 관한 내용 등 3가지 영역이 고려됨.
- 교육의 방법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
 - 양호교사나 학급담임 등이 성에 관한 개별지도를 행하고, 학생은 개별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최근에는 학교나 교사, 보호자 이외 폭넓은 사회의 의견이나 사고방식도 반영되고 있음. 학교와 지역이 연대해서 학생이나 지역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7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 미국,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성교육의 초기 단계부터 인간관계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 방법 등을 지도하는 인간관계 기반의 성교육을 실시함.
 - 올바른 인간관계의 구축이 성교육의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로 인식됨.

□ 라이프스킬 교육이 도입되어 성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됨.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의 성교육은 개인의 자부심 향상이나 자신이나 책임 등의 발달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동이 성, 성적 건강, 가족생활, 살아가는 방법 등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획득, 이해, 가치관, 태도, 라이프스킬 등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임.
- 학생의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의 학습 환경 만들기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음.

□ 성교육 차원에서 성에 관한 위험행동에의 대응도 이루어짐.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시되고 있음.
-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는 흡연, 불건강한 식습관, 불충분한 신체활동, 음주와 그 외의 약물사용, HIV감염이나 그 외의 성감염증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초래하는 성행동, 폭력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동의 6개 위험행동 영역을 분류하고 있음.
 - 신체와 건강에 관한 성교육 과제는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영역의 과제가 됨. 또한 성적학대나 성적착취에 대한 성교육은 폭력과 불의의 상해를 초래하는 행동과 관련됨.
 - 따라서 성교육은 성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나 위험행동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포괄적인 건강교육,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실시됨.

- 미국의 학교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실시됨.
-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학생의 인격, 사회성의 발달과 건강의 촉진을 지원하는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틀 속에서 이루어짐.
- 스웨덴은 성교육이 다른 건강교육과 분리되지 않을 것을 요구함.
- 일본의 학교 성교육은 성의 자인(自認), 인간관계의 형성, 사회성이나 과제에 대처하는 능력 육성 등 라이프스킬의 형성과 생활방식의 육성이 목표임.

제5장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분석

제1절 학교 학생(초·중·고)

1. 학교 성교육 관련 수업실태

☐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3%로 대부분의 학생이 성교육을 받았음.

☐ 학교 성교육 관련 학습내용

- 생식기구조/이차성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임신/출산으로 74.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68.2%, 피임방법 56.6%, 성병/에이즈 52.5%, 미혼모/인공유산 25.4%, 기타 8.8% 등임.

-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수업률이 매우 낮는데, 이는 생식보건문제를 증가시키고 인구차질 저하 및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 학교 성교육의 도움정도

- 학교 성교육의 도움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8%, 약간 도움이 된다 28.1%, 보통이다 3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5%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은 37.9%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성교육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성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어야 함.

2. 성 정보 습득 방법 및 고민 해결 방법

☐ 학교 이외 성정보 습득 방법

-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터넷에 의한 습득이 28.8%로 가장 많으며, 친구/선후배는 27.4%, 부모/친인척 14.7%, TV 12.6%, 기타 8.3%, 잡지/만화 2.4%, 사회종

교단체 2.1%, 비디오 2.2%, 형제자매 1.6% 등의 순임.

-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습득할 경우 단편적이며, 왜곡된 지식을 가질 위험이 있고 성충동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이 전달이 요구됨.

☐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 및 해결방법

-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 해결 방법은 친구/선배와 상담하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부모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21.8%, 혼자 해결 한다 18.2%, 인터넷/PC통신 10.6%, 기타 방법 5.0%, 형제/자매와 상담 3.0%, 상담전문가와 상담 2.2%, 성교육 관련 책 1.9%, 학교 선생님과 상담 1.3% 등의 순이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남.
- 성문제를 ‘친구/선배’ 등의 또래집단이나 개별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청소년 성상담 클리닉이나 서비스센터가 부재한 현실의 반영임. 향후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성상담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함.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반청소년에 대한 상담 내용에 따르면 성폭행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 성교육지도, 자위행위,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성충동, 원치 않는 임신, 피임방법 등의 순임.

3. 성 관련 내용 인지 정도

- ☐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율은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의 예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율은 42.6%임.
-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보와 지식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나, 피임, 인공유산, 성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 학교 성교육 학습내용과 성관련 지식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성교육을 받은 내용과 관련 지식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4. 성 가치관

☐ 혼전 순결에 있어 남자보다는 여자에 대해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임.

— 남자의 결혼 전에 순결에 대해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41.1%, 반드시 지켜야 한다 26.5%로 전체 학생의 약 2/3정도만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함.

• 여자의 결혼 전에 순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39.6%,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34.2%로 전체의 약 3/4정도가 여자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함.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매우 찬성이 8.4%, 대체로 찬성이 22.5%, 별로 찬성 안함이 34.6%, 전혀 찬성 안함이 34.5%로 부정적인 태도가 약 70%임.

— 이는 남녀의 혼전 순결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일관된 결과임.

•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한 태도는 별로 찬성 안함 또는 찬성하는 부정적인 태도가 약 70%임.

•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한 태도는 찬성이 24.6%, 찬성 안함의 비율이 78.4%로 혼전 임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남.

☐ 혼전 임신의 경우,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28.2%,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 49.4%, 낳아서는 안된다 7.5%, 모르겠다 14.9% 등으로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 2/3 이상이 출산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제2절 담당 교사

☐ 성교육 관련 수업 실시

— 현재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33.5%는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5%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성교육 관련 교육과정 이수

—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4%이며, 64.6%는 이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 성교육 교과내용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1.1%, 적절한 편이다 20.2%, 보통이다 46.3%,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30.5%,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9%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21.3%에 불과함.
- ☐ 성교육 교과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매우 적합하다 0.5%, 적합한 편이다 14.4%, 보통이다 41.4%,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39.0%,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4.6%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14.9%로 매우 낮은 수준임.
- ☐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0%로 높게 나타남.
- ☐ 학교 성교육 수업에서의 애로 사항으로는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24.7%,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른다 17.4%, 현실이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13.0%의 순으로 나타남.

제3절 실태조사의 시사점

- ☐ 기대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 성교육의 양적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됨.
- ☐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에서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 2/3 이상이 출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원치 않는 임신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들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성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 ☐ 교사들이 성교육 교과 내용이 진부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보조 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음. 성교육이 실질적인 학생들의 성문제 예방 및 해결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보완이 요구됨.

제6장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제1절 학교 성교육 기본방향

1. 학교 성교육의 기본목표

☐ 학교 성교육의 기본 목표

-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을 배양함.
- 지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갖게 함.
-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분별력 있는 성윤리를 확립함.

☐ 학교 성교육의 학습 목표

- 실적이고 올바른 성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성문제를 예방
- 성적 의사결정력의 배양
- 성 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배양
- 성평등 교육의 실시
- 생명에 대한 존중감 배양
- 인간관계 교육의 실시

2. 학년별 성교육 목표

☐ 초등학교

-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지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함.

- 세부 학습목표는 ① 부모로부터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② 부모, 형제, 친척과의 혈연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생활태도를 배우며, ③ 자신이 소중한 만큼 주변 친구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 및 남녀 역할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 ⑤ 신체발달에 따른 정신적 성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임.

□ 중학교

- 학생들의 개성신장을 도모하고, 지적 발달의 성숙과 원만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하는 태도를 배양함.
- 세부 학습목표는 ① 신체발달에 대한 남녀 간과 개인 차이를 알고, 자기 성장을 바르게 이해함, ②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른 성적 에너지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이를 승화 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자율적인 생활태도를 배양함, ③ 남녀관계에 있어서 평등성과 상호 존중의 개념을 이해함, ④ 순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성 윤리관을 확립함, ⑤ 남녀 각각의 성에 적절한 행동과 역할을 인식함, ⑥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등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임.

□ 고등학교

-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여 건전한 심신관리를 도모하고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 있는 태도를 길러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도모함.
- 세부 학습목표는 ① 남녀의 신체구조의 차이와 생명의 탄생 과정을 이해함, ② 성기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성윤리 의식을 고취함, ③ 이성에 대한 관심, 사랑의 의미, 성생활, 피임 등을 이해함, ④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이해함, ⑤ 임신의 중요성, 과정, 분만 및 육아 방법을 이해함, ⑥ 가족계획의 기본개념을 이해시키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킴.

제2절 학교 성교육 내용과 방법

□ 학교 성교육 내용

- 청소년의 정상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음성적인 성에 관한 호기심을 양성화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식을 학습함.

□ 성교육 운영 방법

-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업형태의 변화가 요구됨.
 - 성교육 수업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의 해결과 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토론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업내용에 따라 이론 보다는 실제 경험사례를 인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요구됨.
- 성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기술가정과 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외에 일반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특히,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

제3절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학교, 보건소, 청소년 이용기관, 민간단체 등임.

- 이들 기관 간에 효율적인 연계가 구축될 때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보건소

-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청소년 성교육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함.

- 학교 및 청소년 상담기관, 사회복지관, 보호시설 등에 성교육과 관련된 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나 상담 전문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함.

□ 민간단체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성 상담센터를 통해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각 지회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연계 모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

□ 청소년 이용기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은 일차적인 성 상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함.
- 일차적인 성 상담 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뢰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 센터에 연결해 줌.

□ 기타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클리닉, 서비스센터가 부재하여 청소년들이 성문제를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또래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거나 무허가 불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 성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사이버 성상담 지원 강화
 -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10대~20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청소년 성상담이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소년 성건강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성상담은 물론, 학부모를 위한 자녀 성상담, 각종 성교육 자료를 제공함.

제7장 결론

□ 향후 올바른 학교 성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교육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함.
-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하고,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 보조자료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
-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넷째,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다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뒤늦은 시기에 출발하였다. 1960년을 전후한 성교육은 성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정결 또는 순결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교육의 주체도 학교보다는 부모가 전적으로 담당하며, 학교는 성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행동에 직면할 경우에 한하여 개별 지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채택되면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법 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68년에는 성교육 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생물, 체육, 가정 등 관련 교과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중등학교 가정교과서에 여성생리에 관한 기초내용이 포함되면서 성교육이 태동하게 되었다(김성애, 2000).

1970년대에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확립시켜 이들 스스로가 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야기하고, 성적인 충동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학교 성교육의 발전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83년에 문교부가 배포한 '성교육 지도자료'에서 성교육이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어린시절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성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기도 하였다(고진배, 1997).

1990년에 교육부가 개발한 성교육 자료는 1983년의 내용에 비해 성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서도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성교육에 관한 제 6, 7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내용에는 성교육은 관련교과와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여 성교육은 관련교과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친 주요 교육과제로 인식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과목이나 특별활동 및 결강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성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인구노령화가 촉진되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승이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과 가치관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정착되어 초래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두섭, 2002).

저출산 원인은 그간의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의 열악함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보건의료적인 원인의 하나는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 후천성 불임증, 저 체중아의 발생 등 여성의 생식보건 수준이 열악해졌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년기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생식보건교육 및 서비스 제공의 부족이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여성의 초혼연령이 1972년 22.6세에서 2005년 27.7세로 급상승함에 따라 생식보건 수준의 악화, 인구자질 저하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후천적 불임증 등 이미 악화된 생식보건 상태를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며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나, 건전한 결혼 및 자녀관은 일회적인 교육으로 정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가치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기부터 생리적, 과학적 지식과 성 윤리 및 가치관을 포괄하는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性)건강은 인구재생산과 관련될 뿐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과 자기정체성, 사회적 행태의 형성에 밀접하게 결

부되어 있다. 이 시기에 건전한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일탈 행위 및 범죄예방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최근 정보화 및 대중매체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성에 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범람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개방적이고 선정적인 성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 관련 정보들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로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고, 신체구조상의 생물학적 지식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생식보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하여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할 수 있으나 현재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성교육은 극히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인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중에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분야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저출산 대책 중 전략적 교육·홍보 분야에 포함시켜 기존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청소년의 성문화 및 가치관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가치관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성문제는 저출산 대책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정부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하여 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간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교육 개발 및 상담에 관한 소규모 연구사업이 지원되었을 뿐

학교 성교육과 연계된 사업 활동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성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성상담 지도사업이 부분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학교와 보건소, 민간단체와 가정이 연계된 사업조직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및 초·중·고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외국의 성교육 사례분석,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학교 성교육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지식 이해와 건전한 성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저출산 대책에 부응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문헌연구에서 청소년 성교육 관련 기존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성 개념 및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학교 성교육상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성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의 성교육 제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제7차 초·중·고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학교 성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에서는 학교 성교육의 기본방향,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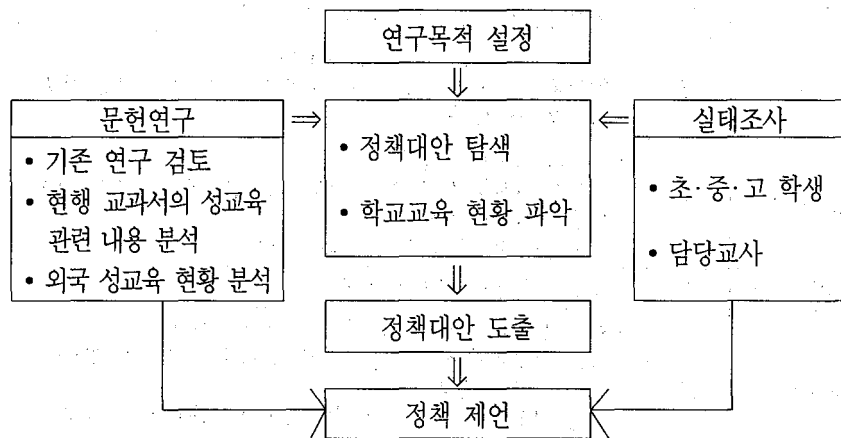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교과서 내용분석, 외국 사례연구,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그리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그림 1-1 참조).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 성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 기간중 학교별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규모는 전국 132개 학교에서 학생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응답능력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5~6학년(각 1학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 학년(1~3학년 각 1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부록 1 참조). 조사방법은 학교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담당교사가 통보해 준 일시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 학생 및 교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학교측에서 직접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 설문지는 학생의 '학생용 조사표'를, 교사의 경우 '교사용 조사표'를 각각 이용하였다(부록 3~부록 4 참조).

[그림 1-1] 연구 진행도



3. 조사항목

조사항목의 선정 기준으로는 연구주제에 적합하도록 학생 및 가족의 일반사

항 이외의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등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학생대상 조사의 특수성과 조사항목수 등 제약점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은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 중 일부항목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조사항목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세대간 차이 등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1-1〉 조사항목 분류 체계

구분	문항수	문항내용
개인·가족 사항	13	·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종교, 희망 교육수준 ·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에 대한 태도, 양육대상자 · 부모생존여부, 부모 이혼여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취업상태 · 가족구성(확대·핵가족), 가구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2	·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간의 관계
가족관	9	· 학생의 가족관(6) · 과목별 가족내용, 학습한 가족내용, 가족내용 이해도
결혼관	16	·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의견, 결혼관(12) · 학생본인의 결혼 의향, 배우자의 조건
자녀관	15	· 자녀의 필요성, 학생의 자녀관(10) · 학생본인의 자녀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 남아 선호 여부 ·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경험
성역할관	8	·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 · 부부간 가사분담, 자녀양육분담,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태도 · 학생의 성역할관(3) · 남학생의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태도
성평등 의식	1	· 성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식
성교육	16	· 학교 성교육 내용, 도움 정도, 학교 성교육 담당 과목 · 학교 성교육의 성지식 습득경로, 습득내용, 성지식 정도(5) · 성문제 상담 대상자 · 남성·여성의·혼전순결, 혼전임신,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 이성교제 경험
정책	2	· 학교의 저출산고령화 교육경험 여부, 저출산고령화정책 인지도
고령화	4	·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 ·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부모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 노인이 된 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4. 조사결과

132개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학교에서 조사 거부가 발생하여 총 131개 학교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은 학교의 지원과 조사원의 지도에 의하여 당일 출석학생 전원을 조사한 결과 11,250명이 조사완료 되었다(표 1-2 참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게 조사되었고 남녀 공학인 학급에서 10명의 성별 미상이 발생하였다(표 1-3 참조).

실태조사결과는 백분율 및 평균치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기술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을 활용하였다. 각 통계표에서 분석한 응답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시켰고, 승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표 1-2〉 지역별 조사결과

(단위: 명)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761	808	328	1,897
중학교(1~3학년)	2,146	1,837	519	4,502
인문고등학교(1~3학년)	1,722	1,679	528	3,929
실업고등학교(1~3학년)	439	405	78	922
계	5,068	4,729	1,453	11,250

〈표 1-3〉 성별 조사결과

(단위: 명)

구분	지역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초등학교(5~6학년)	1,005	889	3	1,897
중학교(1~3학년)	2,394	2,104	4	4,502
인문고등학교(1~3학년)	2,020	1,907	2	3,929
실업고등학교(1~3학년)	447	474	1	922
계	5,866	5,374	10	11,250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소년기와 성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Adolescence)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nc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 어원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기란 유년과 성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생애주기의 한 단계로 유년에서 성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즉,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볼 때 사춘기의 시작으로부터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되기까지의 시기이며, 심리적 발달 단계로 볼 때 아동기의 인지적, 감정적 발달 패턴에서 성인의 완전한 패턴으로 변형되기까지의 시기이며, 또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는 사회구성원으로 독립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면, 아동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성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12~18세 사이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심리적인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때를 청소년기라고 한다(이문희, 1993). 즉, 일반적으로 급격한 생리적 변화와 성호르몬의 분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경까지를 말한다(김태련, 1992).

법적으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육성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청년을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로 규정하고 소년을 초등 학교까지의 연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Bergius와 Roth는 사춘기와 청소년 개념은 서로 밀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시기적으로 보면 12~20세까지의 급성장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생물학에서는 청소년이란 성인으로 성장해 제2의 성장인 신체적·생리적 성숙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기로 보며,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행동단계로서 아동의 역할은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권이중, 1998).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기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인 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의 한 기간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면에서 질적, 양적인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가치체계를 형성해 삶의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발달 선상의 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유발하는데, 우선 신체적으로는 성장호르몬 분비량의 변화에 따른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로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자의 경우 고환 및 부고환의 성장, 음모, 신체 성장, 음경의 변화, 안면 및 겨드랑이의 털, 몽정, 땀샘, 여드름 등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여자의 경우 유방의 성장, 음모, 신체 성장, 초경, 우선 및 땀샘, 여드름이 발생한다(Fairman, 1974). 또한 유아기 이후 인간 발달 단계에서 가장 왕성한 신체적 발육이 진행되어 남녀 모두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신체적 성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뼈와 근육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소위 사춘기¹⁾라고 말

1) 사춘기(Puberty)라는 말은 라틴어의 Puberts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성인다운 연령, 모발의 성장,

하는데 청소년기와 사춘기가 동일어²⁾처럼 사용될 정도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시기의 생리적, 신체적 변화는 매우 급격하면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이나 불안을 쉽게 일으키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성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스스로의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가족의 분위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

정서적인 특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적인 변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Newman은 신체적인 변화가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4가지를 지적하였는데 먼저 신체적인 변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해주며, 둘째, 각각 성역할 정체감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셋째, 급격한 신체변화의 반동으로 보다 자기도취적인 욕구를 해소하려 하며, 넷째, 신체적 발달의 각 측면이 어떠한 양면 가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이문화, 1993, 재인용).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 원인에는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외에도 인지적 변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조망 발달로 인한 자아의식의 변화, 사회적 역할 기대에 따른 적응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청소년기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며, 과민하며, 열정적이고 격동적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소한 일에 예민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낙담에 잘 빠지거나 화를 잘 내고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이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나 수줍음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보인다.

Blos(1962)는 신체 성장에 대한 심리적 적응 체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초기 청소년기로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심리적으로 아직 준비

음모의 발생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하영희, 2000).

2) Hurcock는 남녀의 성적 성숙을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기를 전 청년기(여 10~11세, 남 11~13세), 청년전기(여 12~17세, 남 13~17세), 청년후기(여 17~21세, 남 18~21세)로 세분하였다. 이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유입되는 관문인 청년전기를 사춘기라 한다(구자옥, 1991). 즉,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기에 들어선다고 하겠다.

가 되지 않아 청소년 자신들은 스스로의 사고와 충동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이러한 부적응은 생물학적 성숙과 심리적 기대가 적절히 통합될 때 해소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중기로 부모의 인정이나 지지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 즉, 친구들에 대한 애착심과 연대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더 의식하며 믿고 따르게 된다. 세 번째는 청소년 후기로 신체적, 생리적 성숙과 심리적 발달 및 적응이 공고히 통합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독특한 판단, 흥미, 지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들과 경험을 나누며, 청소년기 특유의 자아 중심성도 줄어들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리적 성장이 끝난다고 보았다.

끝으로 사회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부모와 잦은 갈등 상황을 연출하고 동성이나 이성 친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성인들에게 자신의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반발하거나 자기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반항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2의 반항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발달과정으로 이를 통하여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된다(김은영, 2006). 정운영(1993)은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일과 사랑을 배우고 직업, 결혼, 인생관 등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승인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집단 소속의 감정이 강하다. 따라서 친구 집단에서의 배척을 두려워하여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에 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하는 사례가 많다. 즉, 청소년의 비행은 이러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3. 청소년기의 성문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왕성한 성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정체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어 성은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심리·생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신의 성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애정적 욕구의 표현이며 가족과 분리되고 아동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긍정적인 목적도 있다. 반면 청소년의 성행동은 임신, 낙태, 성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홍봉선·남미애, 2003).

Jersild(1957)는 청소년의 성을 성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만, 사회적 통제와 미혼이라는 이유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성적 실업자로서의 관점에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청소년은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불안과 호기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둘째,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적 사상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 진다. 셋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쏠트며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하고자 원하지만 교제라든지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넷째, 성욕의 배출에 있어 문제를 경험하거나 사회적인 성문화의 강한 자극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섯째, 특히 성인의 성도덕관과 청소년의 성도덕관의 자질 때문에 때로는 억압된 형태로, 때로는 방임적인 형태로 기울어져서 여러 가지 성적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성교제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실상 많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성 충동이나 성 관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 중학생의 60~80%, 고등학생은 97.4%가 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비율은 중학생 다섯 명 중 한 명, 고등학생은 두세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영, 2006).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1998)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중학생 중 남자 28%와 여자 30%, 고등학생 중 남자 54%와 여자 53%가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거나 현

재·교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남자 69%, 여자 37%, 고등학생 중 남자 91%, 여자 60%가 성충동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위행위의 경험은 중학교 남자 36%, 여자 8%와 고등학교 남자 28%, 여자 14%로 나타났다. 성 경험의 경우 중학교 남자 3.5%, 여자 2.5%와 고등학교 남자 17.7%, 여자 10.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상원(1997)에 의하면 전국 중·고등학생(3,000명)중 성 경험자는 남자 중학생 11.0%, 여자 중학생 3.5%, 남자 고교생 17.6%, 여자 고교생 5.5%로 확인되었고 이들 가운데 성병 감염자가 1.5%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 여학생 중 40명당 1명이 성폭행을 당했고 40명당 10명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성적인 충동을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데 이성교제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의 이러한 특징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거나 성적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충동을 억제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성충동을 발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의 유흥 퇴폐적인 환경과 언론매체는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더욱 자극하며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세하여 인간 경시풍조와 성의 상품화 현상은 청소년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면서 오히려 성충동을 자극하고 있다(이재창, 1996).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각종 만화, 광고,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인터넷,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거의 대부분 성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문화 속에서 성은 교묘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이용되며 일간지도 성에 관한 대범한 기사들이 게재되고 있다(구자혁, 2000). 여기에 최근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온라인 포르노나 온라인 성폭력이 중고생, 심지어는 초·고등학생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출처를 살펴보면, 장경숙(1996)의 조사연구에서는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친구가 54.3%, 선생님이 24.3%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선생님이 48.9%, 친구 27.7%로 나타나 남학생은 친구, 여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성지식을 얻고 있다고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현숙(199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친구, 잡지, 책, 선생님의 순이었고, 여학생은 친구, 대중매체,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정(1996)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 책,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남자 고등학생은 책이나 잡지를 통해 성지식을 가장 많이 얻고 있었고, 그 다음은 친구를 통해서였으며 여자 고등학생은 친구와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희(1991)의 연구에서는 친구를 통하여가 42.2%,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12.8%,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 2.9%의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를 비롯하여 잡지, 대중매체로부터 얻는 정확하지 않은 성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단편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위험이 높고, 이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청소년의 성지식 정도를 연구한 여러 편의 조사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상옥·남현철(1992)의 연구에서 남녀 중학생의 경우 월경 현상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학생은 64.8%, 몽정 현상에 대해서는 49.3%만이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에 대해서는 94.3%가 바르고 알고 있었으나 출산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학생은 60.6%로 비교적 낮았다.』(199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지식 점수는 64점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몽정에 대해, 여자는 월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피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남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성지식 점수가 25점 만점에 12.01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성 생리에 관한 지식이 가장 높고 피임에 관한 지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세권 외(2000)의 연구에서 영역별 성지식 수준을 보면, 성병에 관한 지식은 여학생이 4.1점으로 남학생의 3.9점보다 높고, 임신 지식도 여학생이 2.9점으로 남학생의 2.6점보다 높았으나, 피임에 관한 지식에서는 남학생이 2.8점으로 여학생의 2.5점 보다 높았다. 여학생은 일반적인 성지식은 높으나, 실제 필요한 피임방법에 대해서는 남학생들보다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한데 반해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학교의 성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김정옥(2001)도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들이 학생들의 성숙상태와 맞지 않는 면이 있으며 교과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신체적 발달이 더욱 촉진되고 사춘기 연령이 앞당겨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더 빨리 성적 고민이나 갈등에 직면하게 되며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무분별한 성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 속에 방황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장발달 과업중의 하나인 성주체성의 확립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본능적 충동이 증가하게 되어 사소한 욕구 좌절에 쉽게 문제 행동과 성적 발달 장애를 일으키거나 성적 발달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힘든 병적 행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이영자, 1985).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성장발달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성적 욕구를 승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이 요구된다. 그러한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지식의 전수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절 성교육의 개념

1. 성의 개념

가. Sex

본래 라틴어의 ‘니누다(seco, cut)’라는 뜻의 ‘sexus’에서 유래된 ‘sex’는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성별을 구분하는 경우 사용한다. 즉, ‘sex’의 남성과

여성은 수정과 동시에 결정되는 순수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 또는 선천적 성을 가리킨다. 혹은 성 행위를 나타내는 좁은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서울특별시 교육청, 1997).

나. Gender

‘gender’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상관없이 그 사회의 문화적 영향, 양육방법 등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 성을 의미한다. 태어날 때는 남녀로 태어났지만 그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 양육 방법 등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인 성으로 자신이 느끼는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한다. 사회·문화 구성원으로서 남녀의 의미에 무게를 두는 gender 개념은 두 개의 성이 어떻게 조화롭고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sex’와는 차별화 된다.

다. Sexuality

19세기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Karlmeron에 의해 제창된 ‘sexuality’는 보통 성욕 또는 성애로 번역되기도 하나 sex나 gender와는 달리 강한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다. 우리에게 sex와 gender, sexuality 모두 성(性)으로 번역되는데 한자어에서 보듯이 마음(心)과 몸(生)의 양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이란 전체적인 인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성행동이나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윤가현, 1990).

김혜자(1997)는 성(sexuality)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성격, 인격, 인생의 개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성기 중심이 아닌 정신적인 개념을 지녔으며,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 구조, 성관계와 생식 능력을 포함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와 성 역할 및 성관계 그리고 규범과 느낌을 총괄한다고 설명한다. 즉, 성(sexuality)은 단순한 욕망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심, 꿈, 행동, 환상,

성의 존재 의미 등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김미주, 1997; 한국부모교육학회, 1998)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sexuality)은 후천적으로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이고 지배적인 기질을 남성적으로 온순하고 소극적인 기질을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파푸아 뉴기니아의 부족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문호, 2001).

따라서 성교육적 측면에서의 성은 'sex'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온정과 사랑을 주는 능력, 개개인의 자존감과 주체성, 개인의 성적 건강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생리적 측면 이외에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sexuality'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문인자 외(1997)의 연구에서도 성교육의 성은 'sex'가 아니라 'sexuality'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성행위,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성교육에 있어서 성(sexuality)은 생리적, 신체적인 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문화적인 성 개념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이므로 성교육은 단순한 남녀의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나 성교에 대한 지식의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 성교육의 개념

성교육의 성을 'sex'가 아닌 'sexuality'로 규정한 것은 일상적인 성(sex) 개념이 교육의 영역에서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면 성 행위나 성 관계를 연상하게 됨으로써 성교육을 단순히 성(생식) 기관에 대한 생리적 지식이나 성행위 교육에 국한되어 생각하게 되거나 남녀의 애정 교육이나 그릇된 성행위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막기 위한 도구적 교육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교육의 성을 'sex'가 아닌 'sexuality'로 정의하면 성교육(sexuality education)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사회규범을 지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성(sexuality)의 의미가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되다 보니 성교육에 대한

정의 역시 맥락은 유사하나 학자나 교육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Harris(1974)는 성교육이란 성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성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성도덕을 위한 특정한 태도를 형성하려는 것도 아니라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성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성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화연(1991)은 성교육이란 우리 몸의 성적인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로 인한 여성 소외, 남성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등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 실천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규숙(2000)은 훌륭한 남녀관계를 목표로 하여 남녀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평등과 존경, 신뢰 및 자기 통제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며 남녀의 생애 동안에 신체적 발달과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사랑과 성을 이루도록 정확한 성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신문화연구원(1991)은 종래에는 성교육을 남녀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 관계, 즉, 원만한 성행위에 관한 지식과 이에 따르는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가르침으로써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를 돕고 성도덕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례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용어 자체가 'Sex Education'에서 'Education for Human Sexuality'로 바뀌어 삶의 가장 원초적 현상인 성의 충족이 인간발달의 모든 국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교육으로 파악되고 있음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4)에서는 자신의 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상대방의 성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은 성기나 성 호르몬의 생리적 기능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인간의 성을 심리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며, 인간교육으로서 성교육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SIECUS, 1996)는 성교육은 성의 긍정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성교육은 성에 관

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정체감, 대인관계 등에 관한 태도, 믿음, 가치관을 형성하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적 영역(정보), 정의적 영역(느낌, 가치, 태도), 행동 영역(의사소통, 의사결정, 인간관계)에 관한 성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정신적 차원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시백(2000)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펴낸 성교육 세미나 자료에서 성교육은 인간의 생식 생리, 해부학적 구조 등 생물학적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인격화 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성교육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성교육이란 성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관계 및 평등한 권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종합적인 인격완성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교육은 어느 특정 연령계층이나 사회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인격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유아시기부터 사춘기, 청소년,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 성교육의 의미는 건전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인격체를 정규교육을 통해 길러낸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신체적, 생리적인 구조 기능의 지식과 더불어 올바른 성 의식과 가치관, 태도, 문화 등을 형성하여 진정한 정체감을 깨닫고 확인하며 남녀 이성간에 인간존중과 양성 평등사상을 자신의 인생관과 윤리관에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서서히 성숙한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신건강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사회·문화·환경과의 관계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3. 성교육의 목표 및 방향

성교육은 개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좁은 의미의 성 지식의 전수에서 올바른 성 사회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성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남녀의 신체적 구조나 기능 등의 생물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다. 즉,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따른 적절한 지식 제공을 기본으로

각 개인의 성적 발달에 따른 적응을 돕고, 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책임있는 성윤리를 확립하도록 도우며, 남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맹현주, 2005).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습관을 기르고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 지식을 갖게 하며, 셋째, 올바른 성 의식, 분별있는 성윤리를 확립시키는 것이다(안창선·김현옥, 1992). 또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알맞게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이성과 특성, 역할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바람직한 성 태도와 성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영위함은 물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이체희 외, 2000).

Schiller(1973)는 성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성교육은 모든 성과 가족계획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이 알고 싶어 하는 무엇이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성에 대한 자아인념을 지닌 구성원이 되도록 성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양성 사이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성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젊은이와 성인 세대 간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동료들 사이의 각기 다른 성행동을 이해시킬 수 있음으로써 개개인이 다양한 성에 관련된 생활 유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다섯째, 성인세대와 젊은이 사이에 서로서로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증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건전한 삶의 필수 불가결한 영역으로서 성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야 한다. 일곱째, 가족계획을 통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Bruess와 Greenderg(1998)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성기 중심의 성관과 이중적 성 윤리를 극복하고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으로서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성교육은 성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기보다는 성에 대한 열린 마음과 정직한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성교육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라는 시각에서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성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 셋째, 성교육은 부모와 함께 시작한다. 계획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성 교육자는 부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성교육에 있어서는 비언어적 성교육이 언어적인 성교육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할 수 있다. 자위행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머뭇거리며 어색해하는 모습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위행위란 답하기 곤란하고 난처한 그 무엇, 즉, 자위행위란 그리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이처럼 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직접적 언어적인 표현으로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더라도 성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섯째, 성교육은 정확한 성 정보나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성교육은 결혼과 자녀양육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전 연령단계에 걸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위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신체·심리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윤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적 심리적 발달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신체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 변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가족관계와 동서이나 이성 친구관계를 형성하면서 올바른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성평등적 성역할의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정체성과 성문화 및 성윤리 의식을 형성하여 성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김미숙(2006)은 국내의 성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섯가지 성교육

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올바른 성 지식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둘째, 범람하는 성 정보의 혼란 속에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성교육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방법은 소집단을 구성하여 대화식·토론식 방법으로, 단편적 주제가 아닌 통합된 주제들로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지도가 되어야 한다. 넷째, 성교육은 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이고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성적 흥미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남녀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상화하거나 신비화하지 않고 이성간의 특성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 의식을 기반으로 건전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원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인간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성교육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 태도의 확립 및 건전한 성행동 실천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인 여건이 반영된 현실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절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의 발전과 현황

우리나라 성교육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성교육은 주로 윤리관과 가치관에 관한 것이었다.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는 불교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의 관습과 규범이 유포되면서 여성들에게 여필중부, 내외법, 칠거지악 등 순결이나 정조관념을 교육하였다(김정옥, 2001). 그 후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 문물과 사상이 유입되었고 성에 있어서도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여전히 윤리관이나 가치관에 제한되었다.

김정옥(2001)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성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인데, 1950년대의 성교육은 성적 타락을 방지하고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등 정결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정결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결교육은 사회제도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자는 아버지에게 의해, 여자는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학교에서는 순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지식을 가르치되 노골적인 성생리 지식이나 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실시하되 집단지도는 철저히 배격하고 개인 지도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도 남학생은 남자교사가 여학생은 여교사가 지도하도록 하였다(이영옥·황인효, 1975).

그러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점점 약화되어 학교가 가정교육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었던 실정이라 당시 문교부는 학교에서 성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더욱이 1960년대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 급증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해졌고 그 영향으로 성교육의 필요성과 시기 및 지도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1960년대에는 성교육의 명칭을 ‘정결 교육’에서 ‘순결 교육’으로 바꾸었다. 1963년부터 2년간 순결 교육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중·고등학교의 순결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후 1966년 성교육에 대한 문교 방침이 발표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의 필요성과 적합한 교육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김준형, 2004). 교과과정으로는 중학교 가정 교과에서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언급되었고 이어서 결혼, 가족, 양육, 생리, 육아 등의 단원이 보강되면서 순결교육의 차원에서 성교육이 본격화 되었다. 실제로 있어서는 양호교사가 여학생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별한 경우 개인지도도 병행하였다(장지옥, 2004).

19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청소년의 성숙도가 빨라지는데다 성 개방 풍조가 서서히 밀려오면서 전통적인 유교 윤리관이 약화되고 피임약의 발달과 함께 향락 퇴폐 산업의 성행이 사회문제화 되자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학교의 성교육도 시대상을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것들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솔직히 지도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성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논의는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였으며(박준희, 1987) 여전히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1978년에 교육부에서 장학자료로써 ‘순결 교육 자료(장학자료 제2호)’가 만들어졌으나 주 내용은 문제성향이 있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여학생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김성애, 2000; 장지옥, 2004).

1980년대에는 순결교육에서 성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1982년 교육부는 순결 교육이란 용어 대신 성교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교사용 성교육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각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성교육 실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초·중·고 학급 지도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1982)에는 성교육이 단순히 성기라든지 성 생리에 대한 지식에만 한정될 수 없는 것이고 성 생리, 성 심리, 성 윤리,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내용만 있을 뿐 학급 지도를 위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에 대한 부분은 미묘하고 민감한 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나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공세권 외, 2000; 김성애, 2000).

학교 성교육에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83년 12월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교사용 성교육 지도자료를 편찬, 전국의 중등학교에 배부하면서 부터이다. 그 내용을 보면 사춘기와 제2차 성징에 관한 이해, 사춘기 남녀의 급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해·수용·관리,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성적 관심과 충동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이성교제, 남녀의 평등성, 사정과 몽정의 생리, 유전, 인구와 사회 발달, 남녀의 사회적 역할,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성 및 남녀 관계, 남녀 신체 구조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성 성숙과 병행하는 남녀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의 차이 등이 포함되었다(박경숙, 1990). 이러한 내용은 학교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다루게 된 것이며 가정 교과서의 여성 생리에 관한 수준에서 탈피하여 전인 교육의 과정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1984년 이후 당시 문교부는 교사용 성교육 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여건 상 형식적이거나 혹은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7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화된 사고방식을 갖지 않도록 균형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성교육을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특히 관련 교과에서 강조하여 실시하도록 제한하였다.

1993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의 운영지침을 보면 초·중등학교 공히 ‘도덕 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안전교육, 성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등은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지도’에 힘쓰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3).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초·중·고 성교육 지도자료를 배부, 지도하도록 하였는데(류수자, 2000) 한국교육개발원은 발간사에서 ‘개인이 겪는 성 고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나 성피해로 연결되는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성교육 지도교사들은 성교육에 임할 때 생물학적 성 지식 뿐 아니라 이성적 사고와 가정, 사회, 문화적 측면의 성 지식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성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AIDS의 세계적 확산이 성적 행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가르치고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판단력을 지니게 하며, 보다 현실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 관련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공세권 외, 2000)고 하여 순결교육에서부터 시작한 50년대의 성교육이 90년대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별로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정규교과와도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적합한 성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부터는 피임교육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별활동이나 수련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연간 10시간의 성교육 전담교사에 의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1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전국의 초·중·고교에 전달하여 학교 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연간 15시간 정도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달하는 교육청이 있는가하면, 주당 6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통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규정조차 없는 곳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 성교육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1950년 정결교육으로 시작된 성교육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으로 변화·발전하였다. 또한 교육의 시행 형태도 가정에서의 개별 교육에서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으로 전환되었고 교육 당국의 지도 자료 개발이나 시행 지침 발달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여건 상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학교 성교육이 학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정규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배정하지 않고 일반 교과시간이 결손될 때 보건교사 등에 의하여 보충하는 정도로 진행하거나 입시가 끝난 후 졸업까지의 여유시간을 이용해 단편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와 같은 성교육의 효과가 기대한 수준에 미치고 있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김현아, 2002).

또한 성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면서 어떤 시각에서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김중규, 1998). 교육 당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성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학생들을 지도할 구체적인 수준이나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해 교사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개발, 보급되고 있는 성교육 자료가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를 충족할 정도로 다양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의식 및 성지식 수준은 다양한데 비해 성교육의 단계별 교재 개발은 부족한 편이다. 배운성(1997)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교육을 한 과목으로 수렴하여 학생들의 성 성숙도 정도와 요구 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성교육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성교육의 기본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성교육을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으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성교육이 정규 교과과정 속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교사나 생물, 가정, 사회, 체육 등

관련 교과목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 등 일정 시간을 성교육에 할애하여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분명한 학습목표가 없을 뿐 아니라 배우는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교육은 학생의 신체 및 정서·심리 발달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있어야 하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내용 수준 또한 극히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성교육 내용들이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내용이 심화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도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특강형식으로 성교육이 수행됨으로서 중복학습, 수준미달, 비현실성 등의 문제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둘째,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사가 청소년 입장에서 성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을 성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지도, 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상담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성교육은 결혼, 출산, 가족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교육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담교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건교육이 포함된 체육과정에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경험을 갖고 있다. 대부분 왜곡 과장된 성지식으로 잘못된 비행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부모들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성교육을 담당할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 성교육은 상당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청소년의 성문제는 그 후유증이 심각한 관계로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심리·임상치료 및 사회복귀 노력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은 성문제의 사전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상담의 경우, 학교 상담은 진로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성상담 관련 전문가가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상담은 민간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성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상담인력이 대부분 2~3명으로 아주 부족하며,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일부에서만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제공할 뿐 대부분 전화상담에만 치우치고 있다(이삼식, 1998). 보건소의 경우도 생리적인 측면에서만 상담과 진료가 행해지고 있으며,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의 상담과 진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각각의 지역사회 자원들이 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체계적이기보다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마저도 전문가와 관련 자료·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질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간 연계도 원활하지 않아 그 성과가 미약한 수준이다.

제 3 장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 내용분석

현재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교사를 위한 성교육 지침서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비디오, OHP, CD, 슬라이드 등도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성교육 지침서의 경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것으로 직접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아니며, 기타 자료들도 교사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 관련 책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의 성 관련 교과내용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분석틀은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침서인 '함께 풀어 가는 성 이야기'에서 제시된 성교육 내용 체계를 활용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성교육을 통해 남녀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써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성평등한 성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성교육의 내용 구성은 인간 발달의 순서가 개인 내적 측면 → 개인 간의 관계적 측면 →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성윤리의 3개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그 하위영역으로서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 '자기 결정과 선택', '사회적 환경', '성평등'의 여덟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그림 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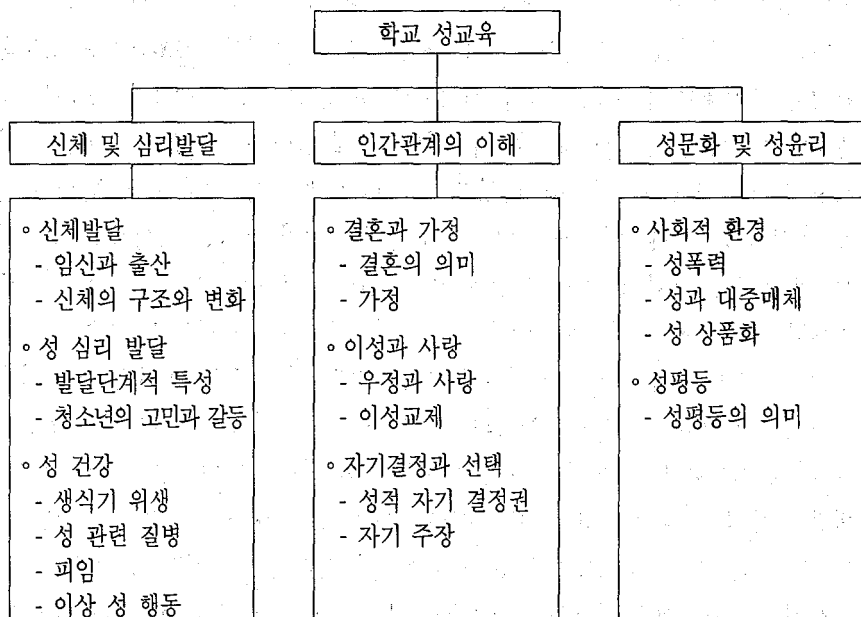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은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출생 이후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변화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심리적 특징의 이해와 심리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내용으로 포함한다.

인간관계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 관계, 이성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내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건전한 이성 관계 및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성문화 및 성윤리 영역에서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은 성 생물학을 넘어서서 성에 대한 감정적, 문화적, 윤리적 측면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책임있는 성행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성 관련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대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남녀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사회에서 남·녀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상호 존중 의식을 기르기 위한 양성 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림 3-1] 학교 성교육의 영역 및 주제



제 1 절 초등학교

1. 1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서 신체발달, 성 건강과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으로서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의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생활에서 나의 몸 관찰하기, 나의 몸과 친구의 몸 비교하기, 남녀의 겉모양 비교하기, 몸의 각 부분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등을 다루고 있고, 즐거운 생활에서는 우리 몸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아기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 갖기 등을 다루고 있다. 성 건강 영역으로서 생식기 위생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1학년에서 화장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몸 깨끗이 하기 등이, 바른생활에서 공중목욕탕에서의 예절, 목욕하는 이유와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에서 가족의 구성원, 가족관계도, 가정의 소중함, 즐거운 가정 만들기 등이 제시되고 있고, 우리들은 1학년과 바른생활에서 친구 사귀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자기 소개하기 등 우정과 사랑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표 3-1〉 초등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 교과 및 단위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남녀 신체구조와 변화 및 신체발달의 개인차	슬기로운생활 나의 몸(1)	◦ 나의 몸 관찰하기 ◦ 나의 몸과 친구의 몸 비교하기 ◦ 남녀의 겉모양 비교하기 ◦ 몸의 각 부분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2쪽/72 삽화, 관찰
	즐거운생활 씩씩한 어린이(1)	◦ 우리 몸의 명칭과 하는 일 알기 ◦ 아기 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기 ◦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 갖기	1쪽/96 삽화, 관찰
생식기 청결	우리들은 1학년 바르게 사용해요.	◦ 화장실의 위치와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기 ◦ 화장실 사용 현장 학습하기	2쪽/96 설명 현장실습

〈표 3-1〉 계속

주제	관련 교과 및 단원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부모와 나의 출생근원	슬기로운생활 화목한 우리 가족(2)	◦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본다 ◦ 가족관계도를 그리고 우리 집 자랑거리 발표하기 ◦ 가족이 하는 일 역할극을 통해 살펴보기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기	10쪽/78 삽화 꾸미기 역할극
부모의 책임과 역할	우리들은 1학년 알고 싶어요.	◦ 우리 가족이 하는 일 알기 ◦ 나의 자랑거리 이야기하기	3쪽/96 삽화발표
	즐거운생활 즐거운 우리집(1)	◦ 농촌, 어촌, 도시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 안다 ◦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려는 태도를 갖는다.	4쪽/96 삽화 역할극
교우관계	우리들은 1학년 정다운 친구	◦ 친구의 좋은 점을 알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알기 ◦ 친구에게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4쪽/96 삽화 표현놀이
	우리들은 1학년 알고 싶어요.	◦ 자기 소개하기 ◦ 친구이름 부르며 친구의 좋은 점 소개하기	1쪽/96 삽화 발표
	바른생활 사이좋은 친구(2)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 가지기 ◦ 친구 소개하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지켜야 할 일 알기 ◦ 친구의 좋은 점 자랑하기	14쪽/99 꾸미기 삽화 역할극
	국어(말하기·듣기) 어깨동무를 해요(2)	◦ 친구가 잘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 친구가 열심히 하는 점 찾아 칭찬하기	9쪽/99 삽화 소집단학습

2. 2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2학년 교과과정에서는 신체 및 심리발달,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다.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는 1학기는 즐거운 생활에서 생명의 창조와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2학기에는 슬기로운 생활에서 태아와 모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즐거운 생활에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 몸 변화에 대해 알기, 우리 몸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남녀 신체 변화의 차이점 알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기 등이며, 슬기로운 생활에서 열매와 씨앗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등이다. 슬기로운 생활에서 배우는 내용은 열매와 씨앗을 통한 성교육의 간접적인 학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바른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써 부모님의 은혜 알기, 형제간의 예절 등이 제시되고 교우관계에 대한 교육으로써 친구와의 대화예절, 바르고 고운말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

〈표 3-2〉 초등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위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명의 창조	즐거운생활 이만큼 자랐어요(1)	◦ 우리 몸 변화에 대해 알기 ◦ 우리 몸 일생에 대해 알아보기	1쪽/128 예화, 삽화 VCR자료
태아와 모체	즐거로운생활 주렁주렁 가을동산(2)	◦ 열매와 씨앗이 생기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 내가 할 수 있는 일 알고 실천하기	2쪽/80 예화, 삽화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즐거운생활 이만큼 자랐어요(1)	◦ 남녀 신체 변화의 차이점 알기 ◦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알아보기	1쪽/28 사진, 삽화
신체발달의 개인차	즐거로운생활 자라나는 우리들(1)	◦ 나의 성장과정 알기 ◦ 어릴 때와 지금의 나 비교해 보기 ◦ 키와 몸무게의 변화 조사 ◦ 나이에 따른 사람의 변화 알기	11쪽/78 관찰놀이 조사, 토의
가정에서의 성역할 및 부모 의 책임과 역할	바른생활 즐거운 우리 집(1)	◦ 부모님의 은혜알기 ◦ 우리 가족 소개하기 ◦ 형제간의 지켜야 할 예절 알기 ◦ 가족의 소중함 알기 ◦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일 알기	14쪽/104 삽화 예화 역할놀이
교우관계	바른생활 바른 말 고운 말(1)	◦ 친구와의 대화예절 알기 ◦ 바른말 고운 말 쓰기 ◦ 웃어른께 쓰는 말씨 알기 ◦ 바르고 고운 말 익히기	11쪽/104 삽화 글짓기 역할놀이

3. 3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3학년은 체육 교과를 통해 생식기 청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주된 내용은 불쾌감을 주는 상황을 발표하고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알아보기, 청결과 불결한 상황 비교하기, 나의 청결 정도 평가하고 청결생활 실천하기 등이다. 또한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효도, 우애 등 가정의 중요성을 배우고, 남녀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이성에 대해 깨우치게 된다.

〈표 3-3〉 초등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위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재시방법
생식기 청결	체육 신체의 성장과 발달	• 불쾌감을 주는 상황 발표하고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 알아보기 • 청결과 불결한 상황 비교하기 • 나의 청결정도 평가하고 청결생활 실천하기	1쪽/32 예화 다짐행동
가정에서 성역할 및 부모의 책임과 역할	국어 읽기 커가는 우리(2)	• 가족의 의미 • 효도하는 자녀를 둔 가정과 불효하는 가정의 예화를 통해 가정내 화합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음	6쪽/160 예화
	도덕 화목한 우리집(1)	•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가정을 위한 실천 • 대통령자리에 앉은 어머니 • 가족 상호간의 역할극 실시	18쪽/100 역할극 예화
	국어 말하기듣기 알아보고 알려주고(2)	•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여 설명하기 • 남여의 차이, 클럽, 모듬에서 살피고 기준 말하기	2쪽/94 설명 토의활동

4. 4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4학년은 과학과 체육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호르몬계의 작용과 신체발달의 개인차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과학 교과에서는 동물의 암수 구별, 짝짓기와 생명의 탄생, 동물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체육 교과에서는 우리 몸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히 유지하는 태도 갖기, 성장에 따른 남녀의 신체특징 알기,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갖기 등을 다루고 있다.

국어와 도덕 교과에서는 인간관계 이해 영역으로서 가정에서의 성역할 및 부모의 책임과 역할, 교우관계, 이성교제의 의미 및 예절을 배우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어 교과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와 같은 역할극을 통해 가정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건전하고 성숙한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도덕 교과에서는 역할극이나 토의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교우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표 3-4〉 초등학교 4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위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명의 창조	과학 동물의 암수(2)	• 동물의 암수구별 • 짝짓기와 생명의 탄생 • 동물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 이해하기	10쪽/96 삽화 관찰활동 놀이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체육 신체의 성장과 발달	• 우리 몸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 알기 •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히 유지하는 태도 갖기	2쪽/148 인체모형 관찰
호르몬계의 작용과 신체발달의 개인차	체육 신체의 성장과 발달	• 성장에 따른 남녀의 신체 특징 알기 •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갖기	1쪽/148 인체모형 관찰
가정에서의 성역할 및 부모의 책임과 역할	국어 말하기듣기쓰기 꿈을 찾아서(2)	• 글에 나오는 인물에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 • 가족 구성원의 대화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기	2쪽/130 역할극 토의활동
	국어 읽기 오가는 정(1)	•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족간의 과 사랑을 느낌	2쪽/162 편지글
	도덕 가깝고 반가운 친척	• 친척의 의미 • 친척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 반성 및 실천 이야기를 읽고나서 생각해보기, 반성하기 • 삽화에 OX하기, 역할놀이, 실천하기, 마음에 새겨두기	18쪽/100 삽화
교우관계	도덕 우리는 정다운 친구	• 친구가 소중한 까닭,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친구 가 고마울 때 • 이야기를 읽고나서 생각해보기, 반성하기, 삽화에 OX하기, 역할놀이, 토의 •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찾아 실천계획, 마음에 새겨두기	21쪽/100 삽화 역할놀이 토의
이성교제의 의미 및 예절	국어 읽기 슬기로운 눈으로(2)	• 이성친구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성 간에 서 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이성관계를 제시함 • 인물에 대한 성격 발표,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 말하기	7쪽/154 사진 예화

5. 5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5학년은 신체 및 심리발달 영역으로서 과학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꽃의 관찰, 공통점과 차이점, 꽃가루받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 열매와 씨앗의 구조의 다른 점을 이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실과 교과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내 역할 분담, 생활 계획 및 실천을 배운다.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한 자기결

정과 선택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서로 다른 의견의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은 아니라 제외하였다.

〈표 3-5〉 초등학교 5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위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명의 창조	과학, 꽃(1)	◦ 꽃 관찰, 공통점과 차이점, 꽃가루받이	7쪽/88 꽃 탐구활동
	과학, 열매(2)	◦ 식물의 종류에 따라 열매와 씨앗의 구조의 다른 점 이해	5쪽/85 열매조사 토의활동
가정 부모의 책임과 역할	실과 우리의 가정생활	◦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가족의 역할분담 및 나의 역할, 생활계획 및 실천	9쪽/136 NIE활동 조사활동

6. 6학년 교과내용

초등학교 6학년은 과학과 체육 교과에서 생명의 창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등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과 성문화·성윤리 영역의 내용을 배우게 된다. 체육교과에서는 임신과정과 출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녀 신체차이, 남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리현상,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등을 다루고 있으며, 과학교과에서는 우리 몸 내부의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표 3-6〉 초등학교 6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

주제	관련교과 및 단위 (학기)	학습내용	관련쪽수 제시방법
생명의 창조	체육 성장하는 우리 몸	◦ 임신과정과 출산	16쪽/166 삽화, 관찰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체육 성장하는 우리 몸	◦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남녀신체차이 ◦ 남, 녀 생식기관의 발달과 생리현상	16쪽/168 삽화관찰 조사활동
	과학 우리 몸의 생김새(1)	◦ 우리 몸 내부의 각 기관의 기능을 조사하고 건강 생활실천	1쪽/168 조사활동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체육 성장하는 우리 몸	◦ 성폭력의 의미와 대책	16쪽/88 모듬활동

7. 초등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학년별 교과 내용을 분석틀에 맞추어 정리하면 <표 3-7>과 같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8가지 분야의 내용에 관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성교육이 특정 내용이나 학년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성 건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을 보면 ‘신체 발달’과 ‘성 건강(생식기 청결)’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성 심리 발달’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성 심리는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감과 관련되는데 그러한 감정이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하여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는, 성장에 따른 신체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2차 성징이나 월경, 몽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6학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영양 및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몽정·유정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11세가 대부분이고 3, 4학년부터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바 교과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성숙도와 발달단계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내용이 학년별로 골고루 안배되지 못하고 한 학년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 발달에 대한 내용은 6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5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보다 오히려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에서는 가족과 우정, 이성 친구에 대한 내용이 저학년 부터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주장’과 같은 ‘결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은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라기보다 국어나 말하기·듣기·쓰기에서 교육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한 결혼 영역에서 결혼의 의미나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성 친구와의 교제에 있어서 건전한 교제나 지켜야할 예절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끝으로 ‘성문화·성윤리’는 ‘사회적 환경’, ‘양성 평등’으로 구성되는데 성교육

관련 내용 중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유해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 환경에 대한 내용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성 위주의 성 가치관이나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단시간 내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재편되어야 한다.

〈표 3-7〉 성교육 영역별 초등학교 교과 내용 분석

영역	하위영역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신체및심리발달	신체발달	신체의 구조·변화	○	○		○		○
		임신과 출산						
		생명의 창조·중요성	○	○		○	○	○
	성심리 발달	발달단계특성						
		사춘기 심리						
	성건강	생식기 보호·위생	○	○	○			
		몸정·월경						○
		성관련 질병						
		피임						
		이상 성행동						
인간관계발달	결혼과 가정	가족	○	○	○	○	○	
		결혼						
	이성과 사랑	우정	○	○		○		
		이성친구			○	○		
	자기 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주장						△
성문화 성윤리	사회적 환경	성폭력						○
		성과 대중매체						
		성 상품화						
	성평등	성평등						
		성 고정관념·차이						

주: △: 성과 관련된 내용은 멀어지나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성관련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음.

제 2 절 중학교

1. 중학교 1학년 교과내용

1학년의 경우 성교육의 전 영역을 체육과 기술가정, 도덕 교과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체육 교과를 살펴보면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은 7개 교과서 중에 4개의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남녀의 생식기 구조, 2차 성징, 성호르몬의 개념과 역할 등 ‘신체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체육 교과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춘기의 심리적 특징(6/7)이나 성적 관심과 충동(4/7) 등 ‘성심리 발달’의 내용과 ‘인간관계 발달’ 영역으로 이성 교제(7/7), ‘성문화·성윤리’ 영역의 성폭력(5/7)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표 3-8 참조). 교과서마다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병의 정의와 증상, 전염 경로, 예방법 등 성병과 관련된 내용이나 피임의 목적, 피임의 종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중매체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성의 상품화에 대한 내용도 7개 교과서 중 2개의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다.

〈표 3-8〉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체육)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	○	○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2차성징의 발현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사정의 의미 •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 남녀의 성적차이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		○	○	○	○	○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 자아정체성의 확립	○	○		○	○	○	○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과 자위행위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 감정발달 단계	○			○	○	○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 성병의 종류와 증상 • 성병의 예방			○	○	○		

〈표 3-8〉 계속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F	G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에이즈의 예방	◦ 에이즈의 정의, 증상, 예방법, 전염경로			○		○		
피임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	◦ 인공임신중절의 의미 ◦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기능범위 ◦ 피임을 하는 목적 ◦ 피임의 종류			○	○	○		
이성교제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	○	○	○	○	○
성폭력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시의 대처방법 ◦ 성폭력신고전화안내 ◦ 성폭력 지식 점검표 ◦ 성폭력 예방		○	○	○	○	○	
대중매체속의 성정보 바로알기	◦ 성 상품화의 정의, 폐해 ◦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대한 태도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		○		
사회에서의 성역할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과거와 현대의 성역할	○			○		○	○

주: A=보진재, B=예지각, C=금성, D=동화사, E=두산, F=교학연구사, G=교학사.

기술가정 교과에서는 ‘신체발달’ 영역의 생명의 탄생, 태아와 모체(6/7), 남녀 생식기 구조와 기능, 성호르몬의 작용, 남녀의 생리적 발달(7/7)에 대한 내용과 ‘인간관계발달’ 영역의 이성교제(7/7)가 주로 다루어진다. 또한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6/7)이나 ‘성 건강’과 관련된 피임 종류와 방법, 인공임신중절(5/7)이 교육된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와 자위행위(1/7)나 성폭력(1/7), 성 상품화(2/7), 싫다고 거부하는 방법 등 성적 자기결정권(2/7)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표 3-9〉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기술·가정)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	○	○	○	○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2차 성징의 발현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사정의 의미 -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 남녀의 성적차이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	○	○	○	○	○	○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 자아정체성의 확립	○	○	○	○		○	○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와 자위행위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 감정발달 단계	○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 성병의 종류와 증상 - 성병의 예방							
에이즈의 원인과 증상 에이즈의 예방	에이즈의 정의, 증상, 예방법, 전염경로	○						
피임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	- 인공임신중절의 의미 -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가능범위 - 피임을 하는 목적 - 피임의 종류			○	○	○	○	
결혼과 가정	- 부모의 책임과 역할 - 가족간의 예절	○			○			
이성교제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건강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	○	○	○	○	○
자기 결정과 선택	- 성적 자기 결정권과 책임 - 자기주장					○	○	
성폭력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시의 대처방법 - 성폭력신고전화안내 - 성폭력 지식 점검표 - 성폭력 예방	○						
대중매체의 성정보 바로알기	- 성 상품화의 정의, 폐해 - 개방된 성문화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에 대한 태도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제시	○			○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과거와 현대의 성역할	○			○			○

주: A=업투, B=금성, C=형설, D=대한, E=지학사, F=교학연구사, G=홍진P&M

도덕 교과에서는 ‘성 심리 발달’이나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중 성평등의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 심리와 관련해서는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성 확립, 성욕구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고,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과 이성친구에 대한 이해, 이성 간에 지켜야할 예절이 다루어진다.

〈표 3-10〉 중학교 1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 자아정체성의 확립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와 자위행위	◦ 성욕구와 충동의 조절 방법 ◦ 올바른 성의식 함양
결혼과 가정	◦ 가정의 중요성 ◦ 가정생활의 변화
이성교체의 의미	◦ 청소년기 이성교체의 의미 ◦ 이성간에 지켜야할 예절
성평등	◦ 변화하는 여성상 ◦ 남녀 불평등한 현실, 남녀 차별의 문제

2. 중학교 2학년 교과내용

2학년의 경우 과학과 사회 교과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과학 교과는 ‘신체발달’을, 사회 교과는 ‘성심리’와 ‘사회적 성역할’을 다룸으로써 차별적 특성을 보인다. 과학 교과의 내용은 단순한 생식기의 명칭과 구조 등과 같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신체의 화학적 작용으로서 호르몬의 분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호르몬의 역할, 과부족의 결과, 호르몬과 2차 성징과의 관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 교과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성장의 일부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성 확립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현대 사회와 민주 시민, 개인과 사회 발전의 내용으로 지위와 역할, 남녀 불평등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표 3-11〉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과학)

주제	학습내용	A	B	C	D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사정의 의미 ◦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	○	○	○

주: A=지학사, B=다담돌, C=교학사, D=동화사.

〈표 3-12〉 중학교 2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사회)

주제	학습내용	A	B	C	D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인간의 사회적 성장 - 사춘기에 느끼는 감정, 심리적 변화 - 자아정체성의 확립	○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성역할의 의미 - 성숙한 성역할을 위한 준비 - 사회적 불평등 현상(성차별에 반대 시위 삼화 등) - 지위와 역할	○	○	○	○

주: A=중앙교육진흥연구소, B=지학사, C=디딤돌, D=동화사.

3. 중학교 3학년 교과내용

중학교 3학년은 과학과 도덕 교과를 통해 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과학 교과와 도덕 교과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와 같이 과학은 ‘신체발달’ 영역을 주로 다루고 도덕은 ‘인간관계 발달’ 영역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성문화·성윤리’ 영역을 주로 다루므로써 교과영역이 구분된다. 또한 과학 교과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 2학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된 성 호르몬의 내용은 적어지고 체세포 분열, 염색체, 생식세포와 생식기관 등의 내용이 강화된다.

〈표 3-13〉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과학)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 임산전반기의 태아 크기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	○		○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성호르몬의 역할 - 인간의 염색체 - 세포 분열, 생식 세포 분열 - 인간의 성과 유전	○	○	○	○	○

주: A=지학사, B=디딤돌, C=교학사, D=동화사, E=지학사.

〈표 3-14〉 중학교 3학년 성교육 관련 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이성교제의 의미	- 이성관계의 변화 - 이성교제의 문제점 - 올바른 이성관계
성평등(사회적 성역할)	직업선택과 관련된 성역할의 고정관념

4. 중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내용을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 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3-15>와 같다. 중학교 성교육의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성교육은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체육과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행 교육 체제에서 성교육은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2차 성징이 중학교 입학 연령인 13~14세부터 나타난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성교육 시기가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화된 성교육이 2학년, 3학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 교과 내용은 1학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2학년과 3학년에는 관련 교과에서 보다 과학적인 지식(예를 들어, 호르몬, 세포 분열 등)의 내용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성교육 관련 교과 체계와 내용의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성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의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남녀의 생식기나 임신과 출산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과서는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교과서는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으며 또 어떤 교과서는 생식기관의 구조와 차이, 호르몬의 변화, 정자와 난자의 생성과정,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넷째, 성교육 내용의 균형면에서 보았을 때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생’ 등의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관계나 이성과의 접촉 상황에서 협상, 도움구하

기, 거부하기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성적 행동의 공유, 성적 반응, 성적 공상, 성기능 부전이나 성과 예술에 대한 내용도 교과과정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섯째, 순결이나 정결을 강조하던 과거의 내용에 비해 다양한 성태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성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도 간혹 삽입되어 있어 전체 교과과정 상의 내용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교과서에서 순결서약운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순결이 무조건적인 육체적 순결로 이해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성폭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성폭력과 순결과 관련하여 타인의 강압에 의한 순결의 상실 등은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일 뿐 정신적 순결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성에 대한 태도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교과과정에도 성관련 질병이나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의 성 건강과 관련된 내용과 10대의 임신이나 성의식의 변화 등 성문화·성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임신,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과 후유증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집중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후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 성교육 영역별 중학교 교과 내용 분석

영역	하위 영역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체육	기술 가정	도덕	과학	사회	과학	도덕
신체 및 심리 발달	신체발달	신체의 구조·변화	○(6/7)	○(7/7)		○(4/4)		○(5/5)	
		임신과 출산	○(4/7)					○(4/5)	66
		생명의 창조·중요성		○(6/7)					
	성심리 발달	사춘기 심리	○(6/7)	○(6/7)	○		○(1/4)		
		성적 관심과 충동	○(4/7)	○(1/7)	○				
	성건강	생식기 보호·위생							
		성관련 질병	○(3/7)	○(1/7)					
		피임	○(3/7)	○(4/7)					
		이상 성행동							
인간 관계 발달	결혼과 가정	가족		○(2/7)	○				
		결혼		○(2/7)					
	이성과 사랑	이성교제	○(7/7)	○(7/7)	○				○
	자기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주장		○(2/7)					
성문화	사회적 환경	성폭력	○(5/7)	○(1/7)					
성과 대중매체		○(2/7)	○(2/7)						
성윤리	성평등	성역할 및 성평등	○(4/7)	○(3/7)	○		○(4/4)		○

주: ()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과서 수/ 전체 교과서수)임.

제 3 절 고등학교

1. 교과별 교과내용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교과에서 ‘신체 및 심리 발달’, ‘인간관계 발달’, ‘성문화·성윤리’의 세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체육 교과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이 제공되고 나머지 교과목에서는 각 교과의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내용에 제한되는 특징을 보인다.

체육 교과의 내용을 보면 ‘신체 발달’ 영역에서 생식기의 구조와 변화(7/7),

임신과 출산(4/7)이 다루어지고 있고 ‘성 심리’ 영역에서 성적 관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자위행위에 대한 내용(6/7)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성병(5/7)과 피임(4/7) 등 ‘성 건강’ 영역의 내용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성병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병의 종류와 예방, 치료 방법부터 성문제 상담기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임에 대해서는 피임의 방법, 종류, 월경 주기법, 점액 관찰법 등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밖에 이성교제와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성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으로서 성과 대중매체, 성의 상품화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표 3-16〉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체육)

주제	학습내용	A	B	C	D	E	F	G
생명의 창조 및 탄생 태아와 모체	◦ 수정과 임신의 성립과정 ◦ 임신전반기의 태아 크기 ◦ 태아의 개월별 성장과정	○		○	○	○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남녀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 2차성징의 발현 ◦ 성호르몬의 역할 ◦ 월경·사정의 의미 ◦ 사춘기의 신체적·생리적 변화 ◦ 남녀의 성적차이 ◦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	○	○	○	○	○	○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와 자위행위	◦ 성욕구의 조절방법과 태도 기르기 ◦ 올바른 성의식 함양 ◦ 이성에 대한 감정발달 단계	○	○	○	○		○	○
성병의 종류와 증상 성병의 예방	◦ 성병의 종류와 증상 ◦ 성병의 예방	○	○	○		○	○	
피임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	◦ 인공임신중절의 의미 ◦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기능범위 ◦ 피임을 하는 목적 ◦ 피임의 종류와 방법	○	○	○		○		
결혼과 가정	◦ 결혼과 건강 ◦ 결혼의 책임과 의무 ◦ 결혼과 배우자 선택 ◦ 결혼 전의 건강진단	○				○	○	
이성교제의 의미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 이성간에 지켜야 할 예절	○	○	○	○	○	○	○
성폭력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	○	○	○	○	○	○
대중매체속의 성정보 바로알기	◦ 성상품화 등 여러 가지 성문제			○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올바른 성의식 및 성윤리 ◦ 성 역할의 이해 ◦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	○	○	○	○	○	○

주: A=대한교과서, B=교학사, C=두산, D=형설, E=금성, F=보진재, G=천재교육.

도덕 교과에서는 ‘성 심리 발달’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 문화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고, 사회문화 교과에서는 가족과 친족의 관계, 가족의 변화, 결혼의 의미, 성과 가족, 가정 생활 등의 내용과 성역할의 이해, 남녀 평등현장, 양성 평등과 관련된 양적·질적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다. 가정과학 교과에서도 사회문화 교과와 마찬가지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한 내용, 이를 태면 부모의 역할과 책임, 바람직한 자녀양육 태도, 가족 생활과 관련된 직업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차별화 된다. 또한 인간발달로서 청소년의 발달 특징, 인간 발달 과정, 인간관계의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7〉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도덕)

주제	학습내용
사춘기 심리의 특성	◦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의 확립 ◦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의 비인간화 문제 ◦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형성

〈표 3-18〉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사회문화)

주제	학습내용	A	B	C
결혼과 가정	◦ 결혼의 의미 ◦ 가족생활과 친족관계 ◦ 사회변동과 가족문제	○	○	○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성 역할의 이해 ◦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 남녀 불평등 및 갈등 ◦ 남녀의 직업	○	○	○

주: A=지학사, B=교학사, C=대한교과서.

〈표 3-19〉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가정과학)

주제	학습내용	A	B	C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인간발달의 과정 ◦ 인간발달의 단계별 특징	○	○	○
결혼과 가정	◦ 결혼과 가족의 역할 ◦ 가족생활의 문제와 해결 ◦ 부모의 역할과 책임 ◦ 바람직한 자녀양육 태도 ◦ 자녀 양육과 지도	○	○	○

주: A=교학사, B=교문사, C=상문연구사.

인간과 사회 환경, 시민 윤리에서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남녀 평등 사회의 구현, 성역할을 다루고 있다. 세부 교육내용은 성윤리, 사랑과 성,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 동양유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 쾌락의 정의, 성적 결합, 문명사회의 결혼제도 등이다. 한편 인간발달에서는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으로 신체발달, 사회성 발달, 심리 발달 등 발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체육교과와는 차별화되며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 자녀 양육이나 부모의 역할 등과 이성교제, 성차와 성역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3-20〉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인간과 사회 환경)

주제	학습내용	A	B	C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여성 지위의 시대적 변천	○	○	○

주: A=대한교과서, B=법문사, C=교육사.

〈표 3-21〉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내용(인간발달, 시민윤리)

교과	주제	학습내용
인 간 발 달	생명의 탄생 태아와 모체 임신과 출산	◦ 생명 탄생의 신비와 생명 존엄성 ◦ 임신의 성립과정과 태아의 발달, 출산과정 ◦ 임신 중 섭생의 중요성과 산후 관리의 중요성 ◦ 건강한 아이 출산에 필요한 준비
	남녀의 신체구조와 변화	◦ 인간발달(신체발달) ◦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 개념 및 특징
	성적 관심과 충동 성욕구와 자위행위	◦ 자위 행위, 10대의 임신
	결혼과 가정	◦ 부모의 역할과 양육 ◦ 가족의 의미 ◦ 유아에게 가족의 의미 ◦ 가족 생활 ◦ 가족의 해체, 재형성
	이성교제	◦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 ◦ 건전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태도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성 역할의 이해 ◦ 성 역할의 변화 및 차이
	결혼과 가정	◦ 결혼 제도 ◦ 사랑과 성 ◦ 성적 결합
시 민 윤 리	성평등 (사회적 성역할)	◦ 여성 권익의 신장과 남녀 평등 실현 ◦ 성역할 ◦ 성과 윤리

2. 고등학교 교과내용 종합분석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특징은 생식기, 이성교제, 성평등 등의 내용은 기본으로 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성적 욕구와 충동에 대한 조절 능력, 성폭력, 성관련 질병, 피임 등 실제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보강·심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여전히 성교육의 특정 내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각 성교육 영역 별로 정리한 <표 3-22>를 보면 ‘신체 발달’, ‘성 심리 발달’, ‘이성교제’, ‘성평등’ 등 중학교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은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성 상품화’,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생식기의 보호·위생’ 등과 같이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다. 물론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것이 내용의 중요성이나 학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정부분 인정은 되지만, 세 가지 영역이 성교육으로 통괄되는 하나의 체제라고 보았을 때 내용의 지나친 편중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과 선택’, ‘성과 대중매체’ 등의 내용이나 부자료를 통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밖에 성과 법률, 성의 다양성, 성기능 부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이 교과서별로 많은 수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피임의 경우 어떤 교과서는 개념과 종류만 단순히 언급된 수준인데 비해 어떤 교과서는 여성의 생리현상과 연결하여 생리 주기에 의한 피임법을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점액관찰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교육을 남녀의 신체발달과 그로 인한 현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과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정의하여 도덕, 사회문화, 가정과학,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발달 등의 교과내용을 포함시켰지만 각 교과에서는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전체적인 성교육이 다루어지는 것은 체육 교과이다. 따라서 개별 교과에서 성교육의 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이러한 선택 교과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하겠다.

〈표 3-22〉 성교육 영역별 고등학교 교과 내용 분석

영역	하위 영역	주 제	체육	도덕	사회 문화	가정 과학	시민 윤리	인간과 사회환경	인간 발달
신체 및 심리 발달	신체 발달	신체의 구조·변화	○(7/7)			○(3/3)			○
		임신과 출산	○(4/7)						○
		생명의 창조·중요성	○(2/7)						○
	성심리 발달	사춘기 심리		○					○
		성적 관심과 충동	○(6/7)						○
		생식기 보호·위생							
	성건강	동정·월경							
		성관련 질병	○(5/7)						
		피임	○(4/7)						
		이상 성행동							
인간 관계 발달	결혼과 가정	가족			○(3/3)	○(3/3)			○
		결혼	○(3/7)		○(3/3)	○(3/3)	○		○
	이성과 사랑	이성교재	○(7/7)						○
	자기 결정과 선택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 주장							
성 문화 성 윤리	사회적 환경	성폭력	○(7/7)						
		성과 대중매체	○(1/7)						
	성평등	성역할 및 성평등	○(7/7)		○(3/3)		○	○(3/3)	○

주: ()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교과서 수/ 전체 교과서수)임.

제 4 장 외국의 성교육 운영사례 분석

제 1 절 미국

미국의 성교육은 건강교육 안에 들어 있는 가정생활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의 교육행정은 각 주마다 자치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 학교 성교육은 1941년 교육행정가협회에서 성교육을 정식 교과과정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고, 1948년에 교육자회의에서 사범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성교육을 채택할 것을 합의하였다. 1960년 백악관의 청소년회의에서 각 학교에서 가족생활에 관한 시간을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1966년 NAIS(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는 산하 각급 학교에 성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성교육과 윤리'라는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69년에는 연방정부가 교육부에 가정생활·성교육 계획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방학교에 재정원조를 해 주도록 하였다.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교육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과 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각주와 학교는 미국 교육부의 교육기준 참고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데, 교육부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는 미국에 있어서 성교육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이하 SIECUS)가 성교육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에 의해 조

직되어 있다. 이것은 유치원 원아로부터 12년생(고교 3년생에 해당)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기존의 프로그램의 평가를 지원하고, 1991년에 제1판이 출판되었고, 1996년에 제2판이 출판되었다.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이하 가이드라인)는 생애에 걸쳐서 정보의 습득과 아이덴티티, 인간관계, 친밀(intimacy)에 관해서의 태도, 신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괄적 성(sexuality) 교육의 생각에 근거해서 작성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성적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고 있다.

- ① 인간의 성(Sexuality)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스스로 성적 태도를 묻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인간관계 기술의 형성을 지원한다.
- ④ 성적 인간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지원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교육내용으로서, 성적으로 건강한 어른이 실천해야하는 행동에 관련하여 6가지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또, 각각의 기본 개념에는 5~7개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고, 학습자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교육단계에 응해 들어지고 있다(표 4-1 참조). 각각의 토픽이나 과제는 예를 들면, '에이즈 교육'과 같은 독립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내용을 포괄적으로 망라하는 성교육 중에서 취사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건강교육에서 가이드라인을 종합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은 성교육에는 인지적 측면(cognitive domain: 정보), 정서적 측면(affective domain: 감정이나 가치, 태도), 행동적 측면(behavioral domain: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 외 관련하는 개인적 기술)의 3가지의 측면에 관한 성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정신적 차원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1〉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의 포괄적 성(sexuality)교육 프로그램의 기본개념

기본개념 1 : 인간발달	기본개념 4 : 성행동
• 생식적 해부생리 • 생식 • 사춘기 • 바디·이미지 • 성적(性的)정체성과 지향	• 일생에 걸친 성 • 마스터베이션 • 성 행동의 공유 • 절제 • 인간의 성적반응 • 환상 • 성적(性的)기능 장애
기본개념 2 : 인간관계	기본개념 5 : 성적건강
• 가족 • 친구관계 • 애정 • 데이트 • 결혼과 인생의 관계 • 자녀양육	• 피임 • 임신 중절 • HIV 감염을 포함한 성 감염증 • 성적 학대 • 재생산 건강
기본개념 3 : 개인적 기술	기본개념 6 : 사회와 문화
• 가치관 • 의사결정 • 커뮤니케이션 • 자기주장 • 교섭 • 지원을 발견	• 젠더의 역할 • 성과 법률 • 성과 종교 • 다양성 • 성과 예술 • 성과 미디어

제 2절 독일

독일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1968년 각 주의 교육책임자 회의에서 학교 성교육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었고, 학교에서 큰 변화를 보여 국어, 미술, 음악, 체육 등의 교과에 나오는 성적 표현도 적극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1969년 공립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을 시도했으며, 그 후 각 주에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성교육은 철저하게 생물학과 의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

확한 과학적 지식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성행동 자체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성의 기본지식을 철저히 가르쳐 놓으면 성행동에 대해서는 사춘기에 가르쳐도 충분하다는 독일식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주도권만 가진다. 다만, 국가기구로서 성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로 학교 성교육의 일반적인 학습목표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그 책임까지도 위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성교육 지도 원리를 살펴보면 독일의 성교육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연방정부의 규정: 성교육은 특수한 교과를 정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생물, 문학, 사회, 종교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과학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수업은 교실에서의 토론을 위한 광범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들은 성교육에 대한 주 규정을 알아야만 하고 수업은 교사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성교육에 대한 교사훈련은 대학 교육과정의 첫 단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성교육 지도원리 : 개별적인 성교육은 먼저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이다. 주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합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러 가치 기준들을 고려해야 하며, 부모의 권리와 그들의 종교, 신앙적 신념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는 젊은이들을 교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삼가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지침은 학교방침에 따라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의 내용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기 전에 이를 부모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 3절 영국

영국의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이하 SRE)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각 학교에 보호자, 교직원, 지방교육

당국 등의 대표, 교장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이사회는 보호자 등과 상담하고 학교의 SRE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SRE의 목적은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Guidance」(이하 SRE지도서)에 나타나 있고, 청소년의 신체면, 감정면, 도덕면에 있어서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SRE는 학교·사회에 있어서 아동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함과 동시에 오늘날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가족생활, 사랑과 융합의 안정된 관계, 존경, 애정, 배려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SRE는 ‘신체적, 논리적, 감정적인 발달에 관한 생애학습’으로 파악된다. SRE에서는 ① 태도 및 가치관, ② 인격적·사회적 기술, ③ 지식과 이해 등의 3가지를 주요한 학습요소로 생각한다(표 4-2 참조).

SRE의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이과(理科)’의 국가교육과정에 있어서 의무로 되어있다. SRE의 지도서는 ‘이과(理科)’의 국가교육과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SRE에서 취급해야만 하는 내용으로서 사춘기, 월경, 피임, 중절, 안전한 성행동과 성감염증을 들고 있다. 또, 정부는 SRE가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The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이하 PSHE)의 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오히려 PSHE로부터 ‘독립해서는 효과적인 성교육은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PSHE 자체도 성교육에 관련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SHE의 목적은 첫째, 유아 및 아동학생이 자신과 책임성을 발달시켜 능력을 최대화 하게 하고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며 셋째, 좋은 인간관계를 발달시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이해를 몸에 익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³⁾ PHSE는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 학교 전체의 대처방안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다. PHSE의 틀 가운데 실시되는 SRE에서는 유아 및 아동학생은 조기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습하

3) 초등교육단계에서는 시민으로써 활발하게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포함됨.

기 시작하여 발달단계에 맞추어 성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학습해 가는 것으로 한다(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00).

영국에서는 이것을 「Healthy school programme」이라고 부른다. 학업을 포함하여, 아동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건강과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과 학습 환경의 제공에 적극적인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학교, 가정, 지역의 교육관계, 지방자치체를 포함하는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학습 환경의 정비를 포함해서 지역에 뿌리가 내린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RE의 프로그램은 「Healthy school」이라고 하는 개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1999).

〈표 4-2〉 성과 관계 교육(SRE)의 3가지 요소 및 그 내용

구분	내 용
태도 및 가치관	· 가치관과 개인적 양심의 중요성과 도덕적인 배려의 학습 ·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생활, 결혼, 사랑과 융합의 안정된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한 학습 · 존중, 애정, 배려의 가치에 대한 학습 · 도덕적 딜레마의 조사, 숙고, 이해 · 의지결정의 일부로서의 비판적 사고의 발달
인격적·사회적 기술	· 감정과 인간관계에 자신을 가지고 진중하게 대처하기위한 학습 · 자기존중과 타자에 대한 공감의 발달 · 다양성의 이해를 근거로, 편견이 없는 선택을 하기위한 학습 ·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발달 · 모순의 대처 · 착취와 학대의 인식과 회피의 방법에 대한 학습
지식과 이해	· 발달 단계에 적절한 신체적 발달의 학습과 이해 · 인간의 섹슈얼리티, 생식, 성적 건강, 감정과 인간관계의 이해 · 피임, 지역과 나라에 의한 성적 건강에 관한 어드바이스, 피임, 지원 서비스에 관한 학습 · 성적 생활을 지연시키는 이유, 지연시키는 것에 의한 이익에 대한 학습 ·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회피

제 4 절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성교육이 가장 오래 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44년에 성교육이 공립학교에서 실시되었고, 1956년 7~15세에 대한 성교육을 의무화 하면서 남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교사도 남녀 구별 없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때 왕립교육위원회(Royal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하였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생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동시에 인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주는 데 있다. 탁아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교육은 4~5세 어린이들에게는 그림과 만화책 등을 통하여 남녀의 신체 구조적 차이를 인식시킨다.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성교육은 1977년부터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1977년 스웨덴 교육부는, 해부학적, 생리적, 심리적, 논리적, 사회적 인간관계의 측면부터 언급한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의 교수용 매뉴얼 「Instruction Concerning Interpersonal Relation」을 작성했다. 현재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은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장이 전체적인 실시의 책임을 지고 학제적인 교육분야의 하나로써, 스웨덴의 커리큘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주로 '생물'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체육·보건' 교과에서도 학습기회가 있다. '체육·보건'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관해 학습하고 있고, 건강한 라이프스킬의 형성을 향한 개인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학습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스웨덴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에 관해서는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의 교육과는 별도로 국가 커리큘럼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성평등'에 근거한 지도의 올바른 모습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아, 커리큘럼 전체의 수업에 있어서, '성평등'에 근거한 지도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남녀평등에 관한 학습은 성교육 형태는 아니지만 실시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예비교육, 11~13세, 14~16세, 17~20세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남녀 양성의 차이, 수정과 임신, 출산, 태아의 성장과정을 배우게 된다. 11~13세에는

남녀의 차이, 성기의 구조와 기능, 2차 성장, 자위 행위, 수정의 과정, 임신과 태아의 발달, 출산, 성의 결정, 임신 중의 태교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14~16세에는 성기의 구조와 기능, 임신과 태아의 발달, 출산에 대해서 중복 학습을 하게 되며, 청소년기의 성문제, 혼인 외의 자녀, 유산, 성병, 피임 등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다. 17~20세에는 성도덕과 성의 사회성, 가정의 소중함,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복지정책, 가정에서의 성교육 등을 배우게 된다. 스웨덴의 성교육은 저학년부터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감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성교육에 대한 교재는 영화까지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상세히 다루어진다. 학교 성교육의 특징은 초등학교 초기에 인간의 성과 생리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중학교 초기에 실제적인 피임기술을 가르친다. 아울러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줌으로써 성을 유희나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건전하고도 성스러운 행위로 인지시켜 도덕적 타락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성에 대한 고민을 심리사나 보건교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상담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부모에게 비밀로 해 준다. 학교 측은 성관계로 사고가 발생하면 중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걱정거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의 혼전성교 비율은 높지만 십대 임신, 낙태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단히 낮다.

제 5 절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1970년 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971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1975년 공립학교령은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초등학교 성교육은 7~9학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성교육 교

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담임교사가 자신의 학급 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과 책임의식,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의 의미, 성에 대한 책임감, 피임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성교육 시간은 생물수업의 한 부분으로 총 3~4주 동안 1주에 3시간 정도가 배정된다.

덴마크의 성교육은 학교 교사가 맡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하지만 교사 외에도 학교 의사와 청소년클리닉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학교 의사는 1명이 10~20개의 학교 학생의 성교육과 건강검진을 담당하게 된다. 덴마크 가족계획협회가 운영 중인 피임클리닉도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임클리닉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사는 환자와 약속이 되면 병원에서 만나게 된다. 초등학생들은 성교육 과정에서 한번쯤 이 클리닉을 방문하여 피임이나 임신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서 보다 더 자세히 얻게 된다. 피임클리닉에서는 피임법을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불임시술 등을 할 수도 있다.

제 6 절 일본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습지도 요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은 미국, 영국, 스웨덴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과 기본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

일본에서 학교 성교육을 실시할 때의 유의점으로 성교육 내용의 선택이나 그 취급에 있어서는 '교원, 보호자, 지역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文部省, 1999). 이는 학교 성교육을 위해 학교, 가정, 커뮤니티 등이 합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의논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한 영국의 방법을 수용한 것이다.

일본의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격완성과 풍부한 인간형성'이다. 그 내용은 '인간의 성을 인격의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생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과 함께 학생 스스로 생명존중, 인간존중, 남녀평등의 정신을 기본으로 올바른 이성관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의 능력을 몸에 익혀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성교육은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① 자기의 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② 남녀의 인간관계 육성에 필요한 내용, ③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성에 관한 내용 등 3가지의 영역에 관해서 고려되고 있다.

교육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中央教育審議會, 1996).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침을 두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비슷하다.

일본의 학교에 있어서는 양호교사나 학급담임 등이 성에 관한 개별지도를 행하도록 되어있고, 학생은 개별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전문가 등이 연대하여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학생 스스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나 지도방침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일본에서도 학생의 성 피해가 심각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인식되는 듯하다. 일본에 있어서는 학교와 지역이 연대해서 학생이나 지역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미성년자의 임신, 임신중절, HIV와 그 외의 성감염증이 과제로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과제에 대한 지도는 「學校における性教育の考え方」에서는 거의 언급 되어있지 않다. HIV/AIDS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도서가 작성되어 있지만(日本學校保健會, 2001), 포괄적인 성교육 중에서의 취급이나 다른 성감염증과 관련지어 다루고 있을 뿐이다.

성감염증에 관한 일본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사에게 제공한 지도 자료를 보면, 성교육 중에서 성감염증에 대한 지도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文部省, 2002).

학교에서 행하는 성교육에는 학교나 교사, 보호자 이외 폭넓은 사회의 사람

들의 의견이나 사고방식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피임이나 중절, 안전한 성교와 HIV/AIDS와 성감염증에 관한 현실적인 성교육을 어떻게 학교교육에 도입하는가에 대해 진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의 성교육에 있어서는 남녀의 상호이해나 인간관계, 성역할, 성차별 등,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學校における性教育の考え方」에 있어서도, “성교육의 오늘날의 의의와 필요성” 중에서, “Telephone Club”등을 통해서 성적(性的)인 관계를 갖는 행위가 약물남용과 결부되거나 약물의 판매요인이 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다이어트 갈망’을 가진 여자가 약물을 이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성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약물남용과 성에 관한 문제가 강하게 관련 된다’는 인식을 근거로 성교육과 약물남용방지 교육을 관련지어 ‘포괄적인 입장에서 계획,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생도, 보호자와 학교관계자 사이의 신뢰성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일본의 성교육에 라이프스킬교육이 도입되어, 검토 등의 여러 가지 학습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교육활동 중에 알게 된 개인적 비밀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학생, 보호자 및 지역의 관계자 사이에 정해 놓은 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 7 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앞에서 논의된 외국의 성교육 운영의 현황과 특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고, 국내 성교육에 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는 미국, 스웨덴에서는 ‘sexuality education’, 영국에서는 ‘sex educ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학교 성교육은 공히 지식이나 이해, 가치관과 태도, 라이프스킬 형성의 3가지를 주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미국, 영국과 같이 주요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2000). 그러나 스

웨덴의 커리큘럼에는 ‘지식’은 사실, 이해, 기술, 축적한 경험과 같은 ‘다양한 형식에서 표현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Sweden and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1). 그 때문에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의 교육에 관해서도, 그와 같은 ‘지식’의 개념 아래 계획, 실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공통점은 개인의 자부심 향상이나 자신감, 책임감 등의 발달과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아동이 성, 성적 건강, 가족생활, 살아가는 방법 등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획득, 이해, 가치관, 태도, 라이프스킬 등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000; 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2000).

〈표 4-3〉 각 국의 성교육 운영 현황 및 특징

국가	성교육명	관장 기관/ 행위자	기준·지침	특징
미국	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SIECUS)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 -12th Grade)	-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정신적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 지역과 학교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성교육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독일	-	연방정부 헌법재판소	정부규정 성교육 지도원리	-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의 전수 - 성행동 언급은 피함(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육)
영국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학교이사회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Guidance	- 신체적, 논리적, 감정적인 발달에 관한 생애 학습 교육으로 간주 - 학교이사회에서 보호자 등의 상담, 동의 하에 해당 학교의 SRE 방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함 - 학교와 지역의 전문가 등의 연대 지원
스웨덴	Sexuality and Personal Relationship	학교장의 자을 개량	Instruction Concerning Interpersonal Relation	- 4~5부터 성교육이 실시됨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학습 - 성평등 교육은 별도 과정으로 실시함
덴마크	-	학급담임	-	- 초등학교부터 의무화 되어 있음 - 학교 의사와 청소년클리닉의 연계가 잘 이루어짐
일본	性教育	양호교사/ 학급담임	文部省의 학습지도 요령	-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룸 - 교사, 보호자,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이나 사고방식을 반영함.

이들 국가의 학교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성교육을 보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호자나 지역사회 등과 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특히, 보호자와의 연대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고 있다(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文部省, 1999).

외국의 성교육 사례는 전반적으로 네가지 측면에서 유용성을 제공한다. 외국의 성교육은 성에 관련된 단편적인 지식의 전수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정서 발달에 맞는 생애 교육을 전제로 개인의 가치, 인권 존중 등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라이프스킬의 향상을 도모하며, 청소년의 사회문제, 건강문제를 위시하여 위험 행동의 예방과 대처, 건강 증진 교육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1.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

미국과 영국에서는 초등교육단계의 초기부터 인간관계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 방법 등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교육단계의 진행에 따라 인간관계를 기초로 해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 피임, 성감염증 등의 성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000).

또, 스웨덴의 학교 성교육은 상호간에 개인의 가치, 인권존중, 인간관계의 교육으로써 실시되고 있다(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2000). 인간관계는 일본의 학교 성교육에서도 중시되고 있고(文部省, 1999), 유럽과 미국의 성교육에서도 공통의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학교 성교육에서 양호한 인간관계의 구축은 성교육의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라이프스킬 교육의 도입과 내용구성

라이프스킬 형성은 유럽과 미국, 일본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의 공통 과제이다. 라이프스킬 교육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계통성이나 학습환

경의 준비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WHO 편, 1997). 특히, 성교육에 있어서는 아동의 발육단계, 마음의 준비를 고려한 교육의 구성, 계획, 실시가 중요하다(文部省, 1999).

미국과 영국의 성교육은 초·중등교육기간에 일관해서 지식이나 이해, 가치관과 태도, 라이프스킬 형성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아동 및 학생의 발달단계, 교육단계에 맞추어 구성된다. 성교육이 실시되는 기간 전체를 통찰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인간관계의 발달, 성에 관한 지식이나 이해의 형성과 라이프스킬 교육을 종합해서 구성된 것이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또, 학생의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의 학습 환경 만들기 위해 학교, 가정, 지역 커뮤니티 등의 연대는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WHO 편, 1997). 학교, 가정, 커뮤니티 등의 연대는 일본,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성교육에 있어서 중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 성교육은 보호자에 의한 성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보호자, 지역 및 관련 조직 등에 각각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文部省, 1999;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1996;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2000; 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2000).

3. 성에 관한 위험행동에의 대응

일본을 포함해 미국, 영국, 스웨덴에서 성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배경에는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건강문제가 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청소년의 건강을 둘러싼 위험행동 6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영역은 ① 흡연, ② 불건강한 식습관, ③ 불충분한 신체활동, ④ 음주와 그 외의 약물사용, ⑤ HIV감염이나 그 외의 성감염증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초래하는 성행동, ⑥ 폭력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동 등이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2). 즉,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사회문제, 건강문제 등이 모든 영역에 관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임신중 산모의 흡연은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청소년의 음주나 약물남용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감염증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정맥주사에 의한 약물남용과 HIV를 대표로하는 성감염증과의 관련은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2002;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2; Sherry A. Everett, Ann M. Malarcher, 2000).

또, 성교육 주제의 하나인 신체와 건강에 관한 과제는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영역의 과제가 되고 있고, 성적학대나 성적착취는 폭력과 불의의 상해를 초래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성에 관한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과 그 외의 건강영역에 관한 교육을 관련지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교의 학교 성교육은 단순히 아동의 위험행동 예방만이 아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고 어른으로서의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는 라이프스킬 교육도 자부심의 향상을 포함해 보다 좋은 인간관계의 구축이나 책임 있는 행동의 실천과 결하되는 개인적 기술, 사회적 기술 등이 고려된다.

CDC는 건강교육과 위험행동의 감소를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이드라인은 HIV/STD감염 예방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인과 커뮤니티 전체의 건강을 위해 건강교육과 건강증진 전략에 근거해서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HIV/STD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성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약물남용 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인간의 섹슈얼리티나 사람의 문화적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형성 기본적인 건강교육의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제공된다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5).

미국, 영국, 스웨덴의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아동의 발달과 건강촉진에서부터 성교육이 고려되고 있다. 즉, 미국과 유럽에서 성교육은 인간관계나 생활방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동의 보다 나은 인간관계 구축과 생활방식 추구가 위험행동의 예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라이프스킬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교육은 성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나 위험 행동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의 구축, 보다 나은 생활방식의 추구를 목표로 해서 계획·실시된다.

4. 건강교육, 건강증진과 성교육

미국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포괄적인 건강교육,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실시된다. 또, 영국의 학교에 있어서 성교육은 학생의 인격, 사회성의 발달과 건강의 축진을 지원하는 개인적·사회적 건강교육(PSHE)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교과서는 성교육이 다른 건강교육과 분리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들로부터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 성교육은 관련 있는 교과 교육을 포함하여 다른 건강영역의 교육과 관련지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정부는 10대 임신이 사회적 배척 등의 사회문제와 관련됨을 지적하고 있고(Command of Her Majesty, 1999), 교사에게 이들의 관련성을 이해한 다음에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건강영역이나, 사회문제와 서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 건강영역, 사회문제와 연관 지어 실시되었을 때 그 효과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성교육 내용을 포괄적인 건강교육 차원에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스웨덴에 있어서 성교육의 교육내용은 생물, 체육, 보건 뿐 아니고 역사, 지리, 사회과학과 관련된다. 건강의 유지 증진에 관한 사회적 조건까지 포괄하는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의 시점은 건강영역이나 사회교육과 연대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의 구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CDC가 예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라이프스킬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라이프스킬 교육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石川哲也 외, 2002; 近森けいこ, 2002). 기본적인 라이프스킬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건강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WHO 편, 1997). 따라서 성교육을 포함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관한 영역의 교육은 기본적인 라이프스킬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

에 관한 교육으로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PSHE는 라이프스킬 교육이 건강증진이나 여러 가지 건강문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도 라이프스킬 교육에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 PSHE의 틀 안에서 실시되는 SRE는 포괄적인 건강교육 내에서 구성된 구체적인 성교육 사례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건강영역이나 교과와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성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은 건강증진의 관점에 부합한다. 또,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성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도 ① 성의 자인(自認), ② 인간관계의 형성, ③ 사회성이나 과제에 대처하는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라이프스킬의 형성과 생활방식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학교 성교육도 많은 점에서 유럽 및 미국과 공통되는 점이 있다(文部省, 1999). 그러나 폭넓은 건강교육 중에 성교육의 자리매김이나 학습 환경정비를 포함한 건강증진의 관점은 미흡하다. 또한, 학교 성교육을 가정의 성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유럽 및 미국과 달리 일본은 가정에서 학교의 성교육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5 장 학교 성교육 실태조사 분석

본 장에서는 학교 성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표본에 의한 학생조사
와 부가방식에 의한 교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생 조사는 학교
성교육 관련 학습 내용, 학교의 성정보 습득방법, 성관련 내용 인지정도, 출산
관련 학습 내용, 성 가치관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이루어졌고, 교사 조사는 성
교육 관련 수업 실시 및 교육과정 이수, 학교 성교육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
한 인식에 대해 실시되었다. 따라서 결과는 상기 항목에 대한 백분율 및 평균
치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학생조사 결과는 전국을 대표
하는 통계치로 사용될 수 있으나, 부가조사로 이루어진 교사조사결과는 전국
통계치가 아님을 밝혀 둔다.

제 1 절 학교 학생(초·중·고)

1. 응답 학생 일반 특성

응답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지역, 성별, 학교급, 학년 구분별 특성을 살
펴보았다.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43.9%, 대도시(광역시 이상) 44.0%, 농촌(군
지역) 12.1%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52.1%로 여학생(47.8%)에 비해 다
소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6.9%이며, 중학생이 42.2%, 고등학생이
40.8%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일부 학생의 경우 1~2세 편차가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학년구분은 학생의 연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사
완료 학생의 학년은 모집단의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중학교 2~3학년과 고등
학교 2학년은 14%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13%대, 고등학교 3학
년은 12%대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초등학교 학생은 10% 미만(5학년 9.1%, 6

학년 7.8%)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생아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표 5-1〉 응답학생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1,248)	(1,901)	(4,754)	(4,594)
지역				
대도시(광역시 이상)	43.9	42.0	45.6	43.0
중소도시	44.0	42.7	44.8	43.7
농촌(군지역)	12.1	15.4	9.6	13.3
성별				
남자	52.1	52.0	52.9	51.4
여자	47.8	48.0	47.1	48.6
학년				
초등 5학년	9.1	53.6	-	-
초등 6학년	7.8	46.4	-	-
중등 1학년	13.8	-	32.8	-
중등 2학년	14.3	-	33.8	-
중등 3학년	14.1	-	33.4	-
고등 1학년	13.9	-	-	34.0
고등 2학년	14.2	-	-	34.8
고등 3학년	12.7	-	-	31.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가. 학교 성교육 관련 수업실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3%로 대부분의 학생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성교육 실태는 모두 98% 이상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학교급별에 따른 구분에서 초등학교의 수업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89.1%로 가장 낮으나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경우 98% 이상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참조).

나. 학교 성교육 관련 학습내용

성교육 관련 교육내용별로 살펴보면, 생식기구조/이차성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임신/출산으로 74.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68.2%, 피임방법 56.6%, 성병/에이즈 52.5%, 미혼모/인공유산 25.4%, 기타 8.8%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수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생식보건문제를 증가시키고 인구자질 저하 및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2〉 학생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별 수업률(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피임 방법	임신/ 출산	미혼모/ 인공 유산	성병/ 에이즈	기타	성교육 수업률	(대상 자수)
전체	87.4	68.2	56.6	74.5	25.4	52.5	8.8	98.3	(11,244)
지역									
대도시	88.6	67.3	55.9	75.5	28.4	53.0	8.0	98.1	(4,936)
중소도시	86.7	69.2	57.1	73.3	22.9	50.5	9.4	98.6	(4,949)
농촌	85.8	67.9	57.3	75.1	24.0	58.5	8.9	98.5	(1,359)
성별									
남자	84.1	65.9	56.7	71.8	24.2	55.2	11.4	98.0	(5,854)
여자	91.1	70.9	56.6	77.5	26.8	49.7	5.9	98.7	(5,380)
학교급									
초등학교	72.0	31.1	4.1	48.7	3.1	13.8	18.3	93.5	(1,900)
중학교	90.2	74.5	55.1	72.3	22.6	51.8	7.7	99.2	(4,753)
고등학교	91.0	77.2	79.9	87.5	37.7	69.4	5.9	99.4	(4,591)
학년									
초등학교 5학년	63.0	28.6	3.6	43.2	2.6	13.4	19.9	89.1	(1,018)
초등학교 6학년	82.4	33.9	4.6	54.9	3.6	14.3	16.4	98.5	(882)
중학교 1학년	91.8	77.4	61.4	71.1	20.6	44.4	9.3	99.5	(1,558)
중학교 2학년	88.5	73.1	50.7	65.4	19.6	55.3	7.2	98.8	(1,608)
중학교 3학년	90.2	72.9	53.2	80.3	27.4	55.5	6.6	99.5	(1,587)
고등학교 1학년	91.2	79.3	78.6	88.3	35.6	64.2	5.9	99.4	(1,561)
고등학교 2학년	92.4	76.4	82.4	88.6	40.2	72.5	6.2	99.5	(1,598)
고등학교 3학년	89.2	75.6	78.6	85.3	37.0	71.4	5.4	99.2	(1,4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하여 생식기구조/이차성징,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수업을 받은 경험이 약간 높은 편이고, 중소도시는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에 대한 수업, 농촌지역은 성병/에이즈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생식기구조/이차성징, 임신/출산,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피임방법, 미혼모/인공유산 등에 대한 수업을 받은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남학생의 경우 성병/에이즈, 기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주로 생식기구조/이차성징(72.0%)와 임신/출산(48.7%)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으나 타 내용의 수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초등학교생의 성장 발달을 감안하여 교과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생식기구조·이차성징(90.2%),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74.5%), 임신/출산(72.3%), 피임방법(55.1%) 등으로 초등학교생에 비하여 성교육 내용별 수업률에서 2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미혼모/인공유산(37.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교육 내용에 대한 수업률이 높게 나타나 학교 교육을 통해 관련 내용의 제공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성교육 계획이 중학교부터의 피임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의 효과는 고등학교에서야 두드러지게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방증이라고 하겠다. 또한 피임교육의 강조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실제로 유용한 지식의 전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하였을 때, 단지 생리적 지식의 수준에서 피임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피임의 실패로 인한 임신, 인공임신중절, 미혼모 등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적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고등학생의 피임에 대한 수업률은 79.9%인데 반해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수업률은 37.7%에 그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경우 피임방법이나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수업률이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5학년에 비하여 생식기구조/이차성징에 대한 수업률이 약 20%포인트 더 높은 수

준이며, 임신/출산은 약 12%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대체로 모든 성교육 내용별 수업률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행 교육체제에서 성교육이 중학교 1학년 과정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피임방법에 대한 수업률은 중학교 3학년은 53.2%인데 비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률은 78.6%로 약 25%포인트 더 높았다.⁴⁾

<표 5-3>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학교 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성교육 만족도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8%, 약간 도움이 된다 28.1%, 보통이다 38.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5% 등으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은 37.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성교육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성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공세권 외(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성교육에 대하여 전체 학생의 73.8%가 만족하지 못한다

4)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원·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도 과거 받은 성교육 내용에 대하여 사춘기의 신체/심리적 변화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교육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신/피임, 이성교제, 성태도/가치관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은 임신과 피임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이성간 교제, 이성간 성교, 성태도/가치관, 성기위생/성건강, 이성간 키스/애무가 비교적 높은 반면, 사춘기의 신체/심리적 변화, 성적공상/성충동, 비정상적인 성행동, 성역할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표 참조). 요컨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내용들이 주로 성에 관한 기초지식 수준인 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들은 현실적이고 청소년의 성행위 또는 성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성지식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과거 받은 성교육 및 향후 희망하는 성교육 내용(중복 응답)

(단위: %)

구분	신체 심리적 변화	성적 공상 /성충동	자위 행위	성기위생 /성건강	이성 교제	이성간 키스애무	이성간 성교	임신과 피임	비정상성 행동	성태도 가치관	성역할	기타
경험	86.5	24.5	29.8	28.3	44.6	12.6	22.6	59.5	15.4	42.5	28.8	2.7
희망	22.8	24.8	25.4	35.0	41.1	33.3	36.9	46.5	23.5	36.1	24.9	5.2

자료: 김혜원·이해경,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0, 재구성.

고 응답하였으며,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74.2%, ‘성교육 담당 선생님의 교육 방법의 체계성 및 설명이 부족하여서’ 62.0%, ‘교재가 불충분해서’ 27.7%, ‘성교육 보조자료 및 매체의 활용이 부족하여’ 28.6%, ‘시간이 부족하여’ 26.0% 등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학교 성교육 내용이 학생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자료의 개발과 정비를 통하여 성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나가야 한다.

〈표 5-3〉 학생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보통	별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계(명)	평균 ¹⁾
전체	9.8	28.1	38.4	15.1	8.5	100.0 (10,995)	3.16
지역						$\chi^2 = 27.8^{***}$	
대도시	9.0	28.0	38.4	16.0	8.6	100.0 (4,813)	3.13
중소도시	10.1	27.5	38.4	15.1	8.8	100.0 (4,852)	3.15
농촌	12.0	30.5	38.4	12.2	6.9	100.0 (1,330)	3.28
성별						$\chi^2 = 83.5^{***}$	
남자	9.8	28.5	36.1	14.9	10.7	100.0 (5,690)	3.12
여자	9.9	27.7	40.9	15.4	6.2	100.0 (5,296)	3.20
학교급						$\chi^2 = 138.1^{***}$	
초등학교	12.6	26.4	41.8	11.3	7.9	100.0 (1,756)	3.25
중학교	9.7	26.5	42.0	13.6	8.2	100.0 (4,691)	3.16
고등학교	9.0	30.5	33.4	18.2	9.0	100.0 (4,549)	3.12
학년						$\chi^2 = 240.8^{***}$	
초등학교 5학년	13.4	27.2	41.6	10.2	7.6	100.0 (891)	3.28
초등학교 6학년	11.9	25.6	42.0	12.5	8.1	100.0 (867)	3.21
중학교 1학년	11.7	27.4	44.6	10.5	5.8	100.0 (1,542)	3.29
중학교 2학년	9.1	26.6	41.4	13.9	9.0	100.0 (1,577)	3.13
중학교 3학년	8.2	25.5	40.1	16.4	9.9	100.0 (1,573)	3.06
고등학교 1학년	9.4	32.7	35.4	14.5	7.9	100.0 (1,547)	3.21
고등학교 2학년	9.6	30.0	33.6	18.4	8.3	100.0 (1,582)	3.14
고등학교 3학년	7.7	28.5	30.9	21.9	11.0	100.0 (1,419)	3.00

주: 1) 매우 도움=5, 약간 도움=4, 보통=3, 별로 도움 안됨=2, 전혀 도움 안됨=1의 5점 척도에 의함.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은 수준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특성별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을 보면,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 여학생보다는 남학교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학년별로 보면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이나,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학년의 성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성교육이 도움 되었다는 비율을 보면, 부모 생존 여부에서는 아버지만 생존한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정상이 아닌 이혼·별거인 경우, 부 또는 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경우, 학생의 주부양자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인 경우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추측할 수 있다(부표 2-3 참조).

다. 학교 이외 성정보 습득 방법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었는지 살펴보면, 인터넷에 의한 습득이 28.8%로 가장 많으며, 친구/선후배는 27.4%, 부모/친인척 14.7%, TV 12.6%, 기타 8.3%, 잡지/만화 2.4%, 사회종교단체 2.1%, 비디오 2.2%, 형제자매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4 참조). 이는 인터넷, TV, 잡지, 비디오 등 대중매체에 의한 성 정보 습득이 46.0%로 친구/선후배, 부모/친인척,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에 의한 습득률 43.7% 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친구나 대중매체를 통해 성정보를 습득할 경우 단편적이며, 왜곡된 지식을 가질 위험이 있고 성충동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5)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공세권 외(2000)의 연구에서도 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경로로 비디오(46.1%)가 가장 높았고, 친구(41.4%), TV(38.7%), 교사(26.8%), 만화나 잡지(21.0%), 영화(20.3%), 인터넷(14.9%) 등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의 성교육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이 전달되어 올바른 성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하여 성지식 정보경로가 친구/선후배, 인터넷에 의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부모/친인척에 의한 지식정보 습득률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부모/친인척, 친구/선후배에 의한 성지식 습득률이 55.9%인데 남학생의 경우 29.5%로 26.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습득률이 43.5%로 여학생의 12.6%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4〉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친구/ 선후배	비디오	인터넷	TV	잡지/ 만화	사회 종교 단체	기타	계(명)
전체	14.7	1.6	27.4	2.2	28.8	12.6	2.4	2.1	8.3	100.0 (8,254)
지역										$\chi^2=33.1^{**}$
대도시	14.9	1.2	27.5	2.0	29.8	12.5	2.5	1.7	8.0	100.0 (3,667)
중소도시	14.0	1.9	27.8	2.5	28.5	12.3	2.5	2.2	8.3	100.0 (3,616)
농촌	16.2	1.6	25.2	1.5	26.9	13.5	1.8	3.4	9.9	100.0 (971)
성별										$\chi^2=1216.1^{***}$
남자	7.3	1.1	22.2	2.6	43.5	10.4	1.4	2.0	9.5	100.0 (4,343)
여자	22.8	2.0	33.1	1.8	12.6	15.0	3.5	2.2	7.0	100.0 (3,905)
학교급										$\chi^2=1480.6^{***}$
초등학교	46.1	2.0	8.9	2.0	5.1	11.5	5.0	2.2	17.2	100.0 (1,013)
중학교	14.5	1.8	27.7	2.1	27.6	12.0	2.2	2.5	9.6	100.0 (3,337)
고등학교	6.7	1.3	31.8	2.3	36.0	13.3	1.9	1.8	4.9	100.0 (3,905)
학년										$\chi^2=1663.7^{***}$
초등학교 5학년	48.8	1.8	6.0	2.6	3.3	10.9	6.7	2.8	17.1	100.0 (568)
초등학교 6학년	42.8	2.0	12.6	1.1	7.4	12.4	2.9	1.4	17.3	100.0 (444)
중학교 1학년	22.7	2.5	23.7	1.9	21.3	10.2	2.7	2.8	12.0	100.0 (986)
중학교 2학년	14.0	1.6	27.3	2.4	27.7	12.8	2.0	3.0	9.2	100.0 (1,125)
중학교 3학년	8.4	1.4	31.2	1.9	32.6	12.8	1.8	1.7	8.2	100.0 (1,226)
고등학교 1학년	7.6	1.2	32.4	2.1	33.9	14.0	1.8	1.6	5.5	100.0 (1,302)
고등학교 2학년	6.3	1.5	30.5	2.3	38.6	12.3	1.8	2.1	4.5	100.0 (1,363)
고등학교 3학년	6.1	1.1	32.7	2.6	35.5	13.5	2.2	1.6	4.8	100.0 (1,24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부모/친인척(46.1%)에 의하여 성지식을 가장 많이 습득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습득이 가장 많다. 학년별 성지식 경로에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친인척(46.1%)에 의하여 성지식 습득이 높아지는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습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지식정보 습득률을 보면, 부모 생존 여부에서는 아버지만 생존한 경우 비디오 또는 TV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어머니만 생존한 경우 인터넷에 의한 성지식 습득률이 높았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친인척에 의한 성지식 습득이 높아졌다(부표 2-8 참조).

라.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 해결방법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⁶⁾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친구/선배와 상담하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부모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21.8%, 혼자 해결 한다 18.2%, 인터넷/PC통신 10.6%, 기타 방법 5.0%, 형제/자매와 상담 3.0%, 상담전문가와 상담 2.2%, 성교육 관련 책 1.9%, 학교 선생님과 상담 1.3% 등의 순이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2%로 나타났다(표 5-5 참조). 이 같이 학생들이 성문제를 ‘친구/선배’ 등의 또래집단이나 개별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청소년 성상담 클리닉이나 서비

6) 본 조사에서 성과 관련된 고민 내용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생을 대상으로 성고민 조사를 실시한 공세권 외(2000)의 연구 결과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반청소년에 대한 상담 내용을 보조 자료로 제시한다. 공세권 외(2000)의 연구에서 성고민의 종류를 보면 성행위에 대한 고민이 48.3%로 가장 많았고, 임신(30.2%), 성충동(26.7%), 월경 또는 동정(26.5%), 성병(20.8%), 성폭행(19.3%), 자위행위(19.1%) 등의 순이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일반청소년에 대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행에 관한 상담(17.4%)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 성교육지도, 자위행위,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성충동, 원치 않는 임신, 피임방법 등의 순이었다. 상담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비교적 높은 상담 비율을 보였던 자위행위, 원치 않는 임신, 성충동, 피임 방법 등의 상담은 2005년에는 약간 감소한 반면 성폭행, 성교육지도, 이성문제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그림] 참조).

스센터가 부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상담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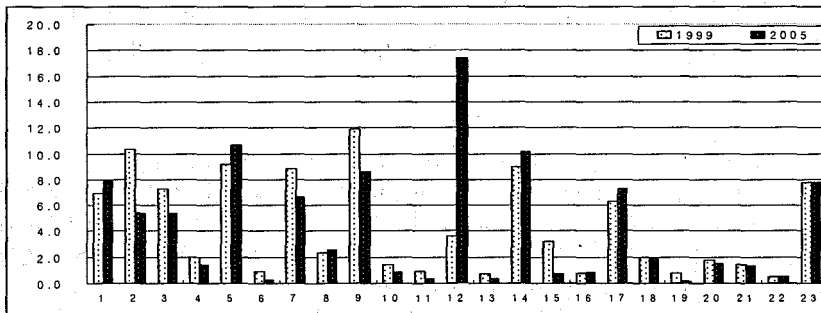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친구/선배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농촌지역보다 높은 반면, 농촌지역은 부모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와 상담(30.6%)하거나, 친구/선배와 상담(37.3%)하는 경우가 남학생보다 높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PC통신(14.5%)을 이용하거나 혼자 해결(24.4%) 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부모와 상담한다(57.9%)는 응답이 매우 높은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선배 또는 인터넷/PC 통신에 의해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과 혼자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년별로 성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 상담에 의하여 해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친구/선배 상담 또는 인터넷/PC 통신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지식 습득 경로와 비슷한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청소년 상담 내용의 변화(1999년, 2005년)



- ① 이성문제, ② 원치않는 임신, ③ 피임방법, ④ 성병, ⑤ 건강, ⑥ 입양, ⑦ 성충동, ⑧ 성도착증, ⑨ 자위행위, ⑩ 근친상간, ⑪ 동성연애, ⑫ 성폭행, ⑬ 에이즈, ⑭ 성교육지도, ⑮ 비행, ⑯ 취업진로, ⑰ 가정문제, ⑱ 성격문제, ⑲ 약물문제, ⑳ 학업진로, ㉑ 교우관계, ㉒ 제도개선, ㉓ 기타

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 내부자료(청소년 상담실 활동실적), 2005년.

〈표 5-5〉 학생특성별 성관련 고민 해결 방법

(단위: %, 명)

구분	부모 상담	형제/ 자매	선생님	상담전 문가	친구/ 선배	성교육 관련 책	인터넷 /PC	혼자 해결	기타	해결 못함	계(명)
전체	21.8	3.0	1.3	2.2	32.8	1.9	10.6	18.2	5.0	3.2	100.0 (5,904)
지역											$\chi^2=34.2^*$
대도시	21.0	2.7	1.2	1.8	32.9	1.6	10.9	19.2	5.4	3.3	100.0 (2,518)
중소도시	21.5	3.0	1.5	2.7	34.0	1.8	10.3	17.5	4.5	3.2	100.0 (2,629)
농촌	25.6	4.1	1.5	2.0	28.4	3.0	10.0	17.2	5.5	2.6	100.0 (757)
성별											$\chi^2=548.8^{***}$
남자	13.6	2.3	1.6	2.9	28.6	1.5	14.5	24.4	7.3	3.4	100.0 (3,044)
여자	30.6	3.7	1.0	1.6	37.3	2.3	6.4	11.5	2.6	3.0	100.0 (2,859)
학교급											$\chi^2=1064.3^{***}$
초등학교	57.9	2.4	2.4	1.9	8.7	4.0	2.6	10.0	7.5	2.5	100.0 (877)
중학교	21.1	2.7	1.5	2.5	31.9	1.7	11.2	18.6	5.7	3.0	100.0 (2,293)
고등학교	10.8	3.4	0.8	2.1	41.3	1.3	12.6	20.4	3.7	3.5	100.0 (2,738)
학년											$\chi^2=1210.8^{***}$
초등학교 5학년	63.0	1.5	2.3	2.1	7.5	4.4	1.3	8.8	7.7	1.5	100.0 (478)
초등학교 6학년	52.1	3.5	2.5	1.8	10.1	3.5	4.0	11.6	7.3	3.5	100.0 (397)
중학교 1학년	28.2	3.3	1.5	2.4	28.6	2.1	6.8	16.5	6.8	3.9	100.0 (752)
중학교 2학년	20.2	2.5	1.8	1.6	32.3	1.8	11.0	20.3	5.9	2.6	100.0 (728)
중학교 3학년	15.3	2.5	1.5	3.4	34.6	1.3	15.3	18.9	4.5	2.6	100.0 (815)
고등학교 1학년	12.9	3.1	0.9	3.7	36.6	1.4	11.9	20.8	4.5	4.2	100.0 (874)
고등학교 2학년	11.5	2.8	0.6	1.6	42.2	1.2	12.4	20.7	3.1	3.8	100.0 (962)
고등학교 3학년	8.1	4.2	0.9	1.2	45.1	1.3	13.5	19.7	3.5	2.4	100.0 (89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마. 성 관련 내용 인지 정도

학생들이 성 관련 내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10.0%, 아는 편이다 48.7%, 모르는 편이다 24.0%, 전혀 모른다 17.2% 등으로 피임방법 인지율은 48.7%로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피임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 60.3%, 중소도시 58.3%, 농촌 지역 54.9%로 도시지역이 다소 높았고, 성별로는 남학생 60.1%, 여학생 57.4%로 남학생의 인지율이 더 높았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생의 경우 피임방법 인지율이 20%미만이지만 중학생은 약 50%정도, 고등학생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5-6〉 학생의 특성별 피임방법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92)	2.52
지역					$\chi^2=16.3^*$	
대도시	10.6	49.7	22.6	17.1	100.0 (4,911)	2.54
중소도시	9.8	48.5	24.6	17.1	100.0 (4,929)	2.51
농촌	8.9	46.0	26.8	18.2	100.0 (1,352)	2.46
성별					$\chi^2=167.8^{***}$	
남자	13.2	46.9	21.6	18.3	100.0 (5,820)	2.55
여자	6.6	50.8	26.6	16.1	100.0 (5,361)	2.48
학교급					$\chi^2=2619.9^{***}$	
초등학교	2.7	15.5	30.3	51.5	100.0 (1,880)	1.69
중학교	9.7	47.4	27.2	15.8	100.0 (4,724)	2.51
고등학교	13.4	63.8	18.1	4.6	100.0 (4,586)	2.86
학년					$\chi^2=2654.9^{***}$	
초등학교 5학년	2.9	13.5	31.9	51.7	100.0 (1,007)	1.67
초등학교 6학년	2.5	17.8	28.5	51.2	100.0 (873)	1.72
중학교 1학년	10.2	48.9	25.6	15.3	100.0 (1,544)	2.54
중학교 2학년	8.7	43.3	29.4	18.6	100.0 (1,601)	2.42
중학교 3학년	10.1	50.0	26.5	13.4	100.0 (1,580)	2.57
고등학교 1학년	13.3	63.1	18.3	5.2	100.0 (1,560)	2.85
고등학교 2학년	13.4	65.5	16.8	4.3	100.0 (1,599)	2.88
고등학교 3학년	13.5	62.5	19.4	4.5	100.0 (1,430)	2.85

주: 1) 매우 잘안다=4, 아는 편이다=3, 모르는 편이다=2, 전혀 모른다=1의 4점 척도에 의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8.8%, 아는 편이다 33.8%, 모르는 편이다 32.0%, 전혀 모른다 25.4% 등으로 인공유산 부작용 인지율은 42.6%로 생식보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인지율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임신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인공유산의 부작용이 여학생의 학습 욕구에 여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률은 증가하였다.

〈표 5-7〉 학생의 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8.8	33.8	32.0	25.4	100.0 (11,166)	2.26
지역					$\chi^2=11.0$	
대도시	9.6	34.1	31.7	24.6	100.0 (4,902)	2.29
중소도시	8.3	33.6	32.0	26.1	100.0 (4,914)	2.24
농촌	7.5	33.6	32.8	26.1	100.0 (1,350)	2.22
성별					$\chi^2=46.7***$	
남자	9.8	31.3	32.1	26.8	100.0 (5,799)	2.24
여자	7.7	36.6	31.9	23.9	100.0 (5,357)	2.28
학교급					$\chi^2=920.1***$	
초등학교	5.8	19.3	26.2	48.8	100.0 (1,872)	1.82
중학교	8.3	30.5	34.9	26.3	100.0 (4,722)	2.21
고등학교	10.5	43.3	31.3	15.0	100.0 (4,571)	2.49
학년					$\chi^2=988.8***$	
초등학교 5학년	6.1	19.0	25.4	49.5	100.0 (1,002)	1.82
초등학교 6학년	5.4	19.6	27.1	47.9	100.0 (871)	1.83
중학교 1학년	7.8	26.7	36.6	28.8	100.0 (1,543)	2.14
중학교 2학년	7.5	28.4	35.7	28.4	100.0 (1,601)	2.15
중학교 3학년	9.7	36.2	32.6	21.6	100.0 (1,579)	2.34
고등학교 1학년	9.8	41.8	34.2	14.2	100.0 (1,555)	2.47
고등학교 2학년	11.3	45.4	28.5	14.9	100.0 (1,594)	2.53
고등학교 3학년	10.4	42.5	31.2	16.0	100.0 (1,425)	2.47

주: 1) <표 5-6>과 동일.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성병/에이즈의 예방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9.0%, 아는 편이다 37.3%, 모르는 편이다 33.1%, 전혀 모른다 20.7% 등으로 성병·에이즈의 예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3%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인지율 더 높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성병·에이즈의 예방방법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10%이상으로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율과는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표 5-8〉 학생의 특성별 성병·에이즈 예방 방법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9.0	37.3	33.1	20.7	100.0 (11,131)	2.35
지역					$\chi^2=18.9^*$	
대도시	9.5	36.9	33.0	20.5	100.0 (4,882)	2.35
중소도시	8.3	36.5	34.0	21.2	100.0 (4,901)	2.32
농촌	9.1	41.5	29.7	19.7	100.0 (1,348)	2.40
성별					$\chi^2=242.3^{***}$	
남자	12.2	39.8	28.6	19.5	100.0 (5,780)	2.45
여자	5.5	34.6	37.9	22.0	100.0 (5,339)	2.24
학교급					$\chi^2=1691.0^{***}$	
초등학교	3.7	12.8	33.5	50.0	100.0 (1,859)	1.70
중학교	9.1	34.4	36.0	20.5	100.0 (4,710)	2.32
고등학교	11.0	50.2	29.8	9.0	100.0 (4,561)	2.63
학년					$\chi^2=1782.2^{***}$	
초등학교 5학년	3.2	12.0	31.4	53.4	100.0 (993)	1.65
초등학교 6학년	4.2	13.7	35.9	46.2	100.0 (866)	1.76
중학교 1학년	8.3	29.5	37.7	24.5	100.0 (1,540)	2.22
중학교 2학년	9.4	33.6	35.5	21.5	100.0 (1,599)	2.31
중학교 3학년	9.7	40.1	34.7	15.5	100.0 (1,572)	2.44
고등학교 1학년	9.3	48.5	31.5	10.8	100.0 (1,550)	2.56
고등학교 2학년	12.2	50.0	29.0	8.8	100.0 (1,591)	2.66
고등학교 3학년	11.5	52.2	29.0	7.3	100.0 (1,420)	2.68

주: 1) <표 5-6>과 동일.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7.5%, 아는 편이다 63.1%, 모르는 편이다 14.4%, 전혀 모른다 5.1% 등으로 신체적 구조 인지율은 80.6%로 높은 수준이었다(표 5-9 참조).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생식기 구조에 대한 수업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53.2%, 중학생은 82.4%, 고등학생은 89.7%로 학교급이 높아지면 인지율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지만, 다른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와 비교했을 때 신체적 구조에 대한 교육은 성교육의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었고, 성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며, 학년이 높을수록 생식기 구조에 관한 인지율은 증가하였다.

〈표 5-9〉 학생의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7.5	63.1	14.4	5.1	100.0 (11,091)	2.93
지역					$\chi^2=10.5$	
대도시	17.8	63.5	14.1	4.6	100.0 (4,869)	2.94
중소도시	17.7	62.7	14.4	5.2	100.0 (4,882)	2.93
농촌	15.4	62.8	15.7	6.0	100.0 (1,340)	2.88
성별					$\chi^2=205.2^{***}$	
남자	21.8	58.9	13.1	6.1	100.0 (5,758)	2.96
여자	12.7	67.6	15.8	3.9	100.0 (5,319)	2.89
학교급					$\chi^2=1332.9^{***}$	
초등학교	6.6	46.6	29.7	17.1	100.0 (1,845)	2.43
중학교	17.5	64.9	14.0	3.6	100.0 (4,695)	2.96
고등학교	21.8	67.9	8.7	1.6	100.0 (4,550)	3.10
학년					$\chi^2=1414.3^{***}$	
초등학교 5학년	7.4	42.3	31.5	18.8	100.0 (988)	2.38
초등학교 6학년	5.7	51.5	27.7	15.2	100.0 (857)	2.48
중학교 1학년	15.7	62.0	17.8	4.4	100.0 (1,533)	2.89
중학교 2학년	17.1	64.7	14.3	4.0	100.0 (1,594)	2.95
중학교 3학년	19.7	67.9	9.9	2.6	100.0 (1,568)	3.05
고등학교 1학년	20.3	69.0	9.2	1.5	100.0 (1,546)	3.08
고등학교 2학년	21.4	68.4	8.4	1.8	100.0 (1,587)	3.09
고등학교 3학년	23.9	66.1	8.4	1.6	100.0 (1,418)	3.12

주: 1) <표 5-6>과 동일.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임신/출산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17.9%, 아는 편이다 59.8%, 모르는 편이다 16.0%, 전혀 모른다 6.3% 등으로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한 인지율은 77.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신체적 구조와 비슷한 경향으로 중학교 이상에서 임신/출산과정에 대한 수업률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5-10 참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며, 성별로는 여학생의 인지율이 다소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율은 증가하였다.

〈표 5-10〉 학생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7.9	59.8	16.0	6.3	100.0 (11,080)	2.89
지역					$\chi^2=27.8^{***}$	
대도시	18.6	60.6	14.7	6.0	100.0 (4,868)	2.92
중소도시	18.1	58.7	17.0	6.1	100.0 (4,874)	2.89
농촌	14.3	60.6	17.2	7.8	100.0 (1,338)	2.81
성별					$\chi^2=164.7^{***}$	
남자	19.0	54.7	18.2	8.2	100.0 (5,757)	2.84
여자	16.7	65.3	13.7	4.2	100.0 (5,314)	2.95
학교급					$\chi^2=1253.6^{***}$	
초등학교	10.2	41.2	28.7	19.9	100.0 (1,846)	2.42
중학교	17.2	60.2	17.2	5.4	100.0 (4,687)	2.89
고등학교	21.8	66.9	9.7	1.6	100.0 (4,546)	3.09
학년					$\chi^2=1383.4^{***}$	
초등학교 5학년	10.2	39.0	28.9	21.8	100.0 (986)	2.38
초등학교 6학년	10.1	43.7	28.5	17.7	100.0 (860)	2.46
중학교 1학년	15.4	57.1	20.7	6.8	100.0 (1,533)	2.81
중학교 2학년	14.9	58.6	20.2	6.3	100.0 (1,587)	2.82
중학교 3학년	21.1	64.9	10.7	3.2	100.0 (1,566)	3.04
고등학교 1학년	21.4	67.6	9.7	1.4	100.0 (1,545)	3.09
고등학교 2학년	20.6	68.1	9.5	1.8	100.0 (1,588)	3.08
고등학교 3학년	23.5	64.8	9.8	1.8	100.0 (1,413)	3.10

주: 1) <표 5-6>과 동일.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전체적으로 성관련 인지율은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율은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의 예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 42.6%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정보와 지식(생식기 구조/이차성징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나 피임, 인공유산, 성병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피임방법에 대하여 배웠다고 응답한 경우 피임방법에 대하여 아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0.8%인데, 그 내용은 배우지 않은 경우 피임방법 인지율은 29.8%로 매우 낮아, 그 차이가 50%포인트 이상으로

학교에서의 성관련 수업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표 5-11 참조).

〈표 5-11〉 학교 성교육 내용 수업여부별 성관련 내용의 인지율

(단위: %, 명)

구분	피임방법 인지	인공유산 부작용	성병 및 에이즈 예방	남녀의 신체구조	임신 및 출산과정
전체	58.7	42.6	46.3	80.6	77.7
(평균 점수) ¹⁾	(2.52)	(2.25)	(2.35)	(2.93)	(2.89)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수업 경험 있다	62.5	44.7	48.7	84.5	81.6
수업 경험 없다	32.7	27.5	28.7	52.0	50.0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수업 경험 있다	66.5	47.4	52.4	86.5	83.9
수업 경험 없다	42.0	32.3	32.9	67.5	64.2
피임방법					
수업 경험 있다	80.8	52.6	59.3	90.3	88.3
수업 경험 없다	29.8	29.5	29.1	67.7	63.6
임신/출산					
수업 경험 있다	66.0	47.2	51.5	86.1	85.6
수업 경험 없다	37.6	29.2	30.7	64.0	54.3
미혼모/인공유산					
수업 경험 있다	80.7	65.6	65.6	91.9	91.0
수업 경험 없다	51.3	34.7	39.6	76.6	73.1
성병/에이즈					
수업 경험 있다	72.2	51.0	65.7	88.7	85.5
수업 경험 없다	43.8	33.3	24.5	71.4	68.9

주: 1) <표 5-6>과 동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한편 학교의 성교육 내용과 성관련 지식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성교육을 받은 내용과 관련 지식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5-12 참조). 하지만 피임방법에 대한 수업 여부와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정도의 상관관계수만이 0.520로 높게 나타났고, 미혼모/인공유산 수업 여부와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정도의 상관관계수는 0.292, 성병/에이즈에 대한 수업 여부와 성병/에이즈 예방법의 상관관계수는 0.432,

생식기 구조/이차성징에 대한 수업 여부와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정도의 상관관계수는 0.272, 임신/출산에 대한 수업 여부와 임신/출산과정에 대한 인지정도의 상관관계수는 0.325 등으로 상관관계가 약했다. 즉, 학교 성교육의 효과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진단할 수 있다.

〈표 5-12〉 학교 성교육 내용과 성 관련 지식과의 상관관계

구분	피임방법 인지	인공유산의 부작용	성병·에이즈 예방법	신체구조 인지	임신·출산 과정 인지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0.207***	0.123***	0.148***	0.272***	0.25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0.248***	0.173***	0.209***	0.240***	0.236***
피임방법	0.520***	0.274***	0.337***	0.307***	0.312***
임신/출산	0.259***	0.186***	0.201***	0.257***	0.325***
미혼모/인공유산	0.277***	0.292***	0.259***	0.207***	0.217***
성병/에이즈	0.309***	0.209***	0.432***	0.250***	0.227***

주: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바. 성 가치관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해서는 남녀의 혼전 순결,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혼전 임신, 이성교제 등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문 항목에 한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41.1%, 반드시 지켜야 한다 26.5%로 전체 학생의 약 2/3정도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이 성적 순결을 여전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 참조). 하지만 순결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도 1/3을 차지하는 만큼 성적 순결에 대한 건전한 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이며,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남자의 혼전순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수적인 경향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고학년

일수록 남자의 결혼 전 순결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이 높고 저학년일수록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높았는데, 저학년의 경우 성가치관의 미성숙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5-13〉 학생의 특성별 남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급적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명)	평균 ¹⁾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11,231)	2.33
지역						$\chi^2=46.0^{***}$	
대도시	25.8	41.3	17.5	4.7	10.7	100.0 (4,929)	2.33
중소도시	26.1	40.5	17.0	4.1	12.2	100.0 (4,945)	2.36
농촌	30.6	42.5	11.4	3.5	12.0	100.0 (1,357)	2.24
성별						$\chi^2=605.3^{***}$	
남자	19.4	39.8	19.4	7.1	14.3	100.0 (5,846)	2.57
여자	34.4	42.4	13.5	1.3	8.4	100.0 (5,374)	2.07
학교급						$\chi^2=1143.3^{***}$	
초등학교	36.9	30.1	6.4	1.1	25.4	100.0 (1,892)	2.48
중학교	28.5	43.6	12.3	3.8	11.8	100.0 (4,748)	2.27
고등학교	20.2	43.1	25.2	6.1	5.4	100.0 (4,591)	2.34
학년						$\chi^2=1334.6^{***}$	
초등학교 5학년	36.5	29.1	5.5	1.4	27.4	100.0 (1,013)	2.54
초등학교 6학년	37.5	31.3	7.3	0.8	23.1	100.0 (879)	2.41
중학교 1학년	34.1	41.1	7.8	2.6	14.4	100.0 (1,555)	2.22
중학교 2학년	26.7	46.8	11.7	2.8	12.0	100.0 (1,605)	2.27
중학교 3학년	24.9	42.7	17.1	6.0	9.2	100.0 (1,587)	2.32
고등학교 1학년	22.4	44.3	22.6	4.7	6.0	100.0 (1,561)	2.28
고등학교 2학년	21.3	44.2	23.4	6.2	4.9	100.0 (1,597)	2.29
고등학교 3학년	16.7	40.4	30.0	7.5	5.4	100.0 (1,432)	2.45

주: 1) 반드시 지켜야한다=1, 가급적 지켜야한다=2,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3, 지킬 필요없다=4의 4점 척도에 의함.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향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표 5-14〉에서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 보면, 가급적 지켜야 한다는 39.6%,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34.2%로 전체의 약 3/4정도가 여자가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여, 남자의 혼전 순결에 대한 가치관 보다는 여자의 혼전 순결에 대하여 더 보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여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는 남자의 혼전 순결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경향으로, 대도시 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가 더 높은 편이며,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여자의 혼전순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고, 고학년일수록 여자의 결혼 전 순결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5-14> 학생의 특성별 여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급적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명)	평균 ¹⁾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217)	2.17
지역						$\chi^2=37.2^{***}$	
대도시	33.4	39.7	13.9	2.5	10.6	100.0 (4,925)	2.17
중소도시	34.3	38.7	13.0	2.2	11.8	100.0 (4,939)	2.19
농촌	36.4	42.4	8.4	2.0	10.8	100.0 (1,353)	2.08
성별						$\chi^2=258.2^{***}$	
남자	29.5	39.2	13.5	3.2	14.5	100.0 (5,836)	2.34
여자	39.3	39.9	12.1	1.3	7.4	100.0 (5,370)	1.98
학교급						$\chi^2=867.5^{***}$	
초등학교	36.8	28.9	7.0	1.2	26.1	100.0 (1,882)	2.51
중학교	36.1	40.3	9.7	2.3	11.6	100.0 (4,747)	2.13
고등학교	31.1	43.2	18.5	2.7	4.5	100.0 (4,586)	2.06
학년						$\chi^2=992.5^{***}$	
초등학교 5학년	36.1	27.9	6.2	1.4	28.3	100.0 (1,010)	2.58
초등학교 6학년	37.6	30.0	7.8	0.9	23.6	100.0 (872)	2.43
중학교 1학년	38.4	38.6	7.0	1.7	14.4	100.0 (1,553)	2.15
중학교 2학년	35.5	41.6	9.4	1.9	11.6	100.0 (1,609)	2.12
중학교 3학년	34.5	40.5	12.7	3.3	8.9	100.0 (1,586)	2.12
고등학교 1학년	33.4	43.8	15.6	2.2	4.9	100.0 (1,560)	2.02
고등학교 2학년	31.6	44.8	17.0	2.4	4.2	100.0 (1,597)	2.03
고등학교 3학년	27.9	40.9	23.1	3.6	4.4	100.0 (1,430)	2.16

주: 1) <표 5-13>과 동일.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보면 매우 찬성이 8.4%, 대체로 찬성이 22.5%, 별로 찬성 안함 34.6%, 전혀 찬성 안함 34.5%로 부정적인 태도가 약 70%에 이른다(표 5-15 참조). 이는 남녀의 혼전 순결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지

역별로는 농촌 지역(27.7%)이 중소도시(31.0%)와 대도시(31.7%)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학년별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에서 18.7%였던 찬성 응답이 점차 상승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50.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학생의 특성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8.4	22.5	34.6	34.5	100.0 (11,219)	2.05
지역					$\chi^2=12.9^*$	
대도시	9.1	22.6	33.7	34.6	100.0 (4,928)	2.06
중소도시	8.0	23.0	35.0	34.0	100.0 (4,933)	2.05
농촌	7.1	20.6	36.5	35.8	100.0 (1,358)	1.99
성별					$\chi^2=907.3^{***}$	
남자	13.5	27.2	35.5	23.8	100.0 (5,839)	2.30
여자	2.8	17.4	33.6	46.2	100.0 (5,368)	1.77
학교급					$\chi^2=555.0^{***}$	
초등학교	4.0	13.6	38.7	43.7	100.0 (1,889)	1.78
중학교	7.4	17.6	36.2	38.8	100.0 (4,744)	1.94
고등학교	11.2	31.3	31.3	26.2	100.0 (4,584)	2.27
학년					$\chi^2=721.0^{***}$	
초등학교 5학년	4.1	14.6	37.8	43.5	100.0 (1,014)	1.79
초등학교 6학년	3.9	12.4	39.7	43.9	100.0 (876)	1.76
중학교 1학년	4.7	14.2	36.4	44.7	100.0 (1,555)	1.79
중학교 2학년	6.6	16.8	37.6	38.9	100.0 (1,605)	1.91
중학교 3학년	10.7	21.9	34.6	32.8	100.0 (1,586)	2.10
고등학교 1학년	9.1	28.0	31.7	31.2	100.0 (1,558)	2.15
고등학교 2학년	11.3	29.5	33.4	25.8	100.0 (1,598)	2.26
고등학교 3학년	13.4	36.8	28.6	21.1	100.0 (1,429)	2.43

주: 1) 매우 찬성=4, 대체로 찬성=3, 별로 찬성 안함=2, 전혀 찬성 안함=1의 4점 척도에 의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매우 찬성 7.1%, 대체로 찬성 26.3%, 별로 찬성 안함 40.2%, 전혀 찬성 안함 26.4%로 66.6%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5-16 참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가 여자에 비해 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초등학교생 22.0%, 중학생 31.6%, 고등학생은 40.1%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년별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혼전 동거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5-16〉 학생의 특성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7.1	26.3	40.2	26.4	100.0 (11,232)	2.14
지역					$\chi^2=4.5$	
대도시	7.0	26.6	39.6	26.7	100.0 (4,931)	2.14
중소도시	7.4	26.2	40.7	25.7	100.0 (4,944)	2.15
농촌	6.6	25.5	40.2	27.7	100.0 (1,357)	2.11
성별					$\chi^2=139.5^{***}$	
남자	8.8	29.2	38.7	23.3	100.0 (5,847)	2.24
여자	5.3	23.1	41.7	29.8	100.0 (5,376)	2.04
학교구분					$\chi^2=300.3^{***}$	
초등학교	4.4	17.6	39.6	38.4	100.0 (1,898)	1.88
중학교	6.8	24.8	41.4	27.0	100.0 (4,748)	2.11
고등학교	8.7	31.4	39.1	20.9	100.0 (4,589)	2.28
학년					$\chi^2=373.3^{***}$	
초등학교 5학년	4.0	17.3	38.2	40.5	100.0 (1,018)	1.85
초등학교 6학년	4.8	18.0	41.2	36.1	100.0 (882)	1.91
중학교 1학년	6.4	20.7	42.2	30.8	100.0 (1,553)	2.03
중학교 2학년	5.4	24.5	43.2	27.0	100.0 (1,606)	2.08
중학교 3학년	8.6	29.3	38.9	23.2	100.0 (1,588)	2.23
고등학교 1학년	7.6	31.2	39.4	21.8	100.0 (1,559)	2.25
고등학교 2학년	8.0	31.0	39.7	21.3	100.0 (1,598)	2.26
고등학교 3학년	10.6	32.1	38.0	19.4	100.0 (1,431)	2.34

주: 1) <표 5-15>와 동일.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혼전 임신)’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보면 찬성의 비율이 24.6%, 찬성 안함의 비율이 78.4%로 혼전 임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표 5-17 참조). 이는 혼전 동거(66.6%)와 비교하였을 때 혼전 임신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결혼이라

는 제도 아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25.1%)의 경우 남성(18.4%)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의 혼전 순결,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에 대한 성별 비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 앞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 준다. 학교급 및 학년별로는 학교급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혼전 임신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7〉 학생의 특성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232)	1.83
지역					$\chi^2=5.1$	
대도시	4.4	17.7	36.6	41.3	100.0 (4,934)	1.85
중소도시	3.9	17.2	35.6	43.2	100.0 (4,941)	1.82
농촌	4.4	17.2	35.1	43.3	100.0 (1,357)	1.83
성별					$\chi^2=82.9^{***}$	
남자	4.0	14.4	36.7	44.9	100.0 (5,846)	1.78
여자	4.4	20.7	35.3	39.7	100.0 (5,375)	1.90
학교구분					$\chi^2=254.2^{***}$	
초등학교	3.1	11.5	30.0	55.4	100.0 (1,897)	1.62
중학교	4.1	15.3	37.4	43.1	100.0 (4,746)	1.80
고등학교	4.8	22.0	37.0	36.3	100.0 (4,588)	1.95
학년					$\chi^2=326.1^{***}$	
초등학교 5학년	2.6	10.6	30.3	56.6	100.0 (1,018)	1.59
초등학교 6학년	3.6	12.5	29.8	54.0	100.0 (879)	1.66
중학교 1학년	4.4	12.2	36.0	47.3	100.0 (1,555)	1.74
중학교 2학년	3.8	15.5	36.8	43.9	100.0 (1,605)	1.79
중학교 3학년	4.0	18.3	39.5	38.3	100.0 (1,586)	1.88
고등학교 1학년	3.7	20.5	37.1	38.8	100.0 (1,558)	1.89
고등학교 2학년	4.5	20.5	38.7	36.3	100.0 (1,599)	1.93
고등학교 3학년	6.2	25.3	35.0	33.5	100.0 (1,431)	2.04

주: 1) <표 5-15>와 동일.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사. 혼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28.2%,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 49.4%, 낳아서는 안된다 7.5%, 모르겠다 14.9% 등으로 나타났다(표 5-18 참조). 이는 혼전 임신이라도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 2/3 이상이 출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서구 사회와 같은 결혼 및 출산 문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8〉 학생의 특성별 혼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낳아야 한다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	낳아서는 안된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28.2	49.4	7.5	14.9	100.0 (11,232)
지역					$\chi^2=16.8^{**}$
대도시	27.7	50.6	7.8	13.9	100.0 (4,930)
중소도시	28.2	48.9	7.5	15.4	100.0 (4,946)
농촌	30.5	46.8	6.2	16.5	100.0 (1,356)
성별					$\chi^2=111.8^{***}$
남자	28.6	45.4	8.6	17.4	100.0 (5,845)
여자	27.8	53.8	6.2	12.2	100.0 (5,378)
학교급					$\chi^2=469.5^{***}$
초등학교	25.3	38.2	11.6	24.9	100.0 (1,898)
중학교	29.9	45.4	8.1	16.6	100.0 (4,746)
고등학교	27.7	58.2	5.1	9.0	100.0 (4,588)
학년					$\chi^2=511.9^{***}$
초등학교 5학년	25.1	37.3	11.9	25.6	100.0 (1,015)
초등학교 6학년	25.6	39.1	11.2	24.0	100.0 (882)
중학교 1학년	29.2	42.2	9.7	18.9	100.0 (1,552)
중학교 2학년	31.1	44.1	7.8	17.0	100.0 (1,607)
중학교 3학년	29.4	49.7	6.9	14.0	100.0 (1,587)
고등학교 1학년	26.1	57.9	5.5	10.5	100.0 (1,558)
고등학교 2학년	29.0	57.9	4.9	8.2	100.0 (1,598)
고등학교 3학년	28.1	58.8	4.7	8.4	100.0 (1,43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은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은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년별로는 고학년일수록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아. 이성교제 경험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교제 중이라는 응답이 11.4%, 교제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는 35.7%, 교제한 적이 없다는 52.9% 등으로 절반 정도는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5-19 참조). 지역별로는 일정한 경향이 없고,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현재 교제중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5-19〉 학생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단위: %, 명)

구분	현재 교제 중이다	과거 교제 현재 없다	교제한 적이 없다	계(명)
전체	11.4	35.7	52.9	100.0 (11,149)
지역				$\chi^2=8.6$
대도시	11.3	35.6	53.1	100.0 (4,901)
중소도시	11.4	36.7	51.9	100.0 (4,905)
농촌	11.9	32.5	55.6	100.0 (1,343)
성별				$\chi^2=39.1^{***}$
남자	10.5	33.8	55.7	100.0 (5,792)
여자	12.4	37.7	49.8	100.0 (5,347)
학교급				$\chi^2=511.2^{***}$
초등학교	7.6	20.2	72.2	100.0 (1,878)
중학교	9.1	36.0	55.0	100.0 (4,709)
고등학교	15.5	41.8	42.7	100.0 (4,562)
학년				$\chi^2=566.6^{***}$
초등학교 5학년	7.0	19.2	73.9	100.0 (1,002)
초등학교 6학년	8.2	21.4	70.4	100.0 (875)
중학교 1학년	8.0	32.9	59.1	100.0 (1,539)
중학교 2학년	8.6	36.9	54.5	100.0 (1,594)
중학교 3학년	10.6	38.0	51.4	100.0 (1,576)
고등학교 1학년	12.0	41.5	46.5	100.0 (1,548)
고등학교 2학년	17.7	41.6	40.7	100.0 (1,590)
고등학교 3학년	16.7	42.3	40.9	100.0 (1,42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제 2 절 담당 교사7)

1. 성교육 관련 수업실시 및 교육과정 이수

담당교사가 현재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33.5%는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5%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교육 수업을 하는 교사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27.1%, 여자가 38.1%로 여교사에 의한 성교육이 비교적 많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20 참조).

〈표 5-20〉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관련 수업 유무

(단위: %, 명)

구분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지 않는다	계(명)
전체	33.5	66.5	100.0 (1,101)
성별			$\chi^2=14.4^{***}$
남자	27.1	72.9	100.0 (454)
여자	38.1	61.9	100.0 (646)
학교급			$\chi^2=32.1^{***}$
초등학교	50.8	49.2	100.0 (191)
중학교	31.7	68.3	100.0 (439)
고등학교	28.2	71.8	100.0 (471)
담당과목			$\chi^2=221.5^{***}$
국어	10.0	90.0	100.0 (50)
도덕	44.1	55.9	100.0 (152)
사회	11.7	88.3	100.0 (317)
과학	38.2	61.8	100.0 (34)
기술·가정	64.5	35.5	100.0 (197)
외국어(영어)	8.5	91.5	100.0 (47)
기타	18.4	81.6	100.0 (114)
초등학교	50.8	49.2	100.0 (17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7) 성교육에 관한 학교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교사조사는 학생조사를 위하여 표본추출된 초·중·고 학급의 담임, 가정/기술, 도덕, 일반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국 대표 통계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답교사의 일반 특성은 <부표 2-47>에 제시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50.8%)에서 성교육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고 중학교(31.7%), 고등학교(28.2%)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도지침'을 전국 중·고등학교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입시 등의 교육 여건 때문에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교 이상 교사의 담당과목은 기술·가정 과목이 64.5%로 가장 높고, 도덕 44.1%, 과학 38.2% 등이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50.8%가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에 대하여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35.4%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4.6%는 이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5-21 참조).

중학교 이상 교사의 담당과목별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 비율은 약 40%정도인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성 가치관 정립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표 5-21〉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명)
전체	35.4	64.6	100.0 (367)
지역			$\chi^2=0.8$
대도시	37.1	62.9	100.0 (175)
중소도시	32.9	67.1	100.0 (155)
농촌	37.8	62.2	100.0 (37)
학교급			$\chi^2=11.0^{**}$
초등학교	21.6	78.4	100.0 (97)
중학교	41.3	58.7	100.0 (138)
고등학교	39.4	64.6	100.0 (13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2.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1.1%, 적절한 편이다 20.2%, 보통이다 46.3%,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30.5%,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9%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21.3%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과내용에 대한 개편이나 수업지도 방안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8.6%포인트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는 응답비율 39.5%로 조금 높았다. 담당교과별로는 기술·가정, 과학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5-22 참조).

〈표 5-22〉 교사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절	적절한 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	계(명)	평균 ¹⁾
전체	1.1	20.2	46.3	30.5	1.9	100.0 (367)	2.88
지역						$\chi^2=9.3$	
대도시	1.2	13.9	50.9	32.4	1.7	100.0 (173)	2.80
중소도시	1.3	26.3	41.0	29.5	1.9	100.0 (156)	2.96
농촌	0.0	23.7	47.4	26.3	2.6	100.0 (38)	2.92
학교급						$\chi^2=20.4^{**}$	
초등학교	0.0	19.8	54.2	26.0	0.0	100.0 (96)	2.94
중학교	0.7	28.8	38.8	29.5	2.2	100.0 (139)	2.96
고등학교	2.3	11.4	48.5	34.8	3.0	100.0 (132)	2.75
담당교과 ²⁾							
국어	0.0	0.0	60.0	40.0	0.0	100.0 (5)	2.60
도덕	0.0	23.9	37.3	37.3	1.5	100.0 (67)	2.84
사회	0.0	11.1	36.1	38.9	13.9	100.0 (36)	2.44
과학	0.0	15.4	53.8	30.8	0.0	100.0 (13)	2.85
기술·가정	1.6	23.6	46.5	28.3	0.0	100.0 (127)	2.98
외국어(영어)	0.0	0.0	50.0	50.0	0.0	100.0 (4)	2.50
기타	4.8	14.3	52.4	23.8	4.8	100.0 (21)	2.90
초등학교	1.1	20.7	52.9	25.3	0.0	100.0 (87)	2.98

주: 1) 매우 적절하다=5, 적절한 편이다=4, 보통=3,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2,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1의 5점 척도에 의함.

2) 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이므로 χ^2 -test는 실시하지 않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매우 적합하다 0.5%, 적합한 편이다 14.4%, 보통이다 41.4%,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39.0%,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4.6%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은 14.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도시나 농촌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20.1%)고 응답하였다. 담당 교과별로는 과학, 기술·가정 교과의 교사들은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끌기에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 도덕 교과의 교사는 상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5-23 참조).

〈표 5-23〉 교사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학습자의 수준·흥미에 대한 적합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합	적합한 편	보통	적합하지 않은 편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	계(명)	평균 ¹⁾
전체	0.5	14.4	41.4	39.0	4.6	100.0 (367)	2.67
지역						$\chi^2=4.4$	
대도시	0.6	12.1	39.9	42.8	4.6	100.0 (173)	2.61
중소도시	0.6	17.3	42.3	35.9	3.8	100.0 (156)	2.75
농촌	0.0	13.2	44.7	34.2	7.9	100.0 (38)	2.63
학교급						$\chi^2=17.6^*$	
초등학교	0.0	14.6	51.0	33.3	1.0	100.0 (96)	2.79
중학교	0.7	19.4	40.3	35.3	4.3	100.0 (139)	2.77
고등학교	0.8	9.1	35.6	47.0	7.6	100.0 (132)	2.48
담당교과 ²⁾							
국어	0.0	0.0	20.0	60.0	20.0	100.0 (5)	2.00
도덕	0.0	11.9	38.8	44.8	4.5	100.0 (67)	2.58
사회	0.0	11.1	33.3	38.9	16.7	100.0 (36)	2.39
과학	0.0	23.1	69.2	7.7	0.0	100.0 (13)	3.15
기술·가정	0.8	16.5	37.0	42.5	3.1	100.0 (127)	2.69
외국어(영어)	0.0	0.0	25.0	75.0	0.0	100.0 (4)	2.25
기타	4.8	9.5	38.1	38.1	9.5	100.0 (21)	2.62
초등학교	0.0	16.1	52.9	29.9	1.1	100.0 (87)	2.84

주: 1) <표 5-22>와 동일.

2) 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이므로 χ^2 -test는 실시하지 않음.

3)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3.4%, 필요한 편이다 23.6%, 보통이다 2.7% 등으로 교사 대부분이 학교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표 5-24 참조).

〈표 5-24〉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보통	필요하지 않은 편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계(명)	평균 ¹⁾
전체	73.4	23.6	2.7	-	0.3	100.0 (368)	4.70
지역							
대도시	75.9	23.6	0.6	-	0.0	100.0 (174)	4.75
중소도시	69.2	26.3	4.5	-	0.0	100.0 (156)	4.65
농촌	78.9	13.2	5.3	-	2.6	100.0 (38)	4.66
학교급							
초등학교	77.3	19.6	3.1	-	0.0	100.0 (97)	4.74
중학교	71.2	25.2	2.9	-	0.7	100.0 (139)	4.66
고등학교	72.7	25.0	2.3	-	0.0	100.0 (132)	4.70
담당교과							
국어	40.0	60.0	0.0	-	0.0	100.0 (5)	4.40
도덕	67.2	31.3	1.5	-	0.0	100.0 (67)	4.66
사회	69.4	22.2	5.6	-	2.8	100.0 (36)	4.56
과학	53.8	38.5	7.7	-	0.0	100.0 (13)	4.46
기술·가정	75.6	22.0	2.4	-	0.0	100.0 (127)	4.73
외국어(영어)	75.0	25.0	0.0	-	0.0	100.0 (4)	4.75
기타	85.7	14.3	0.0	-	0.0	100.0 (21)	4.86
초등학교	78.4	18.2	3.4	-	0.0	100.0 (88)	4.75

주: 1) 매우 필요하다=5, 필요한 편이다=4, 보통이다=3, 필요하지 않다=2, 전혀 필요하지 않다=1의 5점 척도에 의함.

2) 빈도가 5이하인 셀이 20% 이상이므로 χ^2 -test는 실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할 때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24.7%,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른다 17.4%, 현실이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13.0%의 순이었다(표 5-25 참조). 이는 성교육 자료의 질적·양적 부족이나 활용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제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양혜경, 1996; 정금희, 1999)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금희 외(2000)가 초·중·고등학교 양호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수 성교육 자료 추천시 구입하겠는가’는 질문에 81.0%가 구입 의사가 있다고 밝혀 현장에서의 자료 부족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성교육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교육 내용 또는 교육 방법 등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담당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5-25〉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수업 시 애로 사항

(단위: %, 명)

구분	내용 진부	보조자료 부족	가치관 차이	수업방법 모름	기타	모르겠다	없음	계(명)
전체	24.7	35.3	13.0	17.4	5.4	1.4	2.7	100.0 (368)
지역								$\chi^2=3.2$
대도시	25.3	34.5	14.4	16.7	5.2	1.1	2.9	100.0 (174)
중소도시	24.4	34.6	11.5	18.6	6.4	1.9	2.6	100.0 (156)
농촌	23.7	42.1	13.2	15.8	2.6	0.0	2.6	100.0 (38)
학교급								$\chi^2=35.4^{***}$
초등학교	14.4	35.1	10.3	30.9	6.2	0.0	3.1	100.0 (97)
중학교	21.6	40.3	13.7	11.5	5.8	2.9	4.3	100.0 (139)
고등학교	35.6	30.3	14.4	13.6	4.5	0.8	0.8	100.0 (13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제 3 절 실태조사의 시사점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규모로 실시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대 이상으로 98% 이상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 성교육의 양적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학교 성교육 이외 학생들이 성관련 정보습득 경로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인

터넷(43.5%) 및 친구/선후배(22.2%)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선후배(33.1%), 부모/친인척(2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 해결방법으로 친구/선후배와 상담하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성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성 정보제공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응답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교사(99.7%)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중 66.4%가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은 성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성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76.8%가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성교육 교재 및 참고자료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성교육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보조 자료의 부족(35.3%), 성교육 내용의 진부(24.7%)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성문제 예방 및 해결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 혼전임신에 대한 태도에서 낳아야 한다가 28.2%, 기를 수 있는 경우 낳겠다는 응답이 49.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 OECD 국가와 같이 동거나 혼외 출생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수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와 같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성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요청된다.

제 6 장 학교 성교육 개선방안

제 1 절 학교 성교육 기본방향

1. 성교육의 의미

성교육은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함께 관련된 사회규범을 지도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지도 또는 대책이다. 인간의 성은 생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나아가 도덕적 측면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은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구조나 기능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은 건전한 남녀관계를 위하여 남녀가 제 각기 지니고 있는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성을 보는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교육은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인간교육 그리고 지(知), 덕(德), 체(體)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전인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성교육은 학교에서 국한되어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신적, 신체적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외국의 경우는 성교육에 관한 슬라이드·VTR 등 각종 시청각 자료가 개발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발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학교 성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돕는 교육이며, 사회나 집단의 일원으로서 뒤떨어지지 않는 인격완성을 위한 성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교육인 동시에 남녀가 원만하게 성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서 서로 다른 인격체와 만나 공동체를 이

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 성적 의사결정의 기술과 가치, 성의 주체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학교 성교육의 기본목표

향후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성교육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 교육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체득은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친척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가정 밖에서는 친구, 이웃 등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면서 행복한 집단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 습관을 배양한다.

둘째, 지적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 남녀의 심리적 특성과 역할, 남녀 간의 평등, 신뢰, 존경, 협력에 입각한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고 분별력 있는 성윤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성교육의 목표는 이미 형성된 기본 생활습관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성윤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목표는 첫째, 현실적이고 올바른 성지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이 몸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인정한다면 몸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성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때로 청소년들은 과학적 성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며 신체의 변화에 대해 흔히 당황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전달을 통해 불필요한 고민과 갈등을 제거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동시에 왜곡된 성지식을 교정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교육에서

는 사춘기 몸의 변화, 성기의 생리적 구조와 기능,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성문제를 예방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성문제에는 성폭력, 성병, 에이즈, 미혼 부모, 매매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성문제가 모두 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이나 성병은 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미혼 부모 문제나 매매춘 문제는 인간관계 교육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성교육에서 성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성교육은 주로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성교육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예방할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10대 임신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이며 사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건전한 성가치관, 성윤리 의식의 성숙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성적 의사결정력을 키운다. 성적 행위는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이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적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갈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과 자율이 함께 따르는 성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또래집단의 압력에 밀려서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행위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함과 당당함을 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성 표현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게 한다. 최근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많아짐에 따라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어린이들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똑같은 성 장면을 보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어른보다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생리적으로 성적 충동이 강한 시기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적 욕구를 통제하거나 건전한 방향을 발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왜곡된 성적

보로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더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음란 인쇄물이나 영상물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음란물을 접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직시하여 음란물의 사회적 의미와 상업성 등에 대해 다루고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접촉 소감이나 영향을 논의하게 하여 유해한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비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성평등 교육은 남녀의 생리적 구조와 작용이 다르다는 것이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남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할 부분과 배려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교육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가진 남녀 사이에 의사소통의 다리를 놓는 교육으로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섯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키운다. 여성과 남성의 성적관계를 다룰 때 제일 다루어야 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사랑의 열매이며 가정을 완성하고 인류를 유지 발전시켜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은 매우 자연스럽고 신비롭다. 그런데 우리의 성문화는 생명의 관점은 빠지고 성하면 유방, 성기, 섹시함 등이 먼저 연상되는 성기 중심적인 성문화가 근간을 이룬다. 성을 성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떼뗄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감춰야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성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성교육을 실시할 때 잘못된 성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일곱째, 인간관계 교육을 실시한다. 성이란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성에는 성적인 지식,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기나 성호르몬의 생리적 기능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 인간의 삶의 패턴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 가능성과 한계를 조건 지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교육은 인간관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위한 성교육은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와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는 남녀 양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등에 있어 각각 남녀의 결합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성 교육은 성지식을

전달하거나 성도덕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 속에 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의식 및 자각을 길러주어야 한다.

3. 학년별 성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실시되며,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지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자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② 부모, 형제, 친척과의 혈연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생활태도를 배운다. ③ 자신이 소중한 만큼 주변 친구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남녀 역할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한다. ⑤ 신체발달에 따른 정신적 성숙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나. 중학교

중학생 시기는 신체의 성장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에너지가 왕성하고, 신체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 변화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개인차도 현격하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개성신장을 도모하고, 지적 발달의 성숙과 원만하고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신체발달에 대한 남녀 간과 개인 차이를 알게 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바르게 이해시킨다. ②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른 성적 에너지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이를 승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자율적인 생활태도를 길러 준다. ③ 남녀관계에 있어서 평등성과 상호 존중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④ 순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성 윤리관을 갖도록 한다. ⑤ 남녀 각각의 성에 적절한 행동과 역할을 인식시킨다. ⑥ 이성교제, 사랑, 연애, 결혼, 가족 등의 개념

을 이해시킨다.

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기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준비기간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여 건전한 심신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하고,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도모해야 한다. 세부 학습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① 남녀의 신체구조의 차이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이해시킨다. ② 성기능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성윤리 의식을 고취시킨다. ③ 이성에 대한 관심, 사랑의 의미, 성생활, 피임 등을 이해시킨다. ④ 결혼이 갖는 의미와 가족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⑤ 새로운 생명체 탄생으로서의 임신의 중요성, 과정, 분만 및 육아 방법을 이해시킨다. ⑥ 가족계획의 기본개념을 이해시키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킨다.

제 2절 학교 성교육 내용과 방법

1. 성교육 내용

첫째,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 내용을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매우 많은 시기이며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생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성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입각한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음성적인 성에 관한 호기심을 양성화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춘기의 성호르몬의 변화는 강한 성

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유발시켜 성적인 욕망이 증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증대되는 성적 욕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을 상품화하는 잘못된 사회적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지식전달이나 순결교육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과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없애주고 건전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성적인 삶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

넷째,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식을 가르친다. 성폭력의 심각한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즉, 각자의 신체는 각자의 것이므로, 타인에 의해 내 몸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또한 타인의 신체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2. 성교육 운영 방법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교육은 이론적이고 교과서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비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이 성 고민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수업형태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교육 시간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소규모 집단의 대화와 토론 및 논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교육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각 학생들의 의식, 윤리, 도덕의 문제는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나누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의 해결과 대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

효과적이다.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서는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 보다는 실제 경험사례가 많이 인용되어야 한다.

성교육 담당자로는 주로 기술가정과 교사,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이며 현재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 성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성교육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성교육은 특정 교사에 국한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제 3 절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학교, 보건소, 청소년 상담기관, 청소년 이용기관, 민간단체 등이다. 이들 기관 간에 효율적인 연계가 구축될 때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의 성교육 관련 사업의 효과성은 단순히 개별 기관들이 효과성을 합한 것 이상의 조직간 연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효과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개별 기관들에 의하여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성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수요자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파편화된 욕구를 확대 재생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갖는 장점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나열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교육을 추진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간의 연계방식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지역사회 성교육의 연계방안을 [그림 6-1]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제시된 방안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 지역사회 연계모형

가. 지역사회 연계 기본방향

지역사회 연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교육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 청소년이며, 여기에는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청소년, 비 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 지역사회내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부모, 주민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년 성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특성 및 위태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연계의 주체는 보건소이며, 지역사회 내 모든 가용자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는 지역사회내 관련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서비스 제공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청소년 성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으로는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청, 지역 대학, 학부모, 경찰서(파출소), 노동부(지방노동담당기관), 시·군·구 사회복지과, 인구보건복지협회(지부), YMCA, YWCA, 청소년 종합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아동상담소,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및 농촌 등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소는 인접 지역의 이용 가능한 자원까지도 지역사회 자원연계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성교육 관련 서비스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어야 하고, 이들 서비스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속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로는 크게 사전예방적 교육상담서비스와 사후치료적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사전예방적 서비스에는 성교육, 성상담, 홍보, 정보 및 지식 제공 등이며, 사후치료적 서비스로는 성상담, 응급피임, 산전·산후 및 출산 보호, 인공임신중절 시술, 성병 치료, 일시보호, 재활교육, 사후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건소는 가급적 이용 가능한 자원과 협조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가 이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특히 투입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물적 자원으로는 성교육 책자, 자료, 영상물, 인체모형, 피임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인적 자원으로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성정체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체 상담요원(특히 보건소)의 전문적 성교육훈련이 요구되며, 추가적으로 성교육 전문인력 풀을 활용토록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상담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담자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상담비밀 유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청소년은 성변화 또는 성문제 발생 상황에 수치심을 가지거나 개인적인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상담 자체에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부담감 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상담내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에게조차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나. 기능과 역할

1)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청소년 성교육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성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젊은 여성들에게 임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내용은 그 동안 보건교육, 모자보건, 건강증진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학교 및 청소년 상담기관, 사회복지관, 보호시설 등에 성교육과 관련된 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나 상담 전문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건소는 미국의 CDC경우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범주에 청소년 성교육을 포함하여 지

역 내 학교 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민간단체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인데, 협회에서는 민간인대상 성교육과 함께 전문 성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 및 상담실을 두어 면접상담과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각 지회별로 실시하고 있어 성교육과 관련하여 민간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회 및 지회를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교육부, 대학과 연계하여 성교육 교재 및 자료를 개발하여 각 보건소에 보급하고, 보건소는 이를 각 연계그룹에 배포토록 한다. 그리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축적하거나 각 지역 보건소에서 처리된 성상담 관련 통계, 실제사례 등 자료를 생산하여 보건소에 보급토록 하고, 성상담에 필요한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상담기술을 대학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여 보급토록 한다. 또한 성교육 전문강사인력 풀을 구성하여 지역 보건소의 성교육강사 파견 요구시 공급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며, 성교육에 필요한 보건교육자료는 보건소로부터 대여 받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또는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성상담 교사를 지정하여 1차적인 성 상담을 담당하고, 2차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연계하며,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성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도록 한다.

한편 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부모는 자녀인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모세대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녀의 궁금증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성

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생리적 성에만 머물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성교육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방적 성환경과 성위해요인의 범람을 인식하고 성교육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소로부터 성교육을 받고 배포된 교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자녀의 성장과정 전반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습내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협의회를 통해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퇴폐유흥업소의 퇴치 등 성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제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4) 청소년 이용기관

현재 청소년 상담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은 일차적인 성 상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차적인 성 상담 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뢰하거나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문 성상담 센터에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미혼모 등 중대한 성문제 또는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에 대한 상담이 의뢰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과나 경찰과 연결하여 해결토록 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 단, 유의할 것은 동의없이 상담청소년의 신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기타 기관

학교와 연계하거나 학교와 별도로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은 성과 관련된 고민을 상담해주며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및 미혼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성문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성문제를 도와주는 기관은 오래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자리를 잡고 있으나 건강한 성에 대해 예방적인 측면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1)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접근성의 확대는 우선적으로 미흡,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금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적 행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성문제들을 기관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또래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거나 무허가 불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성관련 고민의 해결방법으로 ‘친구/선배’를 통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리닉, 서비스센터가 부재한 현실과도 연결된다. 우리사회도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을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국가에서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하는 방안은 청소년들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서비스를 꺼려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문제 해결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 ‘청소년전문 성 클리닉’의 운영은 청소년 성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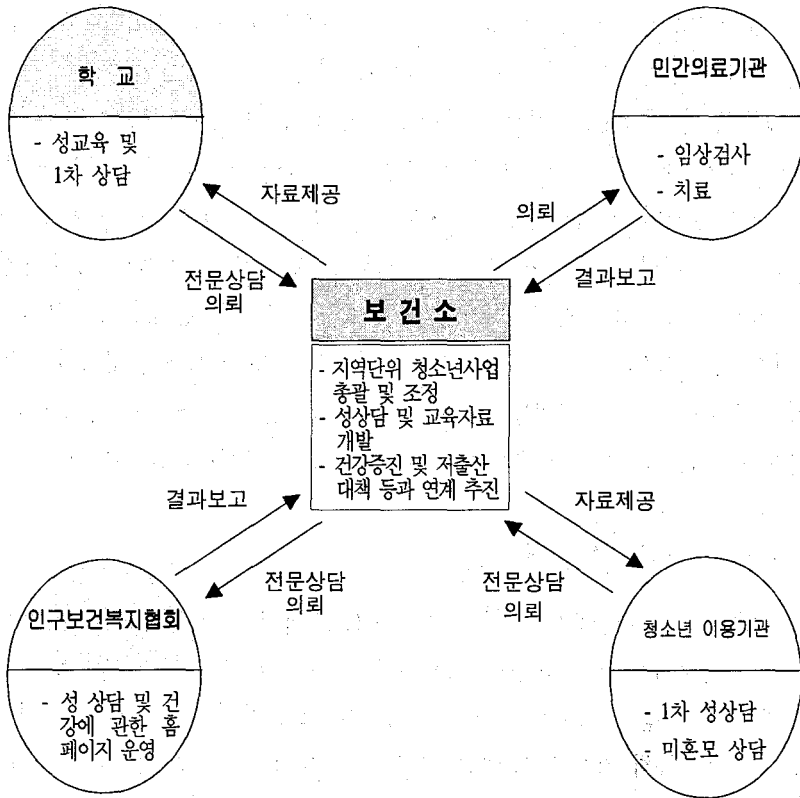
(2) 사이버 성상담 지원 강화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10대~20대 라이프스타일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자들의 학력이 대부분 고졸 이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특히 청소년 성상담이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민간단체의 「청소년 성상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이버를 통한 성상담과 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홍보·교육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갖는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제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자녀 성상담, 각종 성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성건강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6-1] 지역사회성의교육사업의 연계방안



제 7 장 결 론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중 성교육은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을 통해 지도하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성교육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성교육 지침 및 자료의 보급과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법적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재하여 학교 성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성교육과 관련된 법체제의 구축, 성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운영체제가 구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여 정부의 행정조직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결혼, 가족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형과 저출산 및 고령사회 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등 대부분의 시책 내용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들의 성교육 내용도 저출산 대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규모로 실시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교육의 내용이 학생의 성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의 양적 제공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조사에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교사가 인정하고 있으나, 교과서 성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성교육 내용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성교육 수업시 교사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으로 보조 자료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성교육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각국의 여건에 따라 학교 성교육의 추진 방식이 상이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고, 미국 질병예방관리본부(CDC)가 주관하는 포괄적인 성교육은 건강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한 성교육 이외에 전국의 보건소 조직망을 통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보건소, 학교, 가정이 삼위일체가 된 성교육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향후 올바른 학교 성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각각 분리된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성교육이 인구교육에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된 인구교육과 성교육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이나 특별활동을 통한 성교육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형태의 인구교육의 법제화나 별도의 정규교과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는 시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교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급 교과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강해야 하며, 인구 및 성교육을 위한 교과서, 지침서, 기타 교육보조자료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성교육은 교과내용에 분산하여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풀어주고 청소년들이 성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구 및 성교육은 교사나 부모의 언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가 인구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적 지식을 겸비 될 수 있도록 연

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학부모가 성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두루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 자료의 경우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으므로 자료 내용에 관한 검증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자료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성교육을 포함하는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성교육을 포함한 인구교육은 학교에서 추진되지만 성상담 및 관련 서비스는 관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소는 청소년에 대한 성보건 사업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성교육이 보건소와 학교와 가정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성교육 관련 강연회, 세미나, 성평등에 관한 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건전한 미래세대의 육성)에는 성교육과 관련된 세부실천계획의 보완과 더불어 학교, 보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각급 학교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수과정의 신설과 다양한 연수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및 성교육은 학교생활전반에 걸쳐 모든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상기 「학교인구교육개발센터(가칭)」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동 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보급과 강사 양성교육만을 전담하고 지역단위의 강사진이 교사의 연수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각급 교육원에서 실시되는 훈련사업의 강사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행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중심으로 성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성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초혼연령의 상승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불임부부의 증가, 임신소모율의 증대, 저출산 및 기형아의 증가 등 인구자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20대 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동기조성에 역점을 두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단계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인구교육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문호, 「남·여 고등학생들의 성 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고진배, 「고등학교 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공세권·이시백·손애리·한의정·윤영옥·문상식·이종준,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교육 접근 모형 개발』, 보건복지부, 2000.
- 교육부, 『교육부 2000년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 2000.
-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 운영 지침』, 1993.
-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 교육인적자원부,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 교사용지침서, 2001.
- 구자옥, 「중등학교 성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구자혁, 「중학생들의 성의식 수준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실태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 1998.
- 권이중, 『청소년 교육론』, 양서원, 1998.
- 김경신,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 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 제1호, 2001.
- 김두섭,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 김미숙,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미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0(2), 1997, pp.137 ~ 156.
- 김미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상원, 『남자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 성문화 연구소, 1997.
- 김성애, 「고등학교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승권, 『생식보건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접근모형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1.
- 김은영, 「고등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정옥, 『청소년 성교육』, 양서원, 2001.
- 김준형, 「한·일간의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성교육 방안 제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중규, 「성교육의 방향과 방법」, 『충북교육』, No.131,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1998.
- 김태련, 『성의 심리학』, 이화여대 출판부, 1992.
- 김현아, 「여자고등학교 생물교육과정에서 성교육 관련 학습지도안의 개선」,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혜원·이해경,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0.
- 김혜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강원교육』, 제155호, 1997.
- 김화자·남선영·정연강·박경숙,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관한 인식과 성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8(2), 1995.
- 남명희,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0(1), 1999, pp.239 ~ 251.
- 류수자, 「초등학생의 성의식 분석-학년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맹현주, 「비디오 테이프를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문인자·조옥희·김효심,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Vol.9, No.1, 1997.
- 문인자,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경숙, 「여자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박성정,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준희, 『성교육』, 서울: 교육출판사, 1987.
- 박효정, 『성교육 지도 지침 및 자료 개발 연구(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2000.
- 배운성,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서울특별시교육청, 『2006학년도 성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서울시, 2006.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연구 시범학교 운영보고집』, 1997.
- 안창선·김현옥, 『학교 성교육』, 교육과학사, 1992.
- 양해경, 『학교 성교육의 실태분석 및 방안』,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1996.
- 윤가현, 『성심리학』, 성원사, 1990.
- 이규숙, 「고교생의 성 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고교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문희,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삼식,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pp.54~61.
- 이시백, 「학교 성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성교육 세미나 자료, 교육부 여성교육 정책담당관실, 2000.

- 이영자, 「학교 청소년 간호」, 『대한간호』, 24(3), 1985, pp.23~28.
- 이채희·정민자, 「중학생을 위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생활과 학논문집』, Vol.1, No.2, 울산대학교, 2000.
- 이채희·정민자, 「중학생을 위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울산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논문, 2000.
- 이화연, 『우리 아이들 성교육 어떻게 할까』, 돌베개, 1991.
-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소년 상담실 활동 실적」, 내부자료, 2005.
- 장경숙, 「성교육 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장지옥, 「중학생의 성지식 및 성교육 실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금희, 「성교육 매체활용」, 성건강 관리 지도자 교육 워크샵 교재, 1999.
- 정금희,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 자료의 활용 실태와 평가」, 『아동간호학회지』, 제8권 제3호, 2000.
- 정윤영, 「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하영희,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경희, 「중등 학생의 성지식 실태와 성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과과정에서의 성 내실화 방안 연구』,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2006.
- 한국부모교육학회, 『성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8.
- 한국여성개발원, 『중학생 학부모용 읽기 자료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교육과 윤리』, 제1집, 1991.
- 홍봉선·남미애,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3.
- 文部省, 「學校における性教育の考え方」, 進め方, 1999, pp.1~83.
- 천전徹朗, 「思春期を生きる力の育成 ライフスキル教育が目指すもの」,

- 公衆衛生, 63, 1999, pp.456~457.
- 文部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東京, 1998.
- 文部省, 「中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東京, 1998.
- 文部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東京, 1999.
- 文部省, 「諸外國の初等中等教育」, 教育調査, 第128集, 『財務省印刷局』, 2002.
- 文部省, 「諸外國の學校教育(歐美編)」, 教育調査第122集, 『大藏省印刷局』, 1995, pp.175~178.
- ビヤネール多美子, 「スウェーデンの性と性教育, 1990-2000」, 十月舎, 東京, 2000, pp.105~107.
- WHO 編, 「川畑徹朗, 西岡伸紀, 高石昌弘」, 石川哲也監譯, JKY 研究會譯, 「WHO ライフスキル教育プログラム」, 大修館書店, 東京, 1997.
- 石川哲也・川畑徹朗・勝野眞語 他, 「平成12年度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報告書」, 『ライフスキル形成を基礎とする総合的健康教育 プログラムの開発 青少年の生きる力と健康行動調査』, 2001, 48.
- 石川哲也・川畑徹朗・勝野眞語 他, 「平成13年度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報告書」, 『ライフスキル形成を基礎とする総合的健康教育 プログラムの開発 青少年の生きる力と健康行動調査』, 2002, pp.49~50.
- 近森けいこ, 「ライフスキルの形成を基礎とする性教育プログラムの開発 - 青少年のライフスキルと性行動の實體に関する調査結果から -」, 『日本=性研究會談會報』, 13, 2002, pp.20~31.
- 森脇裕美子・石川哲也・田中彩美 他, 「アメリカ, イギリス及びスウェーデンにおける性教育に関する今日的な動向と日本における性教育との比較研究」, 『學校保健研究』, 45(3), 2003, pp.189~199.
- 中央教育審議會, 「21世紀を展望した我が國の教育の存り方について」, 『第一次答申』, 1996, pp.9~10.
- 日本學校保健會, 『みんなでいきるために—エイズ教育參考資料—』, 1996.

- Blos, Peter, 『On adolescence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NY: The Free press of Glencos, Inc., 1962.
- Bruess, Greenberg, *Sexuality Education-Theory and practice*, Macmillan pub Co, 1998.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rends in Sexual Risk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United States, 1999-2001",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U.S., 2002.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sessing Health Risk Behaviors Among Young People*, U.S., 2002.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 for Health Education and Risk Reduction Activities*, 1995.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National Healthy School Standard Guidance*, U.K., 1999.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Guidance*, U.K., 2000.
-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elines for Health Education and Risk Reduction Activies*, U.S., 1995.
- Erik Centerwall and Skolverket, "Love! You can really feel it, you know!", Sweden, 2000.
- Faiman, C. & Winter J. S. D., "Gonadotropin and sex patterns in puberty Clinical data", *Control of the onset of puberty*, NY: Wiley, 1974.
- Forsok & Fakta, *Biologi for grundskolans hogstdium*, Liber, Sweden, 1998.
- Great Britain, "Command of Her Majesty", *Teenage Pregnancy*, 6, 1999.
- Harris, A., "What does Sex Education Mean?", *Sex Education Rationale and Reaction*, R. S. Rogers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Hurlock, E. B,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1973.
- Jersild, Arthur Thomas,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 Macmillan, 1957.
- Joyce V. Fetro, *Personal & Social Skills Levell*, 17, CHES, ETR Associates, U.S., 2000.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Sweden and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compulsory school system, the preschool class and the
leisure-time centre*, Lpo94, 20, Sweden, 2001.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Sweden and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Non-Compulsory School System(Lpf94), Sweden, 2001.
-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Descriptive data on child care and school in
Sweden*, 2000.
-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Programme manual*, Sweden, 2001.
- National Governors' council, *Trigger pack For New Governors Third Edition*, U.K.,
2001.
-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 2nd Edition, 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SIECUS), U.S., 1996.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and
citizenship at key stages 1 and 2 Initial guidance for schools, U.K., 2000.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at
key stages 3 and 4 Initial guidance for schools, U.K., 2000.
- Schiller, P., *Creative Approach to Sex Educatio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73.
- SIECUS,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 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1996.
- Skolverket, *Equality in the schools*, Sweden.
- U.K., *Education Act*, 1996.
- U.K., *Education Reform Act*, 1998.
-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UNODDCP), *Lessons
Learned in Drug Abuse Prevention: A Global Review*, Mentor Foundation,
U.K., 2002, pp.9 ~ 14.

부 록

- [부록 1] 표본설계 개요
- [부록 2] 관련 부표
- [부록 3]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 [부록 4]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실태
조사(교사용) 조사표 양식

〔부록 1〕 표본설계 개요

1. 모집단

학교급별 모집단 수는 초등학교 6,206개교, 중학교 2,995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1,383개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738개교이다(부표 1-1 참조).

〈부표 1-1〉 전국의 지역별·학교급별 학교수

(단위: 학교)

학교급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	1,513	1,460	3,233	6,206	
중학교	919	769	1,307	2,995	
고등학교	인문계	535	488	360	1,383
	실업계	204	207	327	738
계	3,171	2,924	5,227	11,32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2. 표본추출 방법

최종 조사단위인 학생을 표본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령의 학생에 대한 학년, 이름, 성, 연령, 거주지 등에 대한 명부(표본틀)를 구축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은 표본틀 구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다단계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교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132개 표본 학교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은 초등

교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중치로 학교수를 배정하였다.

표본 학교 추출은 학교를 특성(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과 지역(시군구)에 의하여 분류한 후 학교의 학급수에 확률 비례한 계통추출로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다(부표 1-3 참조). 추출된 학교 내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은 난수표를 사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부표 1-2〉 전국 지역별·학교급별 학급수

(단위: 학급)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8,519	18,693	4,089	41,301
중학교(1~3학년)	25,749	25,145	5,078	55,972
인문고등학교(1~3학년)	18,518	16,072	2,398	36,988
실업고등학교(1~3학년)	6,577	7,570	2,467	16,614
계	69,363	67,480	14,032	150,8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부표 1-3〉 지역별 표본 학교수

(단위: 학급)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4	12	5	31
중학교(1~3학년)	22	20	5	47
인문고등학교(1~3학년)	19	15	4	38
실업고등학교(1~3학년)	6	6	4	16
계	61	53	18	132

3. 표본추출 결과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90개 학교에서 1.6%에 해당하는 132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가정 할 경우 약 12,775명이 조사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다(부표 1-4 참조).

〈부표 1-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단위: 천명, 개, %)

구분	모집단 학생수 (천명,%)	모집단 학교수 (개)	1.6% 표본학교 (개)	표본 학급수·학생수(추정)	
				표본학급수 (학년당 1학급)	표본학생수 (학급당 평균 35명 기준)
초(5~6학년)	1,380(26.8)	5,642	31	62	2,170
중(1~3학년)	2,010(39.0)	2,935	47	141	4,935
고(1~3학년)	1,763(34.2)	2,113	54	162	5,670
계	5,153(100)	10,690	132	365	12,775

4. 모집단 추정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표본추출 확률, 조사무응답 조정, 기지의 정보를 활용한 사후층화 과정을 거친다. 본 조사는 어떤 특성 Y 를 갖는 학생수에 대한 학령, 지역, 성별로 신뢰도 높은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층화추출로 조사되었으므로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총학생수를 가중표본합계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표본오차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① 학생 총수 추정용 승수 공식(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dot{M}_{hi} = \frac{N_h}{n_h} \frac{A_{hi}}{B_{hi}} \quad (1)$$

이 공식에서

$$M_{hi} = \text{학생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dots, 12$

i = 학급을 나타내는 첨자

j = 학급내의 학생을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학급수

A = 학급내 총학생수(미조사 학생 포함)

B = 조사완료 학생수

- ② 공식 (1)의 승수를 학급별 조사완료 학생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 모집단의 총학생수를 추정하였다.

$$\hat{B} = \sum_h \sum_i \sum_j M_{hi} B_{hij} \quad (2)$$

- ③ 조사완료학생수를 집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 = \sum_h \sum_i \sum_j B_{hij} \quad (3)$$

- ④ 공식 (2)의 총학생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학생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하였다.

$$W_{hi} = M_{hi} \left(\frac{B_{hi}}{\hat{B}_{hi}} \right) \quad (4)$$

-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학생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hat{Y} = \sum_h \sum_i \sum_j W_{hi} Y_{hij} \quad (5)$$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⑥ 층 h 에서의 추정치 $\hat{Y}_h$ 의 분산은

$$Var(\widehat{Y}_h) = \sum_i^{n_{hi}} N_{hi}^2 \left(\frac{N_{hi} - n_{hi}}{N_{hi}} \right) \frac{s_{hi}^2}{n_{hi}} \quad (6)$$

$$\text{여기서 } s_{hi}^2 = \frac{1}{n_{hi} - 1} \left(\sum_j^{n_{hi}} y_{hij}^2 - \frac{\left(\sum_j^{n_{hi}} y_{hij} \right)^2}{n_{hi}} \right)$$

$$\textcircled{7} \text{ 표본오차 } SE(\widehat{Y}_h) = [Var(\widehat{Y}_h)]^{1/2} \quad (7)$$

$$\textcircled{8} \text{ 상대표본오차 } RSE(\widehat{Y}_h) = \frac{SE(\widehat{Y}_h)}{\widehat{Y}_h} \cdot 100 \quad (8)$$

[부록 2] 부표

〈부표 2-1〉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교육내용 및 성교육 학습률

(단위: %, 명)

구분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피임 방법	임신/ 출산	미혼모/ 인공 유산	성병/ 에이즈	기타	성교육 학습률	(대상 자수)
전체	87.4	68.2	56.6	74.5	25.4	52.5	8.8	98.3	(11,244)
학교특성									
남학교	91.8	73.2	73.9	80.5	29.9	69.5	8.4	99.4	(1,881)
여학교	94.4	78.6	70.6	87.1	36.3	58.8	3.3	99.5	(2,140)
남녀공학	84.2	63.9	47.9	69.2	21.1	46.3	10.5	97.7	(7,222)
이성교제 경험									
있음	90.0	75.8	64.7	78.9	29.2	59.0	6.9	98.9	(5,250)
없음	85.4	61.7	49.6	70.7	22.2	46.9	10.3	97.8	(5,894)

〈부표 2-2〉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보통이 다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계(명)	평균 ¹⁾
전체	9.8	28.1	38.4	15.1	8.5	100.0 (10,995)	3.16
학교특성							
남학교	9.5	30.3	33.4	15.7	11.1	100.0 (1,863)	3.11
여학교	7.8	30.1	37.8	17.6	6.7	100.0 (2,125)	3.14
남녀공학	10.6	27.0	39.9	14.2	8.3	100.0 (7,007)	3.17
이성교제 경험							
있음	11.2	29.9	34.1	15.8	9.0	100.0 (5,169)	3.18
없음	8.7	26.6	42.2	14.5	8.0	100.0 (5,733)	3.13

주: 1) 매우 도움이 된다=5, 약간 도움이 된다=4, 보통이다=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2,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1
의 5점 척도에 의함.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도움이 되는 편임.

〈부표 2-3〉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학교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계(명)	평균 ¹⁾
전체	9.9	28.1	38.4	15.1	8.5	100.0 (10,973)	3.16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9.8	28.1	38.4	15.2	8.4	100.0 (10,522)	3.16
아버지만 생존	13.0	32.1	36.6	10.7	7.6	100.0 (131)	3.34
어머니만 생존	8.5	25.7	40.1	15.8	9.9	100.0 (284)	3.07
모두 사망	19.4	19.4	27.8	13.9	19.4	100.0 (36)	3.04
부모의 결혼 상태							
정상	9.7	28.0	38.5	15.4	8.5	100.0 (959)	3.15
이혼/별거	10.8	29.8	38.3	12.9	8.1	100.0 (9,513)	3.22
부의 학력 ²⁾							
중학교 이하	12.1	30.5	38.1	13.0	6.2	100.0 (1,012)	3.29
고등학교	9.5	29.6	36.7	15.8	8.5	100.0 (4,318)	3.16
대학교 이상	9.3	27.9	37.2	16.9	8.8	100.0 (3,705)	3.12
모르겠다	10.8	23.3	46.1	10.9	8.9	100.0 (1,590)	3.16
모의 학력 ³⁾							
중학교 이하	10.6	29.7	36.8	15.1	7.8	100.0 (1,187)	3.20
고등학교	9.6	29.0	37.7	15.8	8.0	100.0 (5,399)	3.17
대학교 이상	9.7	28.5	36.7	16.0	9.2	100.0 (2,489)	3.14
모르겠다	9.7	23.3	44.9	12.5	9.7	100.0 (1,677)	3.11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2.4	28.8	37.9	12.9	7.9	100.0 (4,260)	3.25
좋은 편	8.7	29.0	39.3	15.9	7.1	100.0 (4,227)	3.16
보통	6.9	26.4	38.6	17.7	10.4	100.0 (1,809)	3.02
나쁜 편	10.8	28.3	30.7	17.9	12.3	100.0 (212)	3.08
매우 나쁜 편	4.8	28.6	26.2	9.5	31.0	100.0 (42)	2.66
모르겠다	5.7	17.9	39.0	21.1	16.4	100.0 (318)	2.75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10.0	28.3	38.6	14.6	8.5	100.0 (6,832)	3.17
아버지만 취업	9.5	28.5	37.6	16.1	8.4	100.0 (3,302)	3.15
어머니만 취업	10.1	27.0	39.3	14.7	8.9	100.0 (496)	3.15
두분 모두 비취업	9.0	21.7	43.4	18.0	7.9	100.0 (267)	3.06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9.8	27.9	39.1	14.9	8.3	100.0 (8,033)	3.16
어머니	8.7	29.0	36.8	16.3	9.2	100.0 (1,532)	3.12
아버지	14.4	26.2	35.8	16.6	7.0	100.0 (187)	3.25
친(외)할머니	10.7	28.9	36.7	15.0	8.7	100.0 (1,008)	3.18
친(외)할아버지	11.1	31.1	33.3	13.3	11.1	100.0 (45)	3.17
기타	12.6	26.8	33.2	15.8	11.6	100.0 (190)	3.14

주: 1) <부표 2-2>와 동일.

2) 아버지가 안 계신 351명은 제외함.

3) 어머니가 안 계신 193명은 제외함.

〈부표 2-4〉 학교 성교육 수업내용별 성교육 내용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계(명)
전체	9.8	28.1	38.4	15.1	8.5	100.0 (10,996)
교육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10.2	29.3	37.6	15.1	7.9	100.0 (9,794)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11.4	31.1	37.0	13.4	7.1	100.0 (7,648)
피임방법	10.9	31.2	35.9	14.8	7.2	100.0 (6,347)
임신/출산	10.7	29.7	37.1	14.8	7.7	100.0 (8,351)
미혼모/인공유산	14.4	32.0	33.3	13.4	6.8	100.0 (2,852)
성병/에이즈	11.6	31.0	35.7	14.0	7.7	100.0 (5,893)
기타	13.2	22.7	41.2	12.9	10.1	100.1 (971)

〈부표 2-5〉 학교 성교육 내용 및 수업여부별 평균 성교육 도움 정도¹⁾

(단위: %, 명)

구분	(대상자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
전체	(10,996)	3.16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수업 경험 있다	(9,794)	3.19	1.06	74.30	0.000
수업 경험 없다	(1,202)	2.91	1.08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수업 경험 있다	(7,647)	3.26	1.06	247.95	0.000
수업 경험 없다	(3,349)	2.92	1.06		
피임방법					
수업 경험 있다	(6,348)	3.24	1.06	86.72	0.000
수업 경험 없다	(4,648)	3.05	1.07		
임신/출산					
수업 경험 있다	(8,350)	3.21	1.07	85.53	0.000
수업 경험 없다	(2,646)	2.99	1.06		
미혼모/인공유산					
수업 경험 있다	(2,851)	3.34	1.09	110.56	0.000
수업 경험 없다	(8,145)	3.09	1.05		
성병/에이즈					
수업 경험 있다	(5,893)	3.25	1.08	95.29	0.000
수업 경험 없다	(5103)	3.05	1.05		
기타 교육					
수업 경험 있다	(971)	3.16	1.12	0.02	0.896
수업 경험 없다	(10,025)	3.16	1.06		

주: 1) <부표 2-2>와 동일.

〈부표 2-6〉 성정보 습득방법별 학교 성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계(명)	평균 ¹⁾
전체	9.9	28.1	38.4	15.1	8.5	100.0 (10,988)	3.16
성정보 습득방법							
부모나 친인척	16.5	35.4	36.8	8.8	2.6	100.0 (1,189)	3.54
형제자매	18.1	42.5	26.0	7.1	6.3	100.0 (127)	3.58
친구나 선후배	8.5	29.7	36.9	16.3	8.7	100.0 (2,246)	3.13
비디오(CD, DVD)	15.8	30.5	32.8	13.0	7.9	100.0 (177)	3.32
인터넷(동영상)	11.0	28.6	29.3	18.2	12.9	100.0 (2,346)	3.07
TV	12.4	33.2	37.1	12.0	5.3	100.0 (1,022)	3.35
잡지, 만화	10.3	31.4	37.6	13.4	7.2	100.0 (194)	3.25
사회,종교단체 (청소년단체, 교회 등)	14.6	28.1	38.0	14.6	4.7	100.0 (171)	3.34
기타	7.9	24.9	49.9	11.6	5.8	100.0 (675)	3.17
없다	5.7	21.5	46.5	16.9	9.5	100.0 (2,840)	2.97

주: 1) <부표 2-2>와 동일.

〈부표 2-7〉 학생의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친구/ 선후배	비디오	인터넷	TV	잡지 만화	사회 종교 단체	기타	계(명)
전체	14.7	1.6	27.4	2.2	28.8	12.6	2.4	2.1	8.3	100.0 (8,254)
학교특성										
남학교	3.3	0.6	22.6	1.8	54.4	8.4	1.2	1.2	6.6	100.0 (1,549)
여학교	13.3	1.6	39.2	2.4	16.5	16.5	3.6	1.9	4.9	100.0 (1,648)
남녀공학	18.6	1.8	24.9	2.2	25.0	12.6	2.4	2.5	10.0	100.0 (5,058)
형제자매 수										
1명	12.8	1.0	26.4	2.9	31.0	12.1	2.2	3.1	8.6	100.0 (1,049)
2명	14.7	1.4	26.8	2.1	30.1	12.6	2.5	2.0	7.9	100.0 (5,220)
3명 이상	15.8	2.4	29.5	2.1	24.2	12.6	2.1	1.8	9.4	100.0 (1,96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3.7	4.5	16.7	5.1	28.2	8.3	1.3	0.6	11.5	100.0 (156)
잘 사는 편	19.7	1.8	22.4	3.1	27.2	10.4	2.9	2.1	10.4	100.0 (1,101)
보통이다	14.3	1.5	28.3	2.2	28.0	13.0	2.4	2.1	8.3	100.0 (5,297)
못 사는 편	11.1	1.0	29.7	1.6	33.3	13.8	2.4	2.0	5.1	100.0 (1,300)
매우 못 사는 편	4.2	2.5	30.8	0.8	37.5	12.5	1.7	3.3	6.7	100.0 (120)
모르겠다	17.3	2.2	22.9	0.4	28.0	8.9	2.2	3.0	15.1	100.0 (271)
이성교제 경험										
있음	11.8	1.9	31.4	2.5	31.0	11.5	1.9	1.9	6.1	100.0 (4,261)
없음	17.7	1.2	23.0	1.9	26.6	13.6	3.0	2.4	10.6	100.0 (3,922)

〈부표 2-8〉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학교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친구/ 선후배	비디오	인터넷	TV	잡지 만화	사회 종교 단체	기타	계(명)
전체	14.7	1.6	27.4	2.2	28.9	12.5	2.4	2.1	8.3	100.0 (8,254)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14.8	1.5	27.3	2.2	28.8	12.6	2.3	2.1	8.4	100.0 (7,902)
아버지만 생존	10.1	4.5	24.7	4.5	28.1	16.9	0.0	2.2	9.0	100.0 (89)
어머니만 생존	11.1	1.3	29.8	1.8	34.2	11.1	3.1	1.3	6.2	100.0 (225)
모두 사망	16.0	0.0	16.0	0.0	24.0	0.0	20.0	8.0	16.0	100.0 (25)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10.5	1.5	31.2	2.3	27.8	14.7	1.8	2.9	7.4	100.0 (789)
고등학교	12.2	1.6	30.0	2.2	30.6	13.2	1.9	2.1	6.3	100.0 (3,338)
대학교 이상	16.6	1.7	25.8	2.3	29.9	11.4	2.6	1.7	7.9	100.0 (2,833)
모르겠다	21.3	1.3	19.8	2.0	20.0	12.6	3.4	2.6	17.1	100.0 (1,017)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9.5	1.6	30.8	1.9	28.5	16.4	2.4	2.6	6.4	100.0 (941)
고등학교	13.3	1.4	29.6	2.1	30.1	12.8	1.9	2.1	6.7	100.0 (4,187)
대학교 이상	17.7	1.8	24.6	2.6	29.5	10.5	3.0	2.2	8.1	100.0 (1,898)
모르겠다	19.9	1.6	20.9	1.8	23.1	11.7	2.7	1.7	16.5	100.0 (1,060)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1	1.7	25.0	1.8	23.9	12.2	2.3	2.4	8.6	100.0 (3,062)
좋은 편	11.1	1.5	28.9	2.5	30.8	12.8	2.6	1.7	8.1	100.0 (3,239)
보통	8.8	1.2	28.6	2.5	34.0	13.3	1.7	1.8	8.2	100.0 (1,422)
나쁜 편	6.9	1.7	29.5	1.7	37.6	8.1	2.3	4.6	7.5	100.0 (173)
매우 나쁜 편	10.3	7.7	20.5	0.0	35.9	15.4	0.0	0.0	10.3	100.0 (39)
모르겠다	8.7	2.2	31.7	0.9	29.6	12.2	3.9	3.0	7.8	100.0 (230)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13.6	1.6	28.1	2.2	28.9	13.0	2.3	1.9	8.6	100.0 (5,107)
아버지만 취업	17.5	1.7	25.6	2.1	28.3	11.9	2.5	2.5	8.0	100.0 (2,481)
어머니만 취업	10.8	1.5	28.8	2.3	32.8	12.3	2.5	2.5	6.5	100.0 (399)
두분 모두 비취업	13.9	1.0	27.9	4.5	31.8	10.9	1.0	2.0	7.0	100.0 (201)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15.7	1.5	27.2	2.2	28.1	12.3	2.4	2.1	8.4	100.0 (6,015)
어머니	12.7	1.6	27.3	2.0	30.9	13.2	2.0	2.1	8.3	100.0 (1,154)
아버지	9.4	3.9	27.3	0.0	22.7	21.9	0.8	3.1	10.9	100.0 (128)
친(외)할머니	11.6	1.3	28.6	2.3	31.3	13.6	2.7	2.1	6.5	100.0 (779)
친(외)할아버지	6.1	3.0	30.3	6.1	39.4	30.0	3.0	3.0	6.1	100.0 (33)
기타	11.9	3.5	24.5	3.5	32.2	7.0	2.8	2.8	11.9	100.0 (143)

〈부표 2-9〉 학생의 특성별 성관련 고민 여부 및 해결 방법

(단위: %, 명)

구분	부모 상담	형제/ 자매	선생님	상담전 문가	친구/ 선배	성교육 관련 책	인터넷 PC	혼자 해결	기타	해결 못함	계(명)
전체	21.8	3.0	1.3	2.2	32.8	1.9	10.6	18.2	5.0	3.2	100.0 (5,904)
학교특성											
남학교	6.6	1.2	0.7	1.8	32.7	1.6	17.6	27.7	5.4	4.6	100.0 (1,033)
여학교	23.1	4.7	0.8	1.1	41.8	1.0	8.9	13.3	1.7	3.5	100.0 (1,088)
남녀공학	25.6	3.0	1.7	2.7	30.3	2.2	9.1	16.9	5.9	2.7	100.0 (3,785)
형제자매 수											
1명	20.1	2.1	0.9	2.5	32.7	2.4	10.9	19.5	5.6	3.2	100.0 (750)
2명	21.8	2.5	1.5	2.2	33.0	1.8	11.1	17.9	5.0	3.3	100.0 (3,709)
3명 이상	22.8	4.7	1.2	2.2	32.3	2.0	9.0	18.1	4.9	2.9	100.0 (1,43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6.7	3.1	2.3	4.7	24.2	1.6	6.3	11.7	7.8	1.6	100.0 (128)
잘 사는 편	32.7	3.4	1.9	1.8	25.6	2.6	9.8	14.5	5.4	2.3	100.0 (784)
보통	21.5	2.9	1.2	2.2	34.3	1.8	10.3	18.1	4.7	3.0	100.0 (3,732)
못 사는 편	13.9	2.3	0.9	2.3	35.7	1.4	12.2	22.0	4.7	4.7	100.0 (961)
매우 못 사는 편	11.3	5.2	0.0	2.1	27.8	5.2	14.4	22.7	5.2	6.2	100.0 (97)
모르겠다	18.8	4.1	2.5	3.6	26.9	2.5	11.2	16.8	10.7	3.0	100.0 (197)
이성교제 경험											
있음	16.0	3.0	1.1	2.1	43.5	1.7	10.2	15.8	3.6	2.9	100.0 (3,141)
없음	28.5	2.8	1.5	2.5	20.7	2.1	11.0	20.8	6.5	3.5	100.0 (2,714)

〈부표 2-10〉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 성관련 고민 여부 및 해결 방법

(단위: %, 명)

구분	부모 상담	형제/ 자매	선생님	상담전 문가	친구/ 선배	성교육 관련 책	인터넷 PC	혼자 해결	기타	해결 못함	계(명)
전체	21.8	3.0	1.3	2.2	32.8	1.9	10.6	18.2	5.0	3.2	100.0 (5,904)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22.0	2.9	1.3	2.2	33.1	1.9	10.5	18.0	4.9	3.2	100.0 (5,649)
아버지만 생존	20.8	11.7	1.3	7.8	26.0	1.3	9.1	13.0	7.8	1.3	100.0 (77)
어머니만 생존	15.0	1.3	1.3	2.0	27.5	1.3	14.4	26.1	7.2	3.9	100.0 (153)
모두 사망	10.0	0.0	5.0	0.0	30.0	0.0	0.0	25.0	30.0	0.0	100.0 (20)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22.8	2.8	1.4	2.2	33.0	1.8	10.5	17.8	4.7	3.1	100.0 (5,076)
이혼/별거	16.0	4.8	0.2	2.2	34.0	3.0	9.8	20.0	5.9	4.1	100.0 (539)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16.1	4.4	2.2	2.9	36.8	2.4	9.2	18.3	5.0	2.7	100.0 (595)
고등학교	18.7	2.9	1.1	2.0	37.0	1.5	11.5	17.6	4.0	3.6	100.0 (2,374)
대학교 이상	24.2	2.8	1.0	2.0	31.3	2.1	11.0	18.7	4.0	2.8	100.0 (1,970)
모르겠다	30.9	3.2	2.2	3.1	21.7	2.5	6.7	16.7	9.9	3.1	100.0 (771)
안 계심	15.7	1.1	2.2	2.2	27.0	1.1	13.5	24.9	9.2	3.2	100.0 (185)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14.7	3.5	1.7	2.0	38.9	1.1	11.6	18.8	4.3	3.4	100.0 (714)
고등학교	19.4	2.9	1.1	2.2	35.8	1.8	10.9	18.3	4.2	3.4	100.0 (2,914)
대학교 이상	26.9	2.7	1.1	1.9	29.9	2.4	10.6	18.2	3.7	2.6	100.0 (1,327)
모르겠다	28.9	2.7	2.0	2.6	22.6	2.3	8.0	17.7	9.8	3.4	100.0 (817)
안 계심	20.4	8.3	2.8	5.6	25.9	0.9	9.3	14.8	11.1	0.9	100.0 (108)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3.8	2.7	1.6	2.4	27.7	1.8	7.6	15.6	5.0	1.8	100.0 (2,238)
좋은 편	16.3	3.0	1.2	2.0	36.9	1.9	12.0	18.9	4.8	3.0	100.0 (2,244)
보통	12.2	3.1	0.5	2.5	35.6	1.6	14.0	20.7	4.7	5.0	100.0 (1,034)
나쁜 편	10.3	3.7	1.5	0.7	34.6	3.7	11.8	23.5	6.6	3.7	100.0 (136)
매우 나쁜 편	0.0	3.3	0.0	0.0	26.7	10.0	6.7	33.3	13.3	6.7	100.0 (30)
모르겠다	9.0	3.8	3.2	3.2	34.0	1.9	9.6	20.5	4.5	10.3	100.0 (156)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20.3	3.3	1.4	2.4	33.9	2.1	10.5	17.9	5.0	3.1	100.0 (3,695)
아버지만 취업	26.2	2.4	0.9	2.3	30.6	1.9	10.4	17.3	4.7	3.4	100.0 (1,732)
어머니만 취업	15.5	2.9	1.8	1.8	35.7	0.7	10.5	23.5	4.7	2.9	100.0 (277)
두분 모두 비취업	18.7	2.7	2.0	0.7	28.7	0.7	14.7	22.0	6.0	4.0	100.0 (150)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23.7	2.7	1.4	2.5	33.1	1.9	10.4	16.7	4.9	2.9	100.0 (4,251)
어머니	19.1	3.0	0.8	1.4	32.1	1.6	10.8	22.8	3.8	4.5	100.0 (837)
아버지	16.5	11.3	1.0	2.1	25.8	0.0	10.3	17.5	9.3	6.2	100.0 (97)
친(외)할머니	15.3	3.3	1.7	1.9	33.4	2.1	11.3	22.0	6.1	2.8	100.0 (574)
친(외)할아버지	11.5	11.5	0.0	0.0	30.8	7.7	11.5	19.2	3.8	3.8	100.0 (26)
기타	10.3	2.6	0.9	2.6	32.5	3.4	12.8	20.5	10.3	4.3	100.0 (117)

〈부표 2-11〉 학생의 특성별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92)	2.52
학교특성						
남학교	17.6	59.1	17.0	6.3	100.0 (1,878)	2.88
여학교	6.9	60.7	24.2	8.2	100.0 (2,139)	2.66
남녀공학	9.0	42.5	25.8	22.8	100.0 (7,176)	2.38
형제자매 수						
1명	11.0	48.6	23.8	16.7	100.0 (1,405)	2.54
2명	10.4	48.8	23.5	17.3	100.0 (7,099)	2.52
3명 이상	8.4	48.7	25.6	17.3	100.0 (2,657)	2.4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8.2	26.6	24.3	30.8	100.0 (214)	2.32
잘 사는 편	10.7	43.0	24.2	22.0	100.0 (1,526)	2.42
보통	9.1	50.4	24.4	16.0	100.0 (7,192)	2.53
못 사는 편	11.4	53.8	21.7	13.1	100.0 (1,651)	2.64
매우 못 사는 편	20.7	42.1	18.3	18.9	100.0 (164)	2.65
모르겠다	8.8	36.0	26.2	29.0	100.0 (431)	2.24
이성교제 경험						
있음	13.6	53.8	21.2	11.5	100.0 (5,236)	2.69
없음	6.9	44.4	26.3	22.3	100.0 (5,859)	2.36

주: 1) 매우 잘 안다=4, 아는 편=3, 모르는 편=2, 전혀 모른다=1의 4점 척도에 의함. 점수가 높을수록 잘 아는 편임.

〈부표 2-12〉 학생의 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8.8	33.8	32.0	25.4	100.0 (11,166)	2.26
학교특성						
남학교	11.2	35.5	33.6	19.7	100.0 (1,872)	2.38
여학교	7.8	42.8	32.0	17.4	100.0 (2,135)	2.41
남녀공학	8.5	30.7	31.5	29.3	100.0 (7,159)	2.18
형제자매 수						
1명	8.8	32.3	35.1	23.8	100.0 (1,404)	2.26
2명	9.3	34.3	30.9	25.6	100.0 (7,081)	2.27
3명 이상	7.5	33.5	33.1	25.9	100.0 (2,653)	2.22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7.3	25.2	23.4	34.1	100.0 (214)	2.25
잘 사는 편	10.4	31.1	29.1	29.4	100.0 (1,522)	2.23
보통	8.0	34.6	33.3	24.1	100.0 (7,178)	2.26
못 사는 편	9.9	37.6	28.2	24.3	100.0 (1,648)	2.33
매우 못 사는 편	14.2	27.2	32.1	26.5	100.0 (162)	2.29
모르겠다	6.8	22.4	38.0	32.9	100.0 (429)	2.03
이성교제 경험						
있음	10.6	36.0	32.4	20.9	100.0 (5,224)	2.36
없음	7.2	32.0	31.6	29.3	100.0 (5,849)	2.17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13〉 학생의 특성별 성병·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9.0	37.3	33.1	20.7	100.0 (11,131)	2.35
학교특성						
· 남학교	14.6	48.1	27.4	9.9	100.0 (1,867)	2.68
· 여학교	5.4	40.5	40.3	13.7	100.0 (2,130)	2.38
· 남녀공학	8.5	33.5	32.3	25.6	100.0 (7,133)	2.25
형제자매 수						
1명	11.1	39.2	31.4	18.3	100.0 (1,401)	2.43
2명	9.3	36.8	32.8	21.1	100.0 (7,051)	2.34
3명 이상	7.0	37.3	34.7	21.0	100.0 (2,648)	2.3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5.0	26.2	26.6	32.2	100.0 (214)	2.24
잘 사는 편	11.1	34.2	30.1	24.6	100.0 (1,515)	2.32
보통	8.0	38.0	34.0	20.0	100.0 (7,156)	2.34
못 사는 편	10.0	40.6	32.6	16.7	100.0 (1,642)	2.44
매우 못 사는 편	17.4	39.8	20.5	22.4	100.0 (161)	2.52
모르겠다	7.0	28.6	35.6	28.8	100.0 (427)	2.14
이성교제 경험						
있음	11.7	39.7	32.7	16.0	100.0 (5,211)	2.47
없음	6.6	35.2	33.4	24.8	100.0 (5,824)	2.24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14〉 학생의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7.5	63.1	14.4	5.1	100.0 (11,091)	2.93
학교특성						
· 남학교	28.4	62.9	7.0	1.7	100.0 (1,864)	3.18
· 여학교	14.5	71.9	12.0	1.6	100.0 (2,126)	2.99
· 남녀공학	15.5	60.5	17.1	7.0	100.0 (7,100)	2.84
형제자매 수						
1명	18.0	63.6	13.5	4.9	100.0 (1,397)	2.95
2명	18.3	62.7	14.4	4.7	100.0 (7,023)	2.95
3명 이상	15.0	64.0	15.0	6.1	100.0 (2,640)	2.8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8.9	42.2	17.1	11.8	100.0 (211)	2.88
잘 사는 편	19.8	58.6	15.3	6.2	100.0 (1,513)	2.92
보통	16.2	65.0	14.3	4.5	100.0 (7,127)	2.93
못 사는 편	20.3	65.0	11.5	3.2	100.0 (1,638)	3.02
매우 못 사는 편	21.1	57.1	12.4	9.3	100.0 (161)	2.90
모르겠다	12.4	51.9	23.5	12.2	100.0 (426)	2.65
이성교제 경험						
있음	22.6	62.8	11.5	3.2	100.0 (5,194)	3.05
없음	12.9	63.5	17.0	6.7	100.0 (5,804)	2.83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15〉 학생의 특성별 임신 및 출산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7.9	59.8	16.0	6.3	100.0 (11,080)	2.89
학교특성						
남학교	23.8	60.7	12.5	2.9	100.0 (1,862)	3.06
여학교	18.9	69.7	9.8	1.6	100.0 (2,122)	3.06
남녀공학	16.0	56.6	18.8	8.6	100.0 (7,097)	2.80
형제자매 수						
1명	17.3	60.1	16.4	6.2	100.0 (1,397)	2.89
2명	18.5	59.3	16.0	6.1	100.0 (7,027)	2.90
3명 이상	16.6	61.0	15.7	6.7	100.0 (2,629)	2.87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9.9	37.4	15.0	17.8	100.0 (214)	2.80
잘 사는 편	18.6	57.1	16.1	8.2	100.0 (1,510)	2.86
보통	16.7	61.4	16.3	5.6	100.0 (7,121)	2.89
못 사는 편	21.0	61.7	13.3	4.0	100.0 (1,636)	3.00
매우 못 사는 편	25.0	49.4	14.4	11.3	100.0 (160)	2.89
모르겠다	14.4	50.1	23.1	12.5	100.0 (425)	2.66
이성교제 경험						
있음	22.2	60.6	13.4	3.8	100.0 (5,181)	3.01
없음	14.2	59.2	18.3	8.3	100.0 (5,807)	2.79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16〉 학생의 가족특성별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78)	2.52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9.9	49.0	24.1	17.0	100.0 (10,708)	2.52
아버지만 생존	11.2	39.6	26.9	22.4	100.0 (134)	2.40
어머니만 생존	11.9	48.0	21.1	19.0	100.0 (294)	2.53
모두 사망	13.9	30.6	22.2	33.3	100.0 (36)	2.26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10.9	49.3	27.2	12.7	100.0 (1,019)	2.58
고등학교	9.9	53.8	23.1	13.1	100.0 (4,366)	2.61
대학교 이상	11.4	50.3	22.4	15.9	100.0 (3,775)	2.57
모르겠다	6.3	32.3	28.5	32.8	100.0 (1,654)	2.12
안 계심	12.3	45.1	20.9	21.7	100.0 (350)	2.48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10.7	53.2	24.0	12.1	100.0 (1,198)	2.62
고등학교	10.3	53.3	23.2	13.1	100.0 (5,463)	2.61
대학교 이상	11.0	49.3	22.0	17.7	100.0 (2,547)	2.54
모르겠다	6.9	31.7	29.3	32.1	100.0 (1,741)	2.13
안 계심	12.1	36.8	24.7	26.3	100.0 (190)	2.35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9.7	43.5	24.6	22.2	100.0 (4,344)	2.41
좋은 편	9.8	53.2	24.0	13.0	100.0 (4,282)	2.60
보통	10.1	51.4	23.9	14.6	100.0 (1,850)	2.57
나쁜 편	19.1	52.1	21.4	7.4	100.0 (215)	2.83
매우 나쁜 편	19.0	47.6	14.3	19.0	100.0 (42)	2.69
모르겠다	9.9	48.2	19.5	22.5	100.0 (334)	2.46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9.9	49.3	24.3	16.6	100.0 (6,936)	2.52
아버지만 취업	9.7	48.5	23.9	17.9	100.0 (3,379)	2.50
어머니만 취업	12.1	49.0	21.5	17.4	100.0 (506)	2.56
두분 모두 비취업	13.0	45.9	22.6	18.5	100.0 (270)	2.53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9.8	48.0	24.7	17.5	100.0 (8,178)	2.50
어머니	9.4	53.7	21.2	15.7	100.0 (1,554)	2.57
아버지	10.1	41.3	28.6	20.1	100.0 (189)	2.41
친(외)할머니	11.7	49.3	21.4	17.5	100.0 (1,026)	2.55
친(외)할아버지	8.7	60.9	19.6	10.9	100.0 (46)	2.65
기타	14.9	43.1	25.6	16.4	100.0 (195)	2.56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17.3	24.2	48.8	9.7	100.0 (9,687)	2.51
별거/이혼	14.7	22.3	51.1	11.9	100.0 (968)	2.60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17〉 학생의 가족특성별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8.8	33.8	32.0	25.4	100.0 (11,166)	2.26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8.8	34.0	32.0	25.2	100.0 (10,683)	2.26
아버지만 생존	9.1	25.0	37.9	28.0	100.0 (132)	2.15
어머니만 생존	8.5	31.7	30.7	29.0	100.0 (293)	2.20
모두 사망	11.1	22.2	25.0	41.7	100.0 (36)	2.02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8.9	36.5	34.5	20.1	100.0 (1,016)	2.34
고등학교	8.4	36.3	32.2	23.1	100.0 (4,351)	2.30
대학교 이상	10.6	35.2	30.7	23.5	100.0 (3,768)	2.33
모르겠다	5.6	23.2	32.8	38.4	100.0 (1,654)	1.96
안 계심	9.1	30.9	29.7	30.3	100.0 (350)	2.19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8.6	36.9	33.6	20.9	100.0 (1,192)	2.33
고등학교	9.2	36.3	32.0	22.5	100.0 (5,448)	2.32
대학교 이상	10.1	34.7	29.9	25.3	100.0 (2,542)	2.30
모르겠다	5.9	23.8	33.4	36.9	100.0 (1,743)	1.99
안 계심	10.1	25.4	33.9	30.7	100.0 (189)	2.15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9.1	32.0	29.1	29.7	100.0 (4,337)	2.21
좋은 편	8.3	36.4	34.1	21.2	100.0 (4,267)	2.32
보통	8.0	34.1	33.8	24.2	100.0 (1,848)	2.26
나쁜 편	13.7	33.0	33.5	19.8	100.0 (212)	2.41
매우 나쁜 편	25.6	27.9	18.6	27.9	100.0 (43)	2.50
모르겠다	10.5	27.1	32.2	30.1	100.0 (332)	2.18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9.0	33.8	31.8	25.5	100.0 (6,926)	2.26
아버지만 취업	8.5	34.3	32.6	24.7	100.0 (3,366)	2.26
어머니만 취업	7.7	33.1	33.9	25.3	100.0 (505)	2.23
두분 모두 비취업	9.7	34.3	28.4	27.6	100.0 (268)	2.26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8.5	34.2	31.8	25.5	100.0 (8,167)	2.26
어머니	9.3	33.6	32.7	24.4	100.0 (1,546)	2.28
아버지	8.5	31.4	33.5	26.6	100.0 (188)	2.22
친(외)할머니	9.9	31.9	31.5	26.7	100.0 (1,026)	2.25
친(외)할아버지	6.5	43.5	34.8	15.2	100.0 (46)	2.41
기타	13.5	29.2	31.8	25.5	100.0 (192)	2.31
부모의 혼인상태					100.0	
정상	8.7	33.9	32.1	25.3	100.0 (9,668)	2.26
별거/이혼	9.3	35.0	31.0	24.7	100.0 (964)	2.29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18〉 학생의 가족 특성별 성병·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9.0	37.3	33.1	20.7	100.0 (11,131)	2.35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8.9	37.3	33.1	20.7	100.0 (10,652)	2.34
아버지만 생존	10.8	36.2	32.3	20.8	100.0 (130)	2.37
어머니만 생존	9.9	40.4	30.8	18.8	100.0 (292)	2.42
모두 사망	8.8	20.6	26.5	44.1	100.0 (34)	1.93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9.7	42.8	32.9	14.6	100.0 (1,016)	2.48
고등학교	9.0	39.8	33.5	17.7	100.0 (4,340)	2.40
대학교 이상	10.3	38.3	31.5	20.0	100.0 (3,752)	2.39
모르겠다	5.4	25.0	35.7	33.8	100.0 (1,645)	2.02
안 계심	9.8	37.1	31.0	22.1	100.0 (348)	2.34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9.3	43.3	33.1	14.3	100.0 (1,190)	2.48
고등학교	9.3	40.1	32.7	17.9	100.0 (5,437)	2.41
대학교 이상	10.6	37.5	31.4	20.5	100.0 (2,532)	2.38
모르겠다	5.4	24.8	36.2	33.6	100.0 (1,731)	2.02
안 계심	10.2	31.0	32.1	26.7	100.0 (187)	2.25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9.1	33.5	32.5	24.9	100.0 (4,319)	2.27
좋은 편	8.4	42.0	33.6	16.0	100.0 (4,258)	2.43
보통	8.7	37.1	34.3	19.9	100.0 (1,843)	2.35
나쁜 편	16.9	33.8	31.5	17.8	100.0 (213)	2.50
매우 나쁜 편	23.3	20.9	30.2	25.6	100.0 (43)	2.42
모르겠다	8.7	34.3	28.9	28.0	100.0 (332)	2.24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8.9	37.7	33.1	20.2	100.0 (6,907)	2.35
아버지만 취업	9.2	36.2	33.2	21.4	100.0 (3,352)	2.33
어머니만 취업	8.4	42.0	31.5	18.1	100.0 (502)	2.41
두분 모두 비취업	10.4	34.7	32.5	22.4	100.0 (268)	2.33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8.8	37.5	33.2	20.5	100.0 (8,136)	2.35
어머니	8.4	36.8	34.0	20.8	100.0 (1,542)	2.33
아버지	11.3	31.2	34.9	22.6	100.0 (186)	2.31
친(외)할머니	10.1	37.0	31.2	21.6	100.0 (1,026)	2.36
친(외)할아버지	10.9	52.2	15.2	21.7	100.0 (46)	2.52
기타	13.0	33.7	31.6	21.8	100.0 (193)	2.37
부모의 혼인상태					100.0	
정상	9.0	37.2	33.1	20.7	100.0 (9,636)	2.34
별거/이혼	20.0	33.5	38.3	8.2	100.0 (964)	2.35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19〉 학생의 가족 특성별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7.5	63.1	14.4	5.1	100.0 (11,091)	2.93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17.4	63.3	14.4	5.0	100.0 (10,611)	2.93
아버지만 생존	19.1	55.0	16.0	9.9	100.0 (131)	2.82
어머니만 생존	19.1	63.8	13.7	3.4	100.0 (293)	2.99
모두 사망	18.2	42.4	15.2	24.2	100.0 (33)	2.56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18.1	66.7	12.0	3.3	100.0 (1,011)	3.00
고등학교	18.8	64.8	13.1	3.3	100.0 (4,324)	2.99
대학교 이상	19.0	64.4	12.1	4.5	100.0 (3,738)	2.98
모르겠다	9.7	53.8	24.5	12.0	100.0 (1,640)	2.61
안 계심	18.7	60.2	15.0	6.1	100.0 (347)	2.91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20.3	66.1	10.9	2.7	100.0 (1,187)	3.04
고등학교	18.8	65.0	12.9	3.3	100.0 (5,418)	2.99
대학교 이상	18.3	64.1	13.0	4.6	100.0 (2,524)	2.96
모르겠다	9.8	54.7	23.4	12.1	100.0 (1,722)	2.62
안 계심	18.3	50.5	18.3	12.9	100.0 (186)	2.74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7.5	60.5	15.7	6.4	100.0 (4,304)	2.89
좋은 편	17.1	66.3	13.3	3.3	100.0 (4,241)	2.97
보통	17.1	63.7	14.4	4.8	100.0 (1,841)	2.93
나쁜 편	25.6	62.1	8.1	4.3	100.0 (211)	3.09
매우 나쁜 편	35.0	52.5	2.5	10.0	100.0 (40)	3.10
모르겠다	16.5	59.6	14.7	9.2	100.0 (327)	2.84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17.7	63.0	14.5	4.8	100.0 (6,869)	2.94
아버지만 취업	16.8	63.5	14.3	5.3	100.0 (3,352)	2.92
어머니만 취업	18.4	64.3	13.8	3.6	100.0 (501)	2.97
두분 모두 비취업	18.7	62.5	13.5	5.2	100.0 (267)	2.94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16.9	63.2	14.8	5.1	100.0 (8,103)	2.92
어머니	18.7	64.3	12.9	4.1	100.0 (1,540)	2.98
아버지	15.7	60.5	17.3	6.5	100.0 (185)	2.85
친(외)할머니	19.6	62.6	12.8	5.0	100.0 (1,023)	2.97
친(외)할아버지	26.1	58.7	10.9	4.3	100.0 (46)	3.06
기타	19.9	54.5	16.2	9.4	100.0 (191)	2.84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17.1	63.4	14.5	5.0	100.0 (9,5996)	2.93
별거/이혼	20.0	62.4	13.1	4.5	100.0 (959)	2.98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20〉 학생의 가족특성별 임신 및 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7.9	59.8	16.0	6.3	100.0 (11,080)	2.89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17.9	60.0	15.9	6.2	100.0 (10,602)	2.90
아버지만 생존	21.4	45.8	22.1	10.7	100.0 (131)	2.77
어머니만 생존	16.0	61.8	18.4	3.8	100.0 (293)	2.90
모두 사망	23.5	32.4	14.7	29.4	100.0 (34)	2.49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19.9	61.4	14.8	4.0	100.0 (1,012)	2.97
고등학교	19.0	61.9	14.8	4.3	100.0 (4,318)	2.96
대학교 이상	19.2	61.6	13.5	5.7	100.0 (3,737)	2.94
모르겠다	11.2	49.3	25.5	14.0	100.0 (1,638)	2.58
안 계심	16.3	58.5	18.1	7.2	100.0 (349)	2.84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20.5	62.8	13.6	3.1	100.0 (1,188)	3.01
고등학교	19.0	62.5	14.2	4.3	100.0 (5,407)	2.96
대학교 이상	19.1	60.6	13.5	6.8	100.0 (2,525)	2.92
모르겠다	10.6	49.5	26.7	13.2	100.0 (1,722)	2.57
안 계심	20.0	44.9	20.0	15.1	100.0 (185)	2.70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8.9	56.5	16.6	8.0	100.0 (4,301)	2.86
좋은 편	17.2	63.1	15.5	4.2	100.0 (4,237)	2.93
보통	15.5	62.6	15.9	6.0	100.0 (1,834)	2.88
나쁜 편	24.9	55.4	14.6	5.2	100.0 (213)	3.01
매우 나쁜 편	30.2	44.2	7.0	18.6	100.0 (43)	2.86
모르겠다	19.8	53.5	18.5	8.2	100.0 (329)	2.85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17.9	59.8	16.3	6.0	100.0 (6,864)	2.90
아버지만 취업	17.9	60.0	15.3	6.8	100.0 (3,346)	2.89
어머니만 취업	17.1	62.3	16.3	4.4	100.0 (504)	2.92
두분 모두 비취업	19.1	59.9	14.2	6.7	100.0 (267)	2.92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17.6	59.9	16.2	6.3	100.0 (8,096)	2.89
어머니	18.1	61.5	14.8	5.6	100.0 (1,537)	2.92
아버지	15.5	54.5	24.1	5.9	100.0 (187)	2.80
친(외)할머니	19.3	60.0	13.9	6.8	100.0 (1,023)	2.92
친(외)할아버지	19.6	54.3	13.0	13.0	100.0 (46)	2.82
기타	22.0	48.2	22.0	7.9	100.0 (191)	2.85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17.7	60.0	16.1	6.2	100.0 (9,588)	2.89
별거/이혼	19.7	59.6	14.5	6.2	100.0 (961)	2.93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21〉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피임 방법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88)	2.52
성교육 경험						
경험 유	10.1	49.3	24.1	16.5	100.0 (11,001)	2.53
경험 무	4.8	13.4	20.3	61.5	100.0 (187)	1.61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10.5	52.0	23.1	14.4	100.0 (9,792)	2.59
교육 경험 무	6.8	25.9	30.5	36.8	100.0 (1,395)	2.03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11.8	54.7	21.8	11.7	100.0 (7,648)	2.67
교육 경험 무	6.2	35.8	28.8	29.2	100.0 (3,539)	2.19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14.3	66.6	16.0	3.1	100.0 (6,350)	2.92
교육 경험 무	4.4	25.4	34.5	35.8	100.0 (4,838)	1.98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11.2	54.8	22.0	12.1	100.0 (8,351)	2.65
교육 경험 무	6.6	30.9	30.1	32.4	100.0 (2,835)	2.12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18.1	62.6	14.3	5.1	100.0 (2,854)	2.94
교육 경험 무	7.3	44.0	27.3	21.4	100.0 (8,333)	2.37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13.6	58.6	19.7	8.1	100.0 (5,895)	2.78
교육 경험 무	6.0	37.7	28.9	27.4	100.0 (5,291)	2.22
기타						
교육 경험 유	13.7	36.9	22.3	27.1	100.0 (971)	2.37
교육 경험 무	9.7	49.9	24.2	16.3	100.0 (10,216)	2.53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22〉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8.8	33.8	32.0	25.4	100.0 (11,162)	2.26
성교육 경험						
경험 유	7.6	9.7	24.9	57.8	100.0 (185)	2.27
경험 무	8.8	34.2	32.1	24.9	100.0 (10,977)	1.67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9.0	35.7	31.8	23.5	100.0 (9,778)	2.30
교육 경험 무	7.2	20.4	33.0	39.4	100.0 (1,383)	1.95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10.1	37.3	32.1	20.5	100.0 (7,632)	2.37
교육 경험 무	5.9	26.4	31.7	36.1	100.0 (3,531)	2.02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11.2	41.4	32.0	15.4	100.0 (6,334)	2.48
교육 경험 무	5.6	23.9	31.9	38.6	100.0 (4,828)	1.97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9.7	37.4	32.1	20.8	100.0 (8,332)	2.36
교육 경험 무	5.9	23.3	31.7	39.1	100.0 (2,829)	1.96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16.1	49.6	25.3	9.1	100.0 (2,847)	2.73
교육 경험 무	6.3	28.4	34.3	31.0	100.0 (8,315)	2.10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11.0	40.0	31.5	17.5	100.0 (5,883)	2.44
교육 경험 무	6.3	27.0	32.5	34.2	100.0 (5,278)	2.05
기타						
교육 경험 유	12.6	28.9	27.0	31.5	100.0 (970)	2.23
교육 경험 무	8.4	34.3	32.4	24.8	100.0 (10,192)	2.26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23〉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성병, 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9.0	37.3	33.1	20.7	100.0 (11,126)	2.34
성교육 경험						
경험 유	9.0	37.8	33.2	20.0	100.0 (10,941)	2.36
경험 무	5.9	7.6	24.9	61.6	100.0 (185)	1.58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9.4	39.3	32.7	18.6	100.0 (9,751)	2.40
교육 경험 무	6.0	22.7	35.6	35.7	100.0 (1,375)	1.99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10.5	41.8	32.1	15.5	100.0 (7,613)	2.47
교육 경험 무	5.6	27.3	35.2	31.9	100.0 (3,513)	2.07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12.0	47.3	30.6	10.1	100.0 (6,320)	2.61
교육 경험 무	5.0	24.0	36.3	34.6	100.0 (4,804)	1.99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10.0	41.4	32.0	16.5	100.0 (8,312)	2.45
교육 경험 무	5.8	24.9	36.1	33.2	100.0 (2,814)	2.03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16.0	49.6	27.4	7.0	100.0 (2,839)	2.75
교육 경험 무	6.6	33.0	35.0	25.4	100.0 (8,287)	2.21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13.3	52.4	26.8	7.5	100.0 (5,867)	2.72
교육 경험 무	4.1	20.3	40.1	35.5	100.0 (5,258)	1.93
기타						
교육 경험 유	12.7	30.2	28.5	28.7	100.0 (963)	2.27
교육 경험 무	8.6	37.9	33.5	20.0	100.0 (10,163)	2.35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24〉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b)}
전체	17.5	63.1	14.4	5.0	100.0 (11085)	2.93
성교육 경험						
경험 유	17.6	63.7	14.2	4.5	100.0 (10,901)	2.94
경험 무	8.2	24.5	30.4	37.0	100.0 (184)	2.03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18.7	65.8	12.4	3.0	100.0 (9,716)	3.00
교육 경험 무	8.3	43.7	28.6	19.4	100.0 (1,369)	2.41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20.5	66.0	11.1	2.4	100.0 (7,588)	3.05
교육 경험 무	10.9	56.6	21.7	10.8	100.0 (3,496)	2.68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23.2	67.1	8.5	1.3	100.0 (6,301)	3.12
교육 경험 무	9.9	57.8	22.3	10.0	100.0 (4,784)	2.68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19.9	66.2	11.5	2.4	100.0 (8,284)	3.04
교육 경험 무	10.1	53.9	23.0	12.9	100.0 (2,800)	2.61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27.7	64.3	6.8	1.3	100.0 (2,831)	3.18
교육 경험 무	14.0	62.7	17.0	6.3	100.0 (8,255)	2.84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23.1	65.6	9.4	1.9	100.0 (5,851)	3.10
교육 경험 무	11.2	60.2	20.1	8.5	100.0 (5,235)	2.74
기타						
교육 경험 유	19.2	47.5	19.9	13.4	100.0 (957)	2.73
교육 경험 무	17.3	64.5	13.9	4.3	100.0 (10,127)	2.95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25〉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명)	평균 ¹⁾
전체	17.9	59.8	16.0	6.3	100.0 (11,075)	2.89
성교육 경험					$\chi^2=468.2$	
경험 유	18.1	60.4	15.9	5.7	100.0 (10,894)	2.91
경험 무	7.2	24.3	24.9	43.6	100.0 (181)	1.95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chi^2=885.4$	
교육 경험 유	19.1	62.4	14.3	4.1	100.0 (9,709)	2.97
교육 경험 무	9.0	41.0	28.5	21.5	100.0 (1,367)	2.37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chi^2=665.7$	
교육 경험 유	20.8	63.1	12.9	3.2	100.0 (7,577)	3.01
교육 경험 무	11.6	52.6	22.9	12.9	100.0 (3,498)	2.63
피임방법					$\chi^2=1136.3$	
교육 경험 유	23.2	65.1	10.1	1.6	100.0 (6,295)	3.10
교육 경험 무	10.9	52.8	23.9	12.4	100.0 (4,780)	2.62
임신, 출산					$\chi^2=1337.1$	
교육 경험 유	20.8	64.7	11.7	2.7	100.0 (8,280)	3.04
교육 경험 무	9.2	45.1	28.8	16.9	100.0 (2,796)	2.47
미혼모, 인공유산					$\chi^2=533.6$	
교육 경험 유	28.0	63.0	7.5	1.5	100.0 (2,826)	3.17
교육 경험 무	14.4	58.7	19.0	7.9	100.0 (8,249)	2.80
성병, 에이즈					$\chi^2=582.8$	
교육 경험 유	22.6	62.9	12.0	2.5	100.0 (5,843)	3.06
교육 경험 무	12.6	56.4	20.6	10.5	100.0 (5,231)	2.71
기타					$\chi^2=184.5$	
교육 경험 유	20.6	43.9	20.6	14.8	100.0 (959)	2.70
교육 경험 무	17.6	61.3	15.6	5.5	100.0 (10,116)	2.91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26〉 학교 외 성정보 습득 여부 및 방법별 성정보에 대한 평균 인지도¹⁾

구분	(대상수)	피임방법	인공유산 부작용	성병, 에이즈	신체적 구조	임신 출산 과정
학교 외 습득 경험 없다	(679)	2.13	2.00	2.03	2.61	2.59
학교 외 습득 경험 있다	(8,219)	2.66	2.35	2.46	3.05	3.00
부모나 친인척	(1,208)	2.36	2.28	2.21	2.89	2.94
형제자매	(125)	2.81	2.51	2.48	2.94	2.97
친구나 선후배	(2,251)	2.71	2.33	2.45	3.06	3.03
비디오(CD, DVD)	(180)	2.65	2.42	2.57	3.04	2.97
인터넷(동영상)	(2,373)	2.87	2.44	2.65	3.24	3.11
TV	(1,034)	2.57	2.34	2.39	2.96	2.97
잡지, 만화	(195)	2.62	2.44	2.36	3.01	2.97
사회단체, 종교단체	(175)	2.58	2.48	2.51	3.00	2.96
기타	(679)	2.38	2.17	2.31	2.80	2.74

주: 1) <부표 2-11>과 동일.

〈부표 2-27〉 학생의 특성별 남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급적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11,231)
학교특성						
남학교	15.7	41.3	25.4	9.4	8.2	100.0 (1,880)
여학교	32.0	44.9	16.7	1.5	4.9	100.0 (2,141)
남녀공학	27.7	39.9	14.2	3.8	14.3	100.0 (7,208)
형제자매 수						
1명	24.4	40.4	18.3	4.9	12.0	100.0 (1,417)
2명	25.7	41.2	16.8	4.4	12.0	100.0 (7,116)
3명 이상	30.0	41.3	15.0	3.8	9.9	100.0 (2,66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9.4	24.1	13.0	7.9	15.7	100.0 (216)
잘 사는 편	29.1	40.3	14.9	4.2	11.5	100.0 (1,534)
보통	26.4	42.6	16.3	3.8	10.9	100.0 (7,214)
못 사는 편	23.6	40.0	20.9	5.9	9.6	100.0 (1,654)
매우 못 사는 편	23.0	41.2	17.0	7.3	11.5	100.0 (165)
모르겠다	24.9	32.5	12.0	4.6	26.0	100.0 (434)
이성교제 경험						
유	22.4	42.5	21.2	6.1	7.7	100.0 (5,249)
무	30.3	39.8	12.5	2.7	14.8	100.0 (5,884)

주: <부표 2-26>과 동일

〈부표 2-28〉 학생의 가족특성별 남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급적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11,231)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26.8	41.2	16.4	4.3	11.4	100.0 (10,746)
아버지만 생존	20.7	37.8	17.8	5.9	17.8	100.0 (135)
어머니만 생존	20.3	41.2	22.3	5.2	11.0	100.0 (291)
모두 사망	23.7	39.5	18.4	2.6	15.8	100.0 (38)
부모의 혼인 상태						
정상	27.1	41.2	16.2	4.2	11.2	100.0 (9,722)
이혼/별거	23.6	40.5	18.3	4.9	12.7	100.0 (972)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26.9	44.0	15.9	4.2	9.0	100.0 (1,024)
고등학교	25.7	43.6	17.9	4.2	8.7	100.0 (4,378)
대학교 이상	27.0	40.6	17.3	5.3	9.8	100.0 (3,789)
모르겠다	28.7	34.0	10.5	2.5	24.4	100.0 (1,661)
안 계심	21.4	40.3	21.1	4.6	12.6	100.0 (350)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27.0	43.1	17.5	4.6	7.8	100.0 (1,199)
고등학교	26.3	43.1	17.9	4.2	8.5	100.0 (5,474)
대학교 이상	26.7	41.3	16.8	5.3	9.9	100.0 (2,561)
모르겠다	27.1	33.7	11.5	2.7	24.9	100.0 (1,749)
안 계심	22.8	37.3	16.6	4.7	18.7	100.0 (193)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3.9	38.4	12.4	3.1	12.3	100.0 (4,362)
좋은 편	22.9	44.8	18.7	4.3	9.3	100.0 (4,289)
보통	20.6	41.0	19.6	5.7	13.1	100.0 (1,855)
나쁜 편	15.8	37.7	27.4	8.8	10.2	100.0 (215)
매우 나쁜 편	15.9	29.5	20.5	20.5	13.6	100.0 (44)
모르겠다	18.5	33.3	21.1	8.3	18.8	100.0 (336)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26.2	41.4	16.9	4.3	11.3	100.0 (6,962)
아버지만 취업	27.7	40.7	15.7	4.2	11.7	100.0 (3,389)
어머니만 취업	21.5	41.9	19.8	5.1	11.7	100.0 (506)
두분 모두 비취업	29.2	39.5	14.0	5.2	12.2	100.0 (271)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27.9	41.2	15.6	4.1	11.2	100.0 (8,206)
어머니	21.9	42.1	19.2	4.9	11.9	100.0 (1,559)
아버지	24.6	35.6	17.8	3.7	18.3	100.0 (191)
친(외)할머니	23.1	41.1	19.1	4.7	12.0	100.0 (1,031)
친(외)할아버지	23.4	42.6	12.8	8.5	12.8	100.0 (47)
기타	24.0	34.7	19.9	6.6	14.8	100.0 (196)

〈부표 2-29〉 학생의 특성별 여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급적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217)
학교특성						
남학교	30.1	41.9	17.1	3.3	7.5	100.0 (1,881)
여학교	38.3	41.5	14.9	1.5	3.7	100.0 (2,142)
남녀공학	34.0	38.4	11.1	2.2	14.3	100.0 (7,193)
형제자매 수						
1명	33.4	38.1	14.2	2.8	11.5	100.0 (1,413)
2명	33.1	39.7	13.3	2.2	11.7	100.0 (7,115)
3명 이상	37.4	39.8	11.0	2.3	9.6	100.0 (2,65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44.7	19.5	11.2	6.0	18.6	100.0 (215)
잘 사는 편	35.3	38.0	11.9	2.6	12.1	100.0 (1,525)
보통	34.0	40.9	12.6	2.0	10.5	100.0 (7,210)
못 사는 편	32.9	40.2	15.9	2.6	8.4	100.0 (1,651)
매우 못 사는 편	37.0	37.0	13.9	2.4	9.7	100.0 (165)
모르겠다	31.4	31.9	8.1	3.2	25.4	100.0 (433)
이성교제 경험						
유	32.8	41.0	15.9	3.2	7.1	100.0 (5,242)
무	35.4	38.4	10.1	1.5	14.7	100.0 (5,875)

〈부표 2-30〉 학생의 특성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8.4	22.5	34.6	34.5	100.0 (11,219)	2.05
학교특성						
남학교	16.6	32.6	31.9	19.0	100.0 (1,877)	2.47
여학교	2.9	19.8	33.5	43.8	100.0 (2,140)	1.82
남녀공학	7.8	20.7	35.7	35.7	100.0 (7,201)	2.01
형제자매 수						
1명	10.6	23.6	33.8	32.0	100.0 (1,410)	2.13
2명	8.7	22.8	35.1	33.4	100.0 (7,114)	2.07
3명 이상	6.2	21.2	33.7	38.9	100.0 (2,663)	1.9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6.4	21.0	24.8	37.9	100.0 (214)	2.16
잘 사는 편	8.6	20.9	34.4	36.1	100.0 (1,534)	2.02
보통	7.5	22.1	35.9	34.4	100.0 (7,209)	2.03
못 사는 편	9.9	27.1	29.6	33.5	100.0 (1,651)	2.13
매우 못 사는 편	18.3	22.6	31.1	28.0	100.0 (164)	2.31
모르겠다	8.1	19.2	38.9	33.8	100.0 (432)	2.02
이성교제 경험						
있음	11.8	26.9	31.1	30.2	100.0 (5,239)	2.20
없음	5.2	18.8	37.6	38.3	100.0 (5,879)	1.91

주: 1) 매우 찬성=4, 대체로 찬성=3, 별로 찬성 안함=2, 전혀 찬성 안함=1의 4점 척도에 의함.

〈부표 2-31〉 학생의 가족특성별 여자의 결혼 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급적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217)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34.5	39.5	12.7	2.3	11.1	100.0 (10,731)
아버지만 생존	29.9	33.6	15.7	2.2	18.7	100.0 (134)
어머니만 생존	27.5	43.3	16.8	2.4	10.0	100.0 (291)
모두 사망	21.1	50.0	10.5	5.3	13.2	100.0 (38)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34.8	39.4	12.4	2.3	11.1	100.0 (9,710)
이혼/별거	31.0	40.7	15.2	2.2	10.9	100.0 (967)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34.1	42.7	11.5	2.7	9.0	100.0 (1,024)
고등학교	35.0	41.5	13.6	1.9	7.9	100.0 (4,371)
대학교 이상	34.7	39.2	13.5	2.8	9.8	100.0 (3,787)
모르겠다	32.3	32.5	9.3	1.6	24.3	100.0 (1,657)
안 계심	26.9	43.4	16.3	2.6	10.9	100.0 (350)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34.3	43.1	12.8	2.3	7.5	100.0 (1,198)
고등학교	35.0	41.3	13.7	2.1	7.9	100.0 (5,468)
대학교 이상	34.9	39.1	13.0	2.9	10.1	100.0 (2,557)
모르겠다	30.9	32.7	9.7	1.8	24.8	100.0 (1,747)
안 계심	28.0	36.8	15.0	2.6	17.6	100.0 (193)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0.5	35.9	9.7	1.8	12.1	100.0 (4,355)
좋은 편	31.3	43.1	14.5	2.1	9.1	100.0 (4,287)
보통	28.5	41.6	14.6	3.2	12.1	100.0 (1,853)
나쁜 편	25.1	40.5	21.9	2.8	9.8	100.0 (215)
매우 나쁜 편	19.0	28.6	23.8	14.3	14.3	100.0 (42)
모르겠다	29.0	30.5	18.3	4.2	18.0	100.0 (334)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33.7	39.7	13.1	2.4	11.2	100.0 (6,957)
아버지만 취업	35.7	38.9	12.2	2.1	11.1	100.0 (3,382)
어머니만 취업	30.8	42.1	15.5	1.6	10.1	100.0 (504)
두분 모두 비취업	34.8	40.4	10.4	3.3	11.1	100.0 (270)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35.6	39.4	11.9	2.2	10.9	100.0 (8,196)
어머니	30.4	40.6	15.7	2.6	10.7	100.0 (1,555)
아버지	33.3	35.4	13.8	1.6	15.9	100.0 (189)
친(외)할머니	30.1	39.8	15.4	2.1	12.5	100.0 (1,030)
친(외)할아버지	33.3	46.7	8.9	0.0	11.1	100.0 (45)
기타	26.4	39.1	15.2	5.6	13.7	100.0 (197)

〈부표 2-32〉 학생의 가족특성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8.4	22.5	34.6	34.5	100.0 (11,219)	2.05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8.3	22.4	34.8	34.5	100.0 (10,735)	2.04
아버지만 생존	8.3	25.8	28.8	37.1	100.0 (132)	2.06
어머니만 생존	11.3	28.2	30.2	30.2	100.0 (291)	2.20
모두 사망	5.1	25.6	33.3	35.9	100.0 (39)	1.99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8.2	22.0	35.1	34.7	100.0 (9,710)	2.04
이혼/별거	9.2	25.4	31.5	33.9	100.0 (971)	2.10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7.5	23.8	34.7	34.0	100.0 (1,024)	2.05
고등학교	8.2	23.7	34.0	34.0	100.0 (4,374)	2.06
대학교 이상	9.6	22.8	33.9	33.7	100.0 (3,783)	2.08
모르겠다	6.2	17.1	38.7	38.1	100.0 (1,658)	1.91
안 계심	10.0	26.9	31.1	32.0	100.0 (350)	2.15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8.7	24.0	33.2	34.1	100.0 (1,199)	2.07
고등학교	8.4	23.7	33.9	34.0	100.0 (5,469)	2.06
대학교 이상	9.5	22.6	33.6	34.2	100.0 (2,557)	2.08
모르겠다	6.6	17.4	39.7	36.2	100.0 (1,749)	1.94
안 계심	6.8	24.6	30.9	37.7	100.0 (191)	2.00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6	17.8	34.5	40.1	100.0 (4,353)	1.93
좋은 편	7.5	24.2	36.4	31.8	100.0 (4,289)	2.07
보통	10.5	26.9	33.4	29.3	100.0 (1,855)	2.19
나쁜 편	14.6	34.9	25.9	24.5	100.0 (212)	2.40
매우 나쁜 편	15.9	38.6	15.9	29.5	100.0 (44)	2.42
모르겠다	14.1	27.8	27.2	30.8	100.0 (334)	2.25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8.9	22.7	34.7	33.7	100.0 (6,964)	2.07
아버지만 취업	7.2	21.6	34.7	36.5	100.0 (3,378)	2.00
어머니만 취업	9.1	25.6	33.4	31.8	100.0 (503)	2.12
두분 모두 비취업	10.0	24.4	34.4	31.1	100.0 (270)	2.13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7.8	21.7	35.0	35.4	100.0 (8,197)	2.02
어머니	9.1	24.9	35.0	31.0	100.0 (1,554)	2.12
아버지	6.8	21.6	33.7	37.9	100.0 (190)	1.98
친(외)할머니	10.4	25.6	30.4	33.7	100.0 (1,031)	2.13
친(외)할아버지	13.3	20.0	40.0	26.7	100.0 (45)	2.20
기타	13.8	23.1	34.9	28.2	100.0 (195)	2.22

주: 1) <부표 2-30>과 동일.

〈부표 2-33〉 학생의 특성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232)	1.83
학교특성						
남학교	4.8	15.1	38.0	42.2	100.0 (1,883)	1.82
여학교	4.8	22.6	37.0	35.6	100.0 (2,140)	1.97
남녀공학	3.9	16.5	35.2	44.5	100.0 (7,210)	1.80
형제자매 수						
1명	5.0	15.9	35.0	44.2	100.0 (1,413)	1.82
2명	3.9	17.1	36.0	43.0	100.0 (7,121)	1.82
3명 이상	4.5	19.0	36.6	39.8	100.0 (2,667)	1.8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8.4	10.7	25.1	55.8	100.0 (215)	1.72
잘 사는 편	4.6	14.8	34.0	46.5	100.0 (1,536)	1.77
보통	3.7	17.4	37.4	41.5	100.0 (7,217)	1.83
못 사는 편	5.5	21.1	34.1	39.4	100.0 (1,653)	1.93
매우 못 사는 편	4.8	20.6	30.3	44.2	100.0 (165)	1.85
모르겠다	4.4	13.9	34.9	46.9	100.0 (433)	1.76
이성교제 경험						
있음	4.7	18.9	36.6	39.8	100.0 (5,246)	1.89
없음	3.7	16.1	35.5	44.6	100.0 (5,885)	1.79

주: 1) <부표 2-30>과 동일.

〈부표 2-34〉 학생의 특성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7.1	26.3	40.2	26.4	100.0 (11,232)	2.14
학교특성						
남학교	8.8	31.8	39.3	20.2	100.0 (1,880)	2.29
여학교	5.5	24.0	41.7	28.9	100.0 (2,140)	2.06
남녀공학	7.2	25.6	39.9	27.3	100.0 (7,213)	2.13
형제자매 수						
1명	8.9	26.0	38.7	26.4	100.0 (1,412)	2.17
2명	6.9	27.4	40.3	25.4	100.0 (7,124)	2.16
3명 이상	6.8	23.8	40.5	28.9	100.0 (2,665)	2.08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9.8	22.3	27.9	40.0	100.0 (215)	2.02
잘 사는 편	6.8	24.8	39.5	28.9	100.0 (1,535)	2.09
보통	6.7	26.4	41.3	25.7	100.0 (7,216)	2.14
못 사는 편	8.5	28.4	38.4	24.7	100.0 (1,656)	2.21
매우 못 사는 편	13.4	28.0	28.0	30.5	100.0 (164)	2.24
모르겠다	8.1	24.0	40.2	27.7	100.0 (433)	2.13
이성교제 경험						
있음	9.9	29.4	38.2	22.5	100.0 (5,243)	2.27
없음	4.7	23.5	42.0	29.8	100.0 (5,889)	2.03

주: 1) <부표 2-30>과 동일.

〈부표 2-35〉 학생의 가족특성별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232)	1.83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4.1	17.4	36.1	42.4	100.0 (10,747)	1.83
아버지만 생존	6.7	16.4	37.3	39.6	100.0 (134)	1.90
어머니만 생존	5.8	20.9	34.2	39.0	100.0 (292)	1.93
모두 사망	13.2	10.5	21.1	55.3	100.0 (38)	1.85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4.0	17.2	36.3	42.5	100.0 (9,722)	1.83
이혼/별거	4.9	18.6	34.6	41.9	100.0 (970)	1.87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4.1	18.5	35.0	42.3	100.0 (1,025)	1.84
고등학교	4.1	18.0	36.6	41.2	100.0 (4,376)	1.85
대학교 이상	4.5	17.1	36.5	41.9	100.0 (3,790)	1.84
모르겠다	3.2	15.4	34.8	46.6	100.0 (1,662)	1.75
안 계심	6.6	19.1	31.7	42.6	100.0 (350)	1.90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4.2	20.2	34.7	40.9	100.0 (1,201)	1.88
고등학교	3.8	18.0	36.9	41.3	100.0 (5,472)	1.84
대학교 이상	5.6	17.2	35.2	42.0	100.0 (2,560)	1.86
모르겠다	2.9	14.5	35.6	46.9	100.0 (1,754)	1.73
안 계심	8.3	14.5	31.6	45.6	100.0 (193)	1.85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4	15.0	33.1	47.5	100.0 (4,365)	1.76
좋은 편	3.4	18.3	39.2	39.1	100.0 (4,293)	1.86
보통	4.3	19.9	37.1	38.6	100.0 (1,855)	1.90
나쁜 편	4.2	22.0	33.2	40.7	100.0 (214)	1.90
매우 나쁜 편	20.5	20.5	20.5	38.6	100.0 (44)	2.21
모르겠다	7.5	20.1	34.4	38.0	100.0 (334)	1.97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4.2	17.3	36.2	42.3	100.0 (6,968)	1.84
아버지만 취업	3.9	17.3	36.7	42.1	100.0 (3,382)	1.83
어머니만 취업	5.1	18.4	34.6	41.9	100.0 (506)	1.87
두분 모두 비취업	2.6	19.6	31.0	46.9	100.0 (271)	1.78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4.0	16.8	36.4	42.9	100.0 (8,211)	1.82
어머니	4.4	20.4	34.5	40.6	100.0 (1,553)	1.89
아버지	5.3	11.6	37.0	46.0	100.0 (189)	1.77
친(외)할머니	5.1	17.9	35.6	41.4	100.0 (1,034)	1.87
친(외)할아버지	0.0	15.2	37.0	47.8	100.0 (46)	1.69
기타	6.6	23.9	32.5	37.1	100.0 (197)	2.00

주: 1) <부표 2-30>과 동일.

〈부표 2-36〉 학생의 가족특성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명)	평균 ¹⁾
전체	7.1	26.3	40.2	26.4	100.0 (11,232)	2.14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7.2	26.1	40.3	26.4	100.0 (10,748)	2.14
아버지만 생존	8.2	26.1	41.0	24.6	100.0 (134)	2.18
어머니만 생존	6.2	32.9	35.6	25.3	100.0 (292)	2.20
모두 사망	10.5	23.7	34.2	31.6	100.0 (38)	2.11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7.0	26.2	40.4	26.5	100.0 (9,722)	2.14
이혼/별거	8.5	26.1	38.9	26.4	100.0 (972)	2.17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7.0	26.8	41.8	24.4	100.0 (1,024)	2.16
고등학교	7.5	26.1	41.4	25.1	100.0 (4,379)	2.16
대학교 이상	7.6	26.8	38.5	27.1	100.0 (3,789)	2.15
모르겠다	5.5	24.4	40.2	29.9	100.0 (1,661)	2.06
안 계심	6.3	31.1	36.5	26.2	100.0 (351)	2.17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7.1	26.7	41.6	24.7	100.0 (1,200)	2.16
고등학교	7.1	26.1	41.0	25.8	100.0 (5,473)	2.15
대학교 이상	8.3	27.2	37.6	26.9	100.0 (2,562)	2.17
모르겠다	5.6	25.4	40.3	28.7	100.0 (1,754)	2.08
안 계심	7.3	25.0	41.1	26.6	100.0 (192)	2.14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6.7	22.0	39.0	32.3	100.0 (4,362)	2.03
좋은 편	6.2	28.7	42.7	22.4	100.0 (4,293)	2.19
보통	8.5	29.9	39.3	22.3	100.0 (1,858)	2.25
나쁜 편	12.2	31.0	33.8	23.0	100.0 (213)	2.32
매우 나쁜 편	15.9	27.3	31.8	25.0	100.0 (44)	2.36
모르겠다	11.6	29.6	32.2	26.6	100.0 (335)	2.26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7.7	26.0	40.6	25.7	100.0 (6,967)	2.16
아버지만 취업	6.1	26.4	39.8	27.8	100.0 (3,385)	2.11
어머니만 취업	6.9	31.6	35.7	25.8	100.0 (507)	2.19
두분 모두 비취업	6.3	25.2	43.0	25.6	100.0 (270)	2.13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6.8	25.7	40.4	27.0	100.0 (8,210)	2.12
어머니	8.0	27.6	39.6	24.8	100.0 (1,557)	2.19
아버지	5.8	23.7	44.2	26.3	100.0 (190)	2.09
친(외)할머니	7.9	28.9	38.3	24.8	100.0 (1,033)	2.20
친(외)할아버지	6.7	13.3	42.2	37.8	100.0 (45)	1.89
기타	10.7	33.2	37.2	18.9	100.0 (196)	2.36

주: 1) <부표 2-30>과 동일.

〈부표 2-37〉 학생의 특성별 혼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남아야 한다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	낳아서 안된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28.2	49.4	7.5	14.9	100.0 (11,232)
학교특성					
남학교	28.7	50.0	8.2	13.1	100.0 (1,877)
여학교	26.6	58.7	5.4	9.3	100.0 (2,140)
남녀공학	28.6	46.5	7.9	17.0	100.0 (7,214)
형제자매 수					
1명	29.6	47.0	7.9	15.6	100.0 (1,414)
2명	27.5	50.4	7.5	14.5	100.0 (7,120)
3명 이상	29.6	48.0	6.9	15.5	100.0 (2,66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9.2	38.0	11.1	21.8	100.0 (216)
잘 사는 편	28.7	44.9	10.3	16.2	100.0 (1,535)
보통	27.8	50.6	7.1	14.4	100.0 (7,218)
못 사는 편	30.0	53.1	5.4	11.6	100.0 (1,652)
매우 못 사는 편	31.5	49.1	10.9	8.5	100.0 (165)
모르겠다	25.8	36.4	6.9	30.9	100.0 (434)
이성교제 경험					
있음	29.2	53.8	6.8	10.2	100.0 (5,250)
없음	27.3	45.5	8.1	19.1	100.0 (5,889)

〈부표 2-38〉 학생의 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단위: %, 명)

구분	현재 교제 중이다	과거 교제 현재 없다	교제한 적이 없다	계(명)
전체	11.4	35.7	52.9	100.0 (11,149)
학교특성				
남학교	9.0	36.6	54.4	100.0 (1,869)
여학교	12.1	41.2	46.7	100.0 (2,136)
남녀공학	11.9	33.8	54.3	100.0 (7,142)
형제자매 수				
1명	13.5	38.3	48.2	100.0 (1,406)
2명	11.0	35.6	53.4	100.0 (7,066)
3명 이상	11.4	34.6	54.0	100.0 (2,64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8.3	28.6	53.1	100.0 (213)
잘 사는 편	10.5	35.1	54.4	100.0 (1,523)
보통	11.2	35.5	53.3	100.0 (7,168)
못 사는 편	12.6	39.8	47.7	100.0 (1,640)
매우 못 사는 편	12.9	36.2	50.9	100.0 (163)
모르겠다	10.6	30.3	59.2	100.0 (426)

〈부표 2-39〉 학생의 가족특성별 혼전 임신의 대처 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남아야 한다	기를 수 있는 경우 낳는다	남아서는 안된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28.2	49.4	7.5	14.9	100.0 (11,232)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28.2	49.5	7.5	14.9	100.0 (10,746)
아버지만 생존	26.1	50.7	6.0	17.2	100.0 (134)
어머니만 생존	32.7	46.9	7.1	13.3	100.0 (294)
모두 사망	18.4	42.1	10.5	28.9	100.0 (38)
부모 혼인상태					
정상	27.9	49.4	7.6	15.0	100.0 (9,719)
별거/이혼	30.5	50.3	6.3	12.9	100.0 (974)
부의 학력					
중학교 이하	32.5	49.7	6.5	11.3	100.0 (1,026)
고등학교	28.3	52.1	6.8	12.7	100.0 (4,376)
대학교 이상	28.7	50.1	8.2	13.1	100.0 (3,788)
모르겠다	24.2	41.1	7.9	26.8	100.0 (1,663)
안 계심	30.1	46.6	7.4	15.9	100.0 (352)
모의 학력					
중학교 이하	33.1	49.3	6.8	10.8	100.0 (1,200)
고등학교	28.6	51.6	7.3	12.6	100.0 (5,473)
대학교 이상	28.8	50.5	7.7	13.0	100.0 (2,560)
모르겠다	23.8	41.0	7.9	27.3	100.0 (1,754)
안 계심	23.8	48.7	6.7	20.7	100.0 (193)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9.2	46.3	8.7	15.8	100.0 (4,364)
좋은 편	28.2	52.0	6.3	13.5	100.0 (4,289)
보통	27.0	51.4	7.0	14.6	100.0 (1,856)
나쁜 편	32.1	52.1	5.6	10.2	100.0 (215)
매우 나쁜 편	27.3	36.4	15.9	20.5	100.0 (44)
모르겠다	23.5	46.7	8.3	21.4	100.0 (336)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28.3	50.0	6.8	14.9	100.0 (6,965)
아버지만 취업	27.9	48.6	8.7	14.7	100.0 (3,385)
어머니만 취업	30.6	49.2	6.5	13.6	100.0 (506)
두분 모두 비취업	28.5	46.3	11.1	14.1	100.0 (270)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27.9	49.4	7.6	15.1	100.0 (8,206)
어머니	29.1	50.7	6.4	13.8	100.0 (1,558)
아버지	30.9	42.9	7.9	18.3	100.0 (191)
친(외)할머니	28.9	49.8	7.0	14.3	100.0 (1,032)
친(외)할아버지	23.9	47.8	17.4	10.9	100.0 (46)
기타	29.1	44.4	8.7	17.9	100.0 (196)

〈부표 2-40〉 학생의 가족특성별 이성교제 경험

(단위: %, 명)

구분	현재 교제 중이다	과거 교제 현재 없다	교제한 적이 없다	계(명)
전체	11.4	35.7	52.9	100.0 (11,149)
부모생존 여부				
모두 생존	11.4	35.8	52.9	100.0 (10,665)
아버지만 생존	12.7	28.4	59.0	100.0 (134)
어머니만 생존	14.8	36.8	48.5	100.0 (291)
모두 사망	7.9	28.9	63.2	100.0 (38)
부의 학력 ¹⁾				
중학교 이하	13.3	37.3	49.4	100.0 (1,014)
고등학교	13.2	38.3	48.5	100.0 (4,344)
대학교 이상	10.2	36.8	53.1	100.0 (3,772)
모르겠다	8.2	25.7	66.1	100.0 (1,641)
모의 학력 ²⁾				
중학교 이하	13.9	36.6	49.5	100.0 (1,184)
고등학교	12.5	38.2	49.3	100.0 (5,444)
대학교 이상	10.1	36.5	53.4	100.0 (2,543)
모르겠다	8.4	26.8	64.8	100.0 (1,731)
학생-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9.8	34.3	55.9	100.0 (4,338)
좋은 편	11.0	37.2	51.8	100.0 (4,253)
보통	15.0	35.1	49.9	100.0 (1,836)
나쁜 편	18.8	42.3	39.0	100.0 (213)
매우 나쁜 편	29.5	36.4	34.1	100.0 (44)
모르겠다	12.5	37.6	49.9	100.0 (335)
부모 취업상태				
두분 모두 취업	11.9	36.4	51.7	100.0 (6,911)
아버지만 취업	10.2	34.6	55.2	100.0 (3,361)
어머니만 취업	13.1	35.2	51.7	100.0 (503)
두분 모두 비취업	12.3	34.2	53.5	100.0 (269)
학생의 주 양육자				
어머니·아버지	11.1	35.3	53.5	100.0 (8,155)
어머니	11.7	35.8	52.5	100.0 (1,540)
아버지	11.1	36.8	52.1	100.0 (190)
친(외)할머니	12.5	38.5	48.9	100.0 (1,020)
친(외)할아버지	21.7	30.4	47.8	100.0 (46)
기타	13.4	36.6	50.0	100.0 (194)
부모의 혼인상태				
정상	10.9	35.7	53.4	100.0 (9,652)
별거/이혼	15.0	37.9	47.1	100.0 (960)

주: 1) 아버지가 안 계신 351명은 제외함.

2) 어머니가 안 계신 193명은 제외함.

〈부표 2-41〉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남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한다	가급적 지켜야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없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11,224)
성교육 경험						
경험 유	26.5	41.3	16.7	4.3	11.1	100.0 (11,036)
경험 무	25.5	26.1	8.5	4.8	35.1	100.0 (188)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26.7	42.5	17.5	4.3	9.1	100.0 (9,813)
교육 경험 무	25.4	31.4	10.2	4.4	28.6	100.0 (1,411)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26.5	43.7	17.7	4.5	7.6	100.0 (7,665)
교육 경험 무	26.5	35.5	14.1	4.0	19.9	100.0 (3,561)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23.5	43.9	21.0	5.4	6.1	100.0 (6,357)
교육 경험 무	30.5	37.4	10.7	2.9	18.5	100.0 (4,869)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26.0	42.6	18.1	4.7	8.5	100.0 (8,365)
교육 경험 무	28.0	36.6	11.9	3.2	20.2	100.0 (2,861)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24.6	42.9	21.2	6.5	4.9	100.0 (2,855)
교육 경험 무	27.2	40.5	15.0	3.6	13.8	100.0 (8,370)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23.9	43.0	20.1	5.6	7.4	100.0 (5,901)
교육 경험 무	29.5	39.0	12.6	2.9	16.1	100.0 (5,325)
기타						
교육 경험 유	22.8	32.2	14.3	6.0	24.7	100.0 (982)
교육 경험 무	26.9	41.9	16.8	4.1	10.2	100.0 (10,242)

〈부표 2-42〉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여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한다	가급적 지켜야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킬 필요없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212)
성교육 경험						
경험 유	34.2	39.8	13.0	2.3	10.7	100.0 (11,023)
경험 무	30.7	24.3	6.3	2.6	36.0	100.0 (189)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34.9	41.1	13.4	2.2	8.5	100.0 (9,807)
교육 경험 무	29.2	29.1	9.3	2.8	29.7	100.0 (1,405)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35.2	41.9	13.5	2.3	7.1	100.0 (7,655)
교육 경험 무	31.9	34.5	11.5	2.2	19.8	100.0 (3,556)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33.0	43.3	15.8	2.7	5.2	100.0 (6,356)
교육 경험 무	35.6	34.7	9.0	1.8	18.9	100.0 (4,856)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34.6	41.1	14.1	2.4	7.8	100.0 (8,350)
교육 경험 무	32.9	35.1	9.2	1.9	21.0	100.0 (2,861)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34.0	41.5	16.7	3.3	4.5	100.0 (2,855)
교육 경험 무	34.2	38.9	11.5	1.9	13.4	100.0 (8,356)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33.6	42.1	15.1	2.6	6.6	100.0 (5,899)
교육 경험 무	34.7	36.7	10.4	1.9	16.3	100.0 (5,314)
기타						
교육 경험 유	27.0	32.2	11.7	3.7	25.4	100.0 (981)
교육 경험 무	34.8	40.3	13.0	2.1	9.8	100.0 (10,231)

〈부표 2-43〉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임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 함	전혀 찬성 안 함	계(명)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226)
성교육 경험					
경험 유	4.1	17.5	36.2	42.2	100.0 (11,037)
경험 무	6.3	12.2	26.5	55.0	100.0 (189)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4.3	17.9	36.4	41.4	100.0 (9,819)
교육 경험 무	3.3	14.0	33.2	49.5	100.0 (1,408)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4.2	17.9	36.7	41.1	100.0 (7,666)
교육 경험 무	4.2	16.3	34.4	45.2	100.0 (3,561)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4.7	19.2	37.7	38.4	100.0 (6,363)
교육 경험 무	3.5	15.1	33.8	47.6	100.0 (4,864)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4.4	18.6	36.6	40.5	100.0 (8,365)
교육 경험 무	3.7	14.1	34.4	47.9	100.0 (2,861)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5.6	20.9	36.2	37.3	100.0 (2,858)
교육 경험 무	3.7	16.2	35.9	44.1	100.0 (8,369)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4.6	19.2	37.1	39.1	100.0 (5,905)
교육 경험 무	3.7	15.4	34.8	46.0	100.0 (5,322)
기타					
교육 경험 유	4.6	13.1	36.6	45.7	100.0 (981)
교육 경험 무	4.1	17.8	36.0	42.1	100.0 (10,246)

〈부표 2-44〉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임신 대처 방식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남아야한다	가릴 수 있는 경우에만 남아야한다	남아서는 안된다	모르겠다	계(명)
전체	28.2	49.4	7.5	14.9	100.0 (11,228)
성교육 경험					
경험 유	28.4	49.6	7.4	14.6	100.0 (11,038)
경험 무	17.4	38.4	12.1	32.1	100.0 (190)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28.8	51.5	7.2	12.5	100.0 (9,818)
교육 경험 무	24.5	34.7	9.0	31.8	100.0 (1,410)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29.3	51.6	7.0	12.1	100.0 (7,660)
교육 경험 무	25.9	44.7	8.5	20.9	100.0 (3,567)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29.3	54.9	5.8	10.0	100.0 (6,355)
교육 경험 무	26.8	42.3	9.6	21.4	100.0 (4,872)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29.2	52.2	6.8	11.8	100.0 (8,364)
교육 경험 무	25.3	41.3	9.2	24.1	100.0 (2,862)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30.0	55.0	5.8	9.2	100.0 (2,855)
교육 경험 무	27.6	47.5	8.0	16.9	100.0 (8,373)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29.2	53.4	6.1	11.3	100.0 (5,898)
교육 경험 무	27.2	45.0	8.9	18.9	100.0 (5,329)
기타					
교육 경험 유	27.9	37.7	6.4	28.0	100.0 (982)
교육 경험 무	28.3	50.5	7.6	13.7	100.0 (10,245)

〈부표 2-45〉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 함	전혀 찬성 안 함	계(명)
전체	7.2	26.3	40.1	26.4	100.0 (11,229)
성교육 경험					
경험 유	7.1	26.4	40.3	26.3	100.0 (11,040)
경험 무	11.6	22.2	31.7	34.4	100.0 (189)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7.0	26.7	40.4	25.9	100.0 (1,411)
교육 경험 무	7.8	23.3	28.6	30.3	100.0 (9,817)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7.4	27.1	40.7	24.8	100.0 (7,664)
교육 경험 무	6.7	24.5	39.0	29.9	100.0 (3,563)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8.2	29.0	40.1	22.8	100.0 (6,362)
교육 경험 무	5.8	22.7	40.3	31.2	100.0 (4,867)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7.4	27.2	40.5	24.8	100.0 (8,367)
교육 경험 무	6.3	23.5	39.1	31.1	100.0 (2,862)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8.5	29.9	39.8	21.9	100.0 (2,857)
교육 경험 무	6.7	25.1	40.3	28.0	100.0 (8,372)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8.1	28.4	40.4	23.1	100.0 (5,904)
교육 경험 무	6.1	23.9	39.8	30.1	100.0 (5,324)
기타					
교육 경험 유	9.3	24.7	36.2	29.7	100.0 (985)
교육 경험 무	6.9	26.4	40.5	26.1	100.0 (10,244)

〈부표 2-46〉 학생의 성교육 내용별 교육 여부에 따른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 함	전혀 찬성 안 함	계(명)	평균 ¹⁾
전체	8.4	22.5	34.6	34.5	100.0 (11,213)	2.05
성교육 경험						
경험 유	8.3	22.6	34.7	34.4	100.0 (11,024)	2.05
경험 무	10.1	21.7	29.1	39.2	100.0 (189)	2.03
성교육 내용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교육 경험 유	8.3	22.9	34.4	34.4	100.0 (9,805)	2.05
교육 경험 무	8.7	20.4	36.0	34.9	100.0 (1,408)	2.03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교육 경험 유	8.8	23.7	33.6	34.0	100.0 (7,660)	2.07
교육 경험 무	7.5	20.2	36.8	35.5	100.0 (3,553)	2.00
피임방법						
교육 경험 유	10.0	26.5	32.5	31.0	100.0 (6,348)	2.15
교육 경험 무	6.3	17.4	37.4	39.0	100.0 (4,864)	1.91
임신, 출산						
교육 경험 유	8.6	23.8	33.5	34.0	100.0 (8,358)	2.07
교육 경험 무	7.6	18.8	37.8	35.9	100.0 (2,855)	1.98
미혼모, 인공유산						
교육 경험 유	10.8	26.9	31.1	31.1	100.0 (2,855)	2.17
교육 경험 무	7.5	21.0	35.8	35.6	100.0 (8,357)	2.01
성병, 에이즈						
교육 경험 유	10.2	25.6	32.8	31.4	100.0 (5,895)	2.15
교육 경험 무	6.3	19.1	36.6	37.9	100.0 (5,318)	1.94
기타						
교육 경험 유	10.7	19.8	37.3	32.2	100.0 (981)	2.09
교육 경험 무	8.2	22.8	34.3	34.7	100.0 (10,231)	2.04

주: 1) <부표 2-30>과 동일.

〈부표 2-47〉 응답교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363)	(195)	(455)	(486)
지역				
대도시(광역시 이상)	48.9	39.5	56.3	45.7
중소도시	39.6	41.5	35.4	42.8
농촌(군지역)	11.5	19.0	8.4	11.5
성별				
남자	41.1	20.0	34.3	56.1
여자	58.9	80.0	65.7	43.9
근속년수				
5년 이하	22.8	25.1	22.9	21.8
5년~10년	18.9	33.3	14.3	17.5
11년~15년	12.0	7.7	11.0	14.6
16년~20년	21.	13.8	24.4	22.4
21년~25년	11.4	5.1	13.4	12.1
25년 이상	13.1	14.9	14.1	11.5
담당교과				
국어	4.6	-	6.4	4.3
도덕	13.9	-	17.4	15.7
사회	29.9	-	28.8	41.9
과학	3.0	-	3.7	3.5
기술가정	18.0	-	26.2	16.7
외국어(영어)	4.4	-	4.2	5.8
기타	10.6	-	13.4	11.5
비해당(초등학교 교사)	15.7	100.0	-	-

〈부표 2-48〉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관련 수업 유무

(단위: %, 명)

구분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지 않는다	계(명)
전체	33.5	66.5	100.0 (1,101)
학교특성			
남학교	32.5	67.5	100.0 (212)
여학교	31.7	68.3	100.0 (224)
남녀공학	34.4	65.6	100.0 (665)
교직경력			
4년 이하	22.1	77.9	100.0 (204)
5~9년	28.7	71.3	100.0 (195)
10~19년	35.5	64.5	100.0 (366)
20년 이상	41.0	59.0	100.0 (332)
출산경험			
있다	36.4	63.6	100.0 (770)
없다	26.8	73.2	100.0 (328)

〈부표 2-49〉 교사의 특성별 성교육 과정 이수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명)
전체	35.4	64.6	100.0 (367)
성별			
남자	32.0	68.0	100.0 (122)
여자	37.1	62.9	100.0 (245)
학교특성			
남학교	39.1	60.9	100.0 (69)
여학교	42.3	57.7	100.0 (71)
남녀공학	32.2	67.8	100.0 (227)
담당과목			
국어	20.0	80.0	100.0 (5)
도덕	29.9	70.1	100.0 (67)
사회	27.8	72.2	100.0 (36)
과학	23.1	76.9	100.0 (13)
기술·가정	46.8	53.2	100.0 (126)
외국어(영어)	25.0	75.0	100.0 (4)
기타	76.2	23.8	100.0 (21)
초등학교	22.7	77.3	100.0 (88)
교직경력			
4년 이하	17.8	82.2	100.0 (45)
5~9년	17.9	82.1	100.0 (56)
10~19년	35.9	64.1	100.0 (128)
20년 이상	48.5	51.5	100.0 (136)
출산경험			
있다	38.4	61.6	100.0 (279)
없다	25.3	74.7	100.0 (87)

〈부표 2-50〉 교사의 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절	적절한 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	계(명)
전체	1.1	20.2	46.3	30.5	1.9	100.0 (367)
성별						
남자	0.8	21.3	48.4	27.0	2.5	100.0 (122)
여자	1.2	19.6	45.3	32.2	1.6	100.0 (245)
학교특성						
남학교	0.0	25.0	38.2	35.3	1.5	100.0 (68)
여학교	1.4	12.7	46.5	35.2	4.2	100.0 (71)
남녀공학	1.3	21.1	48.7	27.6	1.3	100.0 (228)
담당과목						
국어	0.0	0.0	60.0	40.0	0.0	100.0 (5)
도덕	0.0	23.9	37.3	37.3	1.5	100.0 (67)
사회	0.0	11.1	36.1	38.9	13.9	100.0 (36)
과학	0.0	15.4	53.8	30.8	0.0	100.0 (13)
기술·가정	1.6	23.6	46.5	28.3	0.0	100.0 (127)
외국어(영어)	0.0	0.0	50.0	50.0	0.0	100.0 (4)
기타	4.8	14.3	52.4	23.8	4.8	100.0 (21)
초등학교	1.1	20.7	52.9	25.3	0.0	100.0 (87)
교직경력						
4년 이하	2.2	13.3	48.9	33.3	2.2	100.0 (45)
5~9년	0.0	16.1	51.8	28.6	3.6	100.0 (56)
10~19년	1.6	24.2	39.8	32.0	2.3	100.0 (128)
20년 이상	0.7	19.9	49.3	29.4	0.7	100.0 (136)
출산경험						
있다	0.7	21.6	47.8	28.8	1.1	100.0 (278)
없다	2.3	15.9	40.9	36.4	4.5	100.0 (88)

〈부표 2-51〉 교사의 특성별 교과서 성교육 내용의 학습자의 수준·흥미 적합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합	적합한 편	보통	적합하지 않은 편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	계(명)
전체	0.5	14.4	41.4	39.0	4.6	100.0 (367)
성별						
남자	0.0	17.2	41.8	37.7	3.3	100.0 (122)
여자	0.8	13.1	41.2	39.6	5.3	100.0 (245)
학교특성						
남학교	0.0	22.1	23.5	48.5	5.9	100.0 (68)
여학교	1.4	14.1	40.8	35.2	8.5	100.0 (71)
남녀공학	0.4	12.3	46.9	37.3	3.1	100.0 (228)
담당과목						
국어	0.0	0.0	20.0	60.0	20.0	100.0 (5)
도덕	0.0	11.9	38.8	44.8	4.5	100.0 (67)
사회	0.0	11.1	33.3	38.9	16.7	100.0 (36)
과학	0.0	23.1	69.2	7.7	0.0	100.0 (13)
기술·가정	0.8	16.5	37.0	42.5	3.1	100.0 (127)
외국어(영어)	0.0	0.0	25.0	75.0	0.0	100.0 (4)
기타	4.8	9.5	38.1	38.1	9.5	100.0 (21)
초등학교	0.0	16.1	52.9	29.9	1.1	100.0 (87)
교직경력						
4년 이하	2.2	17.8	40.0	35.6	4.4	100.0 (45)
5~9년	0.0	14.3	37.5	39.3	8.9	100.0 (56)
10~19년	0.0	11.7	43.0	40.6	4.7	100.0 (128)
20년 이상	0.7	16.2	41.2	39.0	2.9	100.0 (136)
출산경험						
있다	0.4	14.4	42.8	39.2	3.2	100.0 (278)
없다	1.1	14.8	36.4	38.6	9.1	100.0 (88)

〈부표 2-52〉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보통	필요하지 않은 편	전혀 필요하지 않은 편	계(명)
전체	73.4	23.6	2.7	-	0.3	100.0 (368)
성별						
남자	68.9	26.2	4.9	-	0.0	100.0 (122)
여자	75.6	22.4	1.6	-	0.4	100.0 (246)
학교특성						
남학교	82.4	16.2	1.5	-	0.0	100.0 (68)
여학교	76.1	22.5	1.4	-	0.0	100.0 (71)
남녀공학	69.9	26.2	3.5	-	0.4	100.0 (229)
담당과목						
국어	40.0	60.0	0.0	-	0.0	100.0 (5)
도덕	67.2	31.3	1.5	-	0.0	100.0 (67)
사회	69.4	22.2	5.6	-	2.8	100.0 (36)
과학	53.8	38.5	7.7	-	0.0	100.0 (13)
기술·가정	75.6	22.0	2.4	-	0.0	100.0 (127)
외국어(영어)	75.0	25.0	0.0	-	0.0	100.0 (4)
기타	85.7	14.3	0.0	-	0.0	100.0 (21)
초등학교	78.4	18.2	3.4	-	0.0	100.0 (88)
교직경력						
4년 이하	80.0	20.0	0.0	-	0.0	100.0 (45)
5~9년	89.3	8.9	1.8	-	0.0	100.0 (56)
10~19년	67.4	27.9	3.9	-	0.8	100.0 (129)
20년 이상	70.6	27.2	2.2	-	0.0	100.0 (136)
출산경험						
있다	72.8	24.4	2.9	-	0.0	100.0 (279)
없다	76.1	20.5	2.3	-	1.1	100.0 (88)

〈부표 2-53〉 교사의 특성별 학생에 대한 성교육 수업시 애로 사항

(단위: %, 명)

구분	내용 진부	보조 자료 부족	가치관 차이	수업 방법 모름	기타	모르 겠다	없음	계(명)
전체	24.7	35.3	13.0	17.4	5.4	1.4	2.7	100.0 (368)
성별								
남자	25.4	38.5	17.2	13.1	2.5	0.0	3.3	100.0 (122)
여자	24.4	33.7	11.0	19.5	6.9	2.0	2.4	100.0 (246)
학교특성								
남학교	39.7	23.5	16.2	8.8	7.4	1.5	2.9	100.0 (68)
여학교	31.0	39.4	9.9	12.7	4.2	1.4	1.4	100.0 (71)
남녀공학	18.3	37.6	13.1	21.4	5.2	1.3	3.1	100.0 (229)
담당과목								
국어	20.0	40.0	20.0	20.0	0.0	0.0	0.0	100.0 (5)
도덕	35.8	29.9	16.4	14.9	3.0	0.0	0.0	100.0 (67)
사회	27.8	30.6	25.0	11.1	2.8	0.0	2.8	100.0 (36)
과학	0.0	38.5	30.8	0.0	7.7	7.7	15.4	100.0 (13)
기술·가정	29.1	39.4	10.2	9.4	5.5	3.1	3.1	100.0 (127)
외국어(영어)	0.0	25.0	0.0	75.0	0.0	0.0	0.0	100.0 (4)
기타	28.6	28.6	4.8	19.0	19.0	0.0	0.0	100.0 (21)
초등학교	14.8	37.5	6.8	31.8	5.9	0.0	3.4	100.0 (88)
교직경력								
4년 이하	28.9	40.0	6.7	15.6	6.7	2.2	0.0	100.0 (45)
5~9년	23.2	33.9	7.1	25.0	7.1	0.0	3.6	100.0 (56)
10~19년	24.8	31.8	15.5	15.5	5.4	2.3	4.7	100.0 (129)
20년 이상	24.3	37.5	14.7	16.9	4.4	0.7	1.5	100.0 (136)
출산경험								
있다	23.7	35.5	14.3	17.6	5.0	1.1	2.9	100.0 (279)
없다	28.4	35.2	9.1	17.0	6.8	1.1	2.3	100.0 (88)

〔부록 3〕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승 인 번 호
제 0 6 0 2 1 호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예정시기)	2007년 1월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 (학생용)



고유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학교구분	학교특성	학년	반	응답자일련번호
1	2-3	4-6	7	8	9	10-11	12-14
1	※학생은 기입안함	※학생은 기입안함	☐ ① 초등학교	☐ ① 남학교 ☐ ② 여학교 ☐ ③ 남녀공학			※학생은 기입안함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인문계)				
			☐ ④ 고등학교(실업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응답해준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1

다음은 학생 본인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1. 학생은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 ① 남학생

☐ ② 여학생

2. 학생의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학생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구분	명
형/오빠	
누나/언니	
남동생	
여동생	

☞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0' 영으로 기입해 주세요.

3.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편이다

☐ ② 적은 편이다

☐ ③ 적당하다

☐ ④ 모르겠다

4. 학생의 부모님은 살아 계세요?

☐ ① 모두 살아 계신다

☐ ② 아버지만 살아 계신다

☐ ③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 ④ 모두 안계신다

5.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 했거나 별거 중인가요?

☞ 별거란? 이혼하기 전에 따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부모님 중 한분만 살아계시거나 모두 안계신다

6. 학생은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주로 누가 학생을 키워주셨나요?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 ② 어머니

☐ ③ 아버지

☐ ④ 친할머니(외할머니)

☐ ⑤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

☐ ⑥ 형제자매

☐ ⑦ 이웃

☐ ⑧ 도우미 아주머니

☐ ⑨ 기타

7.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 ① 학교를 안다녔다

☐ ③ 중학교

☐ ⑤ 대학교

☐ ⑦ 모르겠다

☐ ② 초등학교

☐ ④ 고등학교

☐ ⑥ 대학원

☐ ⑨ 아버지가 안계신다

8.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 ① 학교를 안다녔다

☐ ③ 중학교

☐ ⑤ 대학교

☐ ⑦ 모르겠다

☐ ② 초등학교

☐ ④ 고등학교

☐ ⑥ 대학원

☐ ⑨ 어머니가 안계신다

9.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으세요?

☐ ① 중학교

☐ ③ 대학교

☐ ② 고등학교

☐ ④ 대학원

10. 현재 학생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계세요?

☐ ① 두 분 모두 일을 하신다

☐ ③ 어머니만 일 하신다

☐ ② 아버지만 일 하신다

☐ ④ 두 분 모두 일을 안하신다

11. 학생은 현재 친할머니(외할머니) 또는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요

12. 학생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집안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매우 잘 사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⑤ 매우 못 사는 편이다

☐ ② 잘 사는 편이다

☐ ④ 못 사는 편이다

☐ ⑥ 모르겠다

13. 학생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 ① 불교

☐ ③ 천주교

☐ ⑤ 종교 없음

☐ ② 개신교(기독교)

☐ ④ 기타 종교



다음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학생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님 중 한분만 계시는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 ② 좋은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나쁜 편이다 |
|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 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
| ☐ ⑦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계신다 | |

15.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 | | |
|---|---|
|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 ② 좋은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나쁜 편이다 |
|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 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
| ☐ ⑦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다 | |

16. 학생은 가족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임명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입양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4) 사별(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흔히 친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일반적인 가족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님 중 한 분하고만 사는 가정, 재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 형제자매들끼리만 사는 가정, 할아버지(할머니) 하고만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17번과 18번 문항에 대해 음답해 주세요)

17. 학생은 위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 | |
|--|---|
| ☐ ①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 | ☐ ②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
| ☐ ③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 | ☐ ④ 모르겠다 |

18. 학생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부모님의 별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 | ☐ ②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 |
| ☐ ③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양직 돌아가셔서 | ☐ ④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
| ☐ ⑤ 모르겠다 | |

다음은 학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국어 | ☐ ② 도덕 |
| ☐ ③ 사회 | ☐ ④ 과학 |
| ☐ ⑤ 기술·가정(실과) | ☐ ⑥ 외국어(영어) |
|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교과 외 시간) | ☐ ⑧ 기타 과목 |
| ☐ ⑨ 배운적 없다 | |

20. 가족에 관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 | |
|---|--|
| ☐ ①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 | ☐ ②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
| ☐ ③ 가족 의사주에 관한 내용 | ☐ ④ 가족 내 남녀 간 역할평등 |
| ☐ ⑤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화해 | ☐ ⑥ 가족과 이웃의 관계 |
| ☐ ⑦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 | ☐ ⑧ 기타 |
| ☐ ⑨ 배운적 없다 | |

21. 수업시간에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 | ☐ ②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 ☐ ③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 ☐ ④ 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가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
| ☐ ⑤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 ☐ ⑥ 기타 |
| ☐ ⑨ 배운적 없다 | |

2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 ⑤ 모르겠다

2.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연령만 기입해 주세요)

- 1) 남자: 세
 2) 여자: 세

3. 학생은 결혼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학생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 ③ 모르겠다

5. 학생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할 사람'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가지까지만 응답해주세요.

■ 첫 번째 중요한 것 () ■ 두 번째 중요한 것 () ■ 세 번째 중요한 것 ()

< 보 기 >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건강	③ 직업(직종 및 직위)
④ 경제력(소득, 재산 등)	⑤ 연령	⑥ 학력
⑦ 학벌(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	⑧ 성격	⑨ 믿음과 사랑
⑩ 종교	⑪ 공학	⑫ 형제순위(장남, 장녀 등)
⑬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 관계, 성장 배경)		
⑭ 출신지역(배우자 집안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⑮ 기타 조건	
⑯ 조건 없다	⑰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할지 모르겠다	



다음은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④ 모르겠다

7. 학생은 앞으로 자녀를 둘 생각하세요?

- ☐ ①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 ☐ ②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 ③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 ④ 전혀 가지고 싶지 않다
☐ ⑤ 모르겠다

8. 학생은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둘 생각하세요?

- ☐ ⑥ 0명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 ⑤ 5명 이상 ☐ ⑥ 모르겠다

9. 학생이 자녀를 둔다면 꼭 아들을 갖고 싶으세요?

☐ ① 예☐ ② 아니요☐ ③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10.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① 대를 이어야 하니까☐ ② 늙어서(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③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④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니까☐ 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⑥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⑦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⑧ 기타☐ ⑨ 모르겠다☐ ⑩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또는 결정하지 못했다)

11.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들까☐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④ 자녀가 힘든 공부할 하게 되므로☐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⑦ 기타☐ ⑧ 모르겠다☐ ⑩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또는 결정하지 못했다)

12. 학생은 자녀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3.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란? 출산, 아이 돌보기, 교육 등을 말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요

14. 학생은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예

☐ ② 아니요



다음은 남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다

16.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7.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9. 학생은 부부의 역할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를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몇몇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 ① 생식기 구조, 야생성
(월경, 동정)
 ☐ ② 아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 ③ 피임방법
☐ ④ 임신, 출산
 ☐ ⑤ 미혼모, 인공유산
 ☐ ⑥ 성병, 에이즈
☐ ⑦ 기타
 ☐ ⑧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2.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⑥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 ① 부모나 친인척
 ☐ ② 형제자매
 ☐ ③ 친구나 선후배
☐ ④ 비디오(CD, DVD)
 ☐ ⑤ 인터넷(동영상)
 ☐ ⑥ TV
☐ ⑦ 잡지, 만화
 ☐ ⑧ 사회·종교단체(청소년단체, 교회 등)
☐ ⑨ 기타
 ☐ ⑩ 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 ① 부모와 상담
 ☐ ② 형제자매와 상담
 ☐ ③ 학교선생님과 상담
☐ ④ 상담전문가와 상담
 ☐ ⑤ 친구나 선후배와 상담
 ☐ ⑥ 성교육 관련 책
☐ ⑦ 인터넷 또는 PC 통신
 ☐ ⑧ 혼자 해결
 ☐ ⑨ 기타 방법
☐ ⑩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⑪ 고민한 적 없다

5.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구 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피임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2)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 (인공유산이란? 임신한 경우 아이를 낳지 않고 일부러 없애는 것)	☐ ①	☐ ②	☐ ③	☐ ④
3) 생경, 에이즈 예방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4)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5) 임신 및 출산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6.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교과 외 시간) ☐ ⑧ 기타 과목
☐ ⑨ 배운적 없다

7. 출산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 ①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 ② 생명의 탄생 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③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 ④ 출산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⑤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 ⑥ 기타
☐ ⑦ 배운적 없다

8. 학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 가끔씩 지켜야 한다 ☐ ③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지키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9. 학생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 가끔씩 지켜야 한다 ☐ ③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지키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10. 학생은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 ① 낳아야 한다 ☐ ②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 ③ 낳아서선 안 된다 ☐ ④ 모르겠다

11. 학생은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나요?

- ☐ ① 현재 교제 중이다 ☐ ② 교제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 ☐ ③ 교제 한 적이 없다



다음은 현재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 12번, 13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2.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 ①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 ② 늦은 결혼으로 출산의 시기를 늦춰서
☐ ③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 ④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 ⑤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앞매이고 싶지 않아서 ☐ ⑥ 기타

13.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 ①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툼 일이 줄어들 것이다 ☐ ②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 ③ 공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 ④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 ⑤ 식량과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 ⑥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
☐ ⑦ 기타

14.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① 예 ☐ ② 아니요



15. 학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16. 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 ① 매우 좋을 것 같다

☐ ② 좋을 것 같다

☐ ③ 싫을 것 같다

☐ ④ 매우 싫을 것 같다

☐ 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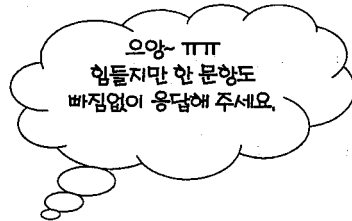
17. 학생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② 가족이 돌봐야 한다

☐ ③ 사회나 국가가 돌봐야 한다

☐ ④ 모르겠다



4

다음은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차상부류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 ①	☐ ②	☐ ③	☐ ④
9) 여자가 판사·검사과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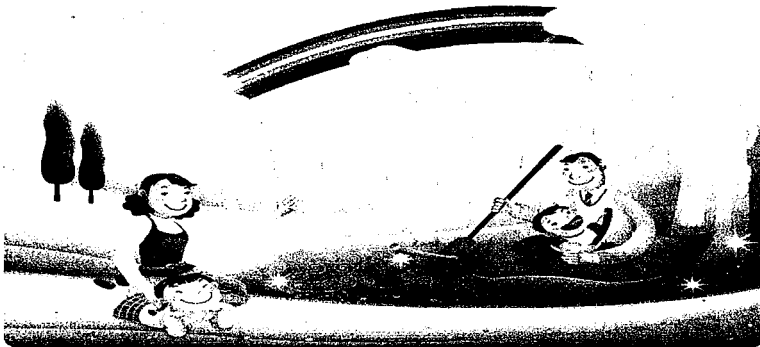
구 분	매우 중요함	대체로 중요함	별로 중요 않음	전혀 중요 않음
1) 편안한 생활	☐ ①	☐ ②	☐ ③	☐ ④
2) 풍요로운 물질생활	☐ ①	☐ ②	☐ ③	☐ ④
3) 더불어 사는 삶	☐ ①	☐ ②	☐ ③	☐ ④
4)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 ①	☐ ②	☐ ③	☐ ④
5) 자유로운 생활	☐ ①	☐ ②	☐ ③	☐ ④
6) 인간에 대한 사랑	☐ ①	☐ ②	☐ ③	☐ ④
7) 화목한 가정	☐ ①	☐ ②	☐ ③	☐ ④
8) 여가생활	☐ ①	☐ ②	☐ ③	☐ ④
9)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 ①	☐ ②	☐ ③	☐ ④
10)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 ①	☐ ②	☐ ③	☐ ④
11)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

[부록 4]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실태 조사 (교사용) 조사표 양식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예정시기)	2007년 1월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 (교사용)



고유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학교구분	학교특성	학년	응답자일련번호
1	2-3	4-6	7	8	9	10-11
2	※기입 안함	※기입 안함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인문계) ☐ ④ 고등학교(실업계)	☐ ① 남학교 ☐ ② 여학교 ☐ ③ 남녀공학		※기입한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중·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재직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 이 곳에는 기입 안함

CARD

01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내용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를 해 주세요.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심각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에서 출산이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다음은 현재 출산(인구포함)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4. 현재 선생님께서는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 ① 예(☞ 4-1번으로 가시오) ☐ ② 아니오(☞ 5번으로 가시오)

☐

※ 4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4-1에서 4-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

4.2.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합하다 ☐ ② 적합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합하지 않다

☐

4.3.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②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

4.4.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한 편이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4.5. 교과서의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

4.6.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④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 ⑦ 애로 사항이 없다

☐

다음은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5. 현재 선생님께서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 ① 예(☞ 5-1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6번으로 가세요)

※ 5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5-1에서 5-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2.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합하다 ☐ ② 적합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합하지 않다

5-3.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②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5-4.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5.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6. 가족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④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 ⑦ 애로 사항이 없다

☐

다음은 향후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6. 학교교육에서 출산(인구 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 ⑧ 기타

7. 학교교육에서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 ⑧ 기타

8. 학교교육에서 출산 친화적 가치관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초등학교 저학년부 (1학년~3학년) ☐ ② 초등학교 고학년부 (4학년~6학년)
☐ ③ 중학교부터 ☐ ④ 고등학교부터

☐

9. 학교교육에서 가족 친화적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초등학교 저학년부 (1학년~3학년) ☐ ② 초등학교 고학년부 (4학년~6학년)
☐ ③ 중학교부터 ☐ ④ 고등학교부터

☐

10.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교육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 ☐ ②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 한다
- ☐ ③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
- ☐ ④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11.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교과 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 ☐ ②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
- ☐ ③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④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12. 앞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교사가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 한다
- ☐ ②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 ☐ ③ 계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 ☐ ④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이 담긴 독서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3.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 ① 예(☞ 13-1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CARD 02의 1번 문항으로 가세요)

※ 13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13-1에서 13-5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선생님께서는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13-2.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적절하다 | ☐ ② 적절한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 ☐ ⑤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

☐

13-3.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적합하다 | ☐ ② 적합한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 ☐ ⑤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

☐

13-4.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필요하다 | ☐ ② 필요한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필요하지 않다 |
|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13-5.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 | | |
|--|---------------------------------|
|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
|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
|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
| ☐ ④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
| ☐ ⑤ 기타 | ☐ ⑥ 모르겠다 |
| ☐ ⑦ 애로사항이 없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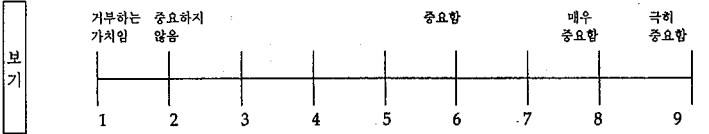
☐

다음은 일반적 가치 측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CARD

02

선생님은 아래에 제시한 가치들을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를 거부한다면 1점을 골라주시고,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2점 극히 중요하다면 9점으로
할 때 선생님은 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치	점 수
1) 평등 (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함)	1)
2)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2)
3)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3)
4)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4)
5) 권위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5)
6) 사회 정의 (불의를 바로 잡음, 약자를 보살핌)	6)
7) 독립성 (자기 자신을 믿음, 자족적임)	7)
8) 야망 있음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8)
9) 마음이 넓음 (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9)
10) 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10)
11) 정직 (거짓 없음, 진실함)	11)
12) 도움이 됨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12)
13) 성공 (목표를 달성함)	13)

다음은 양성평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1) 남자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을 쌓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8)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9)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1)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12)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3)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 ①	☐ ②	☐ ③	☐ ④
14) 여자가 판·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15)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16) 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학생은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17) 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독독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18) 더 많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9) 여자가 육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0)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 ①	☐ ②	☐ ③	☐ ④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선생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 ⑤ 모르겠다

☐

4.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 ☐ ②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 ③ 자녀를 갖기 위해서 ☐ ④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 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 ⑥ 사회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 ⑦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 ⑧ 기타
☐ ⑨ 모르겠다

☐

5.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 1) 남자: 세
 2) 여자: 세

6. 선생님은 남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

7. 선생님은 여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

다음은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8.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 ② 직장 일과 가정 일의 이중 부담
☐ ③ 부부간의 대화 시간 부족 ☐ ④ 직장 일에 전념하기 어려움
☐ ⑤ 직장에서의 눈치와 불이익 ☐ ⑥ 문제 없다

☐

9.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 두어야 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 ☐ ① 출산 ☐ ② 직장 ☐ ③ 모르겠다

☐

10. 일반적으로 교직이라는 특성이 다른 직업보다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

다음은 자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11-1번으로 가세요) ☐ ② 대체로 그렇다 (→ 11-1번으로 가세요)
☐ ③ 아니다 (→ 11-2번으로 가세요) ☐ ④ 전혀 아니다 (→ 11-2번으로 가세요)
☐ ⑤ 모르겠다

☐

⑤번을 선택하신 경우 CAPD 03'의 1번으로 가세요.

※ 11번 문항에서 ①, ②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부부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 ② 노후에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 ③ 보살피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 ④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 ⑤ 생의 의욕을 주기 때문이다 ☐ ⑥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 ⑦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 ⑧ 기타

☐

※ 11번 문항에서 ③, ④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자녀를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들까
☐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제별)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기타

☐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CARD
03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자 ☐ ② 여자

☐

2.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중·고등학교 교사만 응답해 주세요)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 ☐ ⑥ 외국어(영어)
☐ ⑦ 기타 ☐ ⑧ 비 해당(초등학교 교사)

☐

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몇 년 되셨습니까?

() 년

4. 선생님께서는 출산 경험이 있으십니까?(남자 선생님의 경우 배우자)

- ☐ ① 있다 (→ 4-1번으로 가세요) ☐ ② 없다 (→ 5번으로 가세요)

☐

※ 4번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선생님 자녀의 주 양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 ☐ ① 본인 및 배우자 ☐ ② 친인척 ☐ ③ 육아도우미
☐ ④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등) ☐ ⑤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출산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기타 ☐ ④ 모르겠다

☐

6. 가족 형태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매체를 통해 가족형태(한 부모 가정, 재혼 가정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②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바람직 하다고 본다
☐ ③ 변화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편이다
☐ ④ 기타 ☐ ⑤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
☐
☐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5

합동연구 2006-01-5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연구 -

Study on Sexuality Education for Future Healthy Generations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7.000 원

저 자 오 영 희 외

발행인 김 옹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제정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388-2 93330

ISBN 978-89-8187-383-7 93330(전6권)